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11월 26일 수요일 (주간) 제 449 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수행법 제대로 알자"

조계사청년회 12월 2일~내년 3월 9일
'겨울나무에서 봄나무로' 대강좌 마련

'어떤 수행법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불자들이라면 조계사로 가라. 현재 행해지고 있는 거의 모든 수행법을 한 자리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는 12월 2일부터 2004년 3월 9일까지 '겨울나무에서 봄나무로'라는 주제로 수행법 대강좌를 연다. 주력, 참선, 관법수행, 염불, 사경, 간경, 위빠사나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11가지 수행법들을 각 수행법의 전문가들이 기초이론부터 실참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한다.

강사진은 고우(각화사 선원장) 혜능(해인사 율원장) 정목(춘천 정토원장) 미산(백양사 참사람결사 수행원장) 스님 등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각 분야의 최고 수행자들로 구성됐다.

강좌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10시까지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며 모두 15회에 걸쳐 이뤄진다. 각각의 수행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 2시간 반의 강의가 짧은 것은 사실. 그러나 쉬우면서도 밀도높은 강의로 적어도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수행법 대강좌는 한국불교 수행법을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자와 일반인들에게는 불교 수행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최고의 기회.

☞2면으로 계속

날짜	초청 수행인	주제	날짜	초청 수행인	주제
12월 2일	지홍스님(조계사 주지)	수행체계와 수행법	1월 27일	정각스님 (원각사 주지)	간경 수행법
12월 9일	혜능스님(해인 율원장)	계율 수행법	2월 3일	김열권 법사(호두마을 수행지도)	대승 위빠사나
12월 16일	정인스님(불회사 주지)	참회 수행법	2월 10일	미산스님(백양사 참사람수행원장)	참선1
12월 23일	청견스님(법왕정사 주지)	절 수행법	2월 17일	대효스님(제주 원명스님 회주)	참선2
12월 30일	강선희 보살	주력 수행법	2월 24일	법륜스님(또는 정병조 교수)	설법 수행
(04년) 1월 6일	정목스님(정토원 원장)	염불 수행법	3월 2일	이종린 거사(홍익소아과 원장)	보현행원 수행법
1월 13일	정목스님(정토원 원장)	염불 수행법	3월 6~7일	–	구도법회 3천배 정진
1월 20일	김경호 거사(한국전통사경연구회장)	사경 수행법	3월 9일	고우스님(태백산 원장)	생활인의 수행법

관음종 종정 죽산 스님
총지종 종령 수성 대종사


◇죽산 스님


◇수성 대종사

관음종과 총지종의 최고 어른인 종정(총지종은 종령)이 새로 법좌에 올랐다. 관련기사 6면

관음종은 11월 19일 총본산 서울 묘각사에서 제6세 종정 남천 죽산(南天竹山)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10월 열린 총지종 추기강공에서 제8대 종령으로 추대된 수성(修成) 대종사도 이보다 하루 앞선 11월 18일 종단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 양 종단은 큰어른을 중심으로 종풍을 진작하고 종단 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동국학원 이사장 정대 스님 입적

"모두 꿈속 사람임을 깨달으라" 열반게
22일 용주사서 다비



조계종 30대 총무원장을 지냈던 동국학원 이사장 월암당(月庵堂) 정대(正大) 스님이 11월 18일 새벽 5시경 주석하던 안양 삼막사 월암당에서 입적했다. 법랍 42세, 세수 67세.

1937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62년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존경받던 전강(田岡) 스님을 은사로 완주 위봉사에서 출가했으며, 도봉산 망월사 선원을 비롯해 수덕사, 용주사 등지에서 수행정진했다.

또 73년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을 시작으로 30여 년간 중앙 종무행정 분야의 중심에서 불교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정대 스님은 열반에 들기 전 '우리 모두 꿈 속의 사람임을 깨달으라'는 법어(열반게)를 마지막으로 남겼다.

스님은 중앙종회 의원(8선), 중앙종회 의장, 총무원장 등 종단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특유의 친화력과 행정력으로 종단 안정에 기여했고, 중앙승가대 이전,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건립 등의 굵직굵직한 불사를 통해 불교 현대화와 종단 중흥의 초석을 다졌다.

정대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22일 출가본사인 용주사에서 동국학원장으로 엄수됐다. 관련기사 3면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사랑의 김장김치 맛보세요'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는 11월 20일 영등포 보현의 집을 방문, 김장배추 4만여 포기를 각 복지관에 전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자, 협의회 홍보대사 탤런트 김미숙 씨가 김장을 담그는 모습. 관련기사 5면 사진=박재완 기자

지율 스님, 다시 부산시청앞에

"천성산 지키는 일 새롭게 시작할 것"

11월 17일 45일간의 단식을 회향한 지율스님은 3일간의 짧은 휴식을 마치고 21일, 다시 부산시청 앞으로 돌아왔다.

단식 40일을 넘긴 13일부터 '지율스님을 살리기 위해 도롱뇽 10만 소송인단을 모으자'는 전국적인 움직임이 일었고 4일 만에 17만 여명이 도롱뇽 소송인단에 동참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으면서 17일, 부산과 서울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을 회향했다. 그러나 다시 부산시청 앞으로 돌아와 일인시위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지율스님과 천성산 관통저지 전국비상대책위는 10만 소송인단을 100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소송인단 모집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 전국 투어를 계획 중이다. 또한 환경부장관 고발, 도롱뇽 소송 재판부에 편지 보내기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천성산 구간 시추공사가 시작되면 현장으로 달려가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도롱뇽 소송인단 참여: (051)623-9220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성지 녹야원에 첫 한국불상 봉안

한 · 인 수교 30년 기념, 12월 30일 봉불법회
불자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명단 영구복장

현대불교신문은 '한-인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최초로 설법하신 성지 녹야원에 한국전통 양식으로 조성된 불상을 모시는 불사를 독자 여러분을 비롯한 전국 사부대중과 함께 추진합니다.

▶부처님 성지 녹야원 한국부처님 봉안불사
- 동참금: 1구좌 1만원
- 모든 동참자의 명단은 부처님 복장에 영구히 봉안됩니다.
- 접수: 국민은행 006-01-0783-279 예금주/현대불교신문

▶봉안법회 참가 및 성지순례 행사 프로그램
- 점안법회
  - -일시: 2003년 12월30일(성도절)
  - -장소: 마하보디사르트센터(Maha Bodhi Samath Center)
  - -법주: 혜총스님(감로사 주지)
- 성지순례
  - -인솔법사: 리선행법사(성지순례 전문가)
  - -일정: 2003년 12월28일~1월7일(10박11일)
  - -코스: 인도(사르나트(녹야원), 보드가야, 쿠시나가르, 라즈기르, 스라바스티, 바라나시, 아그라, 뉴델리) 네팔(룸비니)
  - -동참금: 199만원
  - -특전: 지역마다 최고급 호텔, 요리사 동행 식사제공, 서울 부산에서 동시 출발

▶동참문의: (02)737-8881 **▶주최: 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 구 :(053)768-8008 호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 릉 :(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최근 한 국제여성 사회복지단체가 마련한 경매에서 '템플스테이' 이용권이 25만원에 낙찰됐다. 주한 외교관 부인과 국내 외국인 여성 CEO의 후원 단체인 'SIWA(Seoul International women's Association)'가 11월 1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주최한 연례 경매행사에서 템플스테이가 출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IWA가 템플스테이를 경매에 붙인 이유는 전적으로 SIWA 회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 SIWA 이혜영 부회장은 "월드컵 이후 한국불교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가 외국인들 사이에 주요 관심사가 됐다"는 '암자기행'을 여행상품으로 내놓았다.

상품으로 각광받는 불교문화

이처럼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이 한국불교문화에 빠져드는 이유는 불교 정신이 '시대의 정신'으로 고도 입증 배경을 설명했다.

한적한 암자도 문화상품으로 등장했다. 전라남도는 오는 12월부터 구례 사성암, 고흥 수도암, 여수 향일암, 해남 일지암 등을 둘러보는 그 가치를 안정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또 불교를 시대 흐름에 맞는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시대의 정신적 · 물질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은 '문화'다. 결국 불교 유 · 무형의 자산이 현대인의 '정신적 공백'을 메우고, 나아가 인류 보편사상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불교 밖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발맞춰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제는 국내외의 기대만큼 불교가 스스로 '불교문화'를 가다듬고 발전시켜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불교인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김철우(취재1부 기자)



2004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나"·"다"군)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모집단위	일반전형 "나"군	일반전형 "다"군	일반전형 소계	특별전형("나"군) 공무원	특별전형("나"군) 재외국민	특별전형 소계
불교정화학부 불교학전공	7	7	14	–	–	–
물리학부 일어물리전공 일어물리전공 중어물리전공	21	21	42	1	2	3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전공	7	7	14	2	–	2
합계	35	35	70	3	2	5

2.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학원서 교부		2003. 10. 9(수) ~ 12. 13(토)	본 대학교 지정 교부처
입학원서 접수		2003. 12. 11(목) ~ 12. 13(토) 09:00 ~ 17:00	본 대학교 지정 접수처
면접 고사	"나"군	2004. 1. 7(수) 10:00 예정	본 대학교
	"다"군	2004. 1. 28(수) 10:00 예정	본 대학교
합격자 발표	"나"군	2004. 1. 16(금) 10:00 예정	본 대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군	2004. 2. 2(월) 10:00 예정	본 대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합격자 등록		2004. 2. 6(금) ~ 2. 9(월)	본 대학교 및 지정은행(마감시간 내)
이듬록 충원		2004. 2. 10(화) 이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교 홈페이지(www.ggu.ac.kr) 입시안내를 참조하세요.
* 문의처 _ 금강대학교 교학과 041)731-3050

금강대학교 「초청견학」 안내

"Dream campus – 금강대학교를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최첨단 교육 및 정보화시설을 갖춘 디지털 캠퍼스, 국내 최고수준의 장학, 후생복지시설 및 제도 등 최적의 면학환경을 직접 확인 하세요!

1. 일시
- 수도권, 강원, 영남권 : 11월 22일(토)
- 충청권, 호남권 : 11월 29일(토)

2. 집결장소 및 시간
- 대전역(대한통운 앞) 1:00
- 대전고속버스터미널(피자헛 앞) 11:10

3. 기타
- 참가자에게 왕복교통비, 기념품, 점심 제공
- 오후 3시에 행사종료, 대전역까지 학교버스로 수송
- 학부모님도 동행이 가능하며, 학생은 학생증 지참요망

* 참가희망자는 041-731-3042로 신청바랍니다.

사 설

명상 편의점 시대 개막

편의점에 가면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명상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선문화연구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에 명상편의점인 선(仙)을 개원했다. 누구나 쉽게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라 한다. 지난 9월에는 '선문화체험전 – 맨발로 걷는 명상여행'이 서호갤러리에서 성공리에 개최된 바가 있다.

명상을 선(禪)이라 하지 않고, 선(仙)이라 명명한 것은 도교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에는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좌망(坐忘)이나 태식법(胎息法) 같은 호흡법이 있었다. 불교의 전래 이후 불교의 수행법을 수용하여 더욱 발전시킨다. 그러나 이름이야 여하튼 명상법은 불교의 영향을 배제하곤 논할 수 없다.

명상은 의학, 경영학, 심리학 등 다방면에서 응용되고 있다. 몰개성화, 인간의 부품화, 극단적인 개인주의 등으로 현대인들은 지쳐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사는지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명상은 이러한 사회적 증후군들을 치료할 수 있는 요법이 될 수 있다. 명상을 현실 속에서 활용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불교계는 명상편의점이 등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사이비명상문화가 등장하여 대중을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천년의 명상전통을 가진 불교가 명상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예의 주시하자.

조계종의 종립학교 사랑

조계종이 종립학교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애정 표현을 했다. 내년 예산에, 동국대에 총무원장 장학금 1억원을 배정했고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종비생 기숙사인 백상원 지원금도 각각 2억 원 씩을 배정한 것이다. 조계종이 내년부터 동국대에 총무원장 명의의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박수를 받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에도 강원과 중앙승가대 등 승가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왔지만 그 폭을 넓혀 인재불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인재불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불사다.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불교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모래위에 집짓기일 뿐이다. 특히 동국대가 종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오래전부터 수위를 높여 온 부분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명의의 장학금이 종립대학에 없었던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런 구도 속에서 동국대 불교대학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지적마저 있어 온 터다. 이제 총무원장 장학금이 운영됨으로써 동국대에 대한 종단의 애정은 상당한 상징을 갖게 됐다.

이 같은 상징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불교학 발전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종단 장학금의 수혜자인 동국대도 이러한 상징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동국대도 종단과 한 몸이라는 인식 속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의지를 더욱 불태워야 할 것이다. 종단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지혜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기왕에 마련된 장학금 제도를 통해 종단과 동국대가 인재불사의 마당을 더욱 넓혀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6년교육 마쳐야 구족계 수지"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승가교육체계 개선뜻 밝혀

수익사업 등 통해 승려복지체계 갖춰

북한산문제 여론수렴해 원만해결 생각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1월 19일 수덕사에서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의 법어집 <덕숭산 법향> 봉정식이 끝난 뒤 출입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주요 종책 기조와 북한산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먼저 내년도 중점 사업과 관련해 법장 스님은 "최소한 6년의 교육을 거쳐야만 비구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승가교육체계를 바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장 스님이 제시한 '선교육 후득도'는 4년간 내 · 외전을 포함해 영어, 설법, 의식까지 모두 배운 뒤 사미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원과 선원을 전문대학원 형태로 전환해 이곳에서 2년간 공부를 마쳐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특히 사이버불교대학을 개설하는 등 전문대학원 제도를 마련해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고 법장 스님은 밝혔다.

승가복지와 관련해서는 "수익사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이것(승가복지)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장 스님은 특히 수익사업과 관련해 "이젠 종교도 자립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현대사회에서 제대로 종교로 자리매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북한산 및 멸빈자 처리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일단의 견해를 피력했다.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법장 스님은 "내게는 해법이 없다. 언론이나 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는 물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종합적 의견수렴을 통한 대안마련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현재 호법부가 정우 스님의 승적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멸빈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총무원의) 각 부서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며, 행정절차상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주지선출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범어사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 그 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1면에 이어서

참가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재가불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불교수행법을 통한 자기성찰의 기회제공과 수행을 생활문화로 정착 · 확대시켜나가겠다는 것이 조계사 청년회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계사청년회는 참가자들에게 매주 새로운 강좌와 함께 매일 108배하기, 10분간 참선하기, 발원문 쓰기 등을 통해 수행의 효과를 배가시킨다.

정우식 회장은 "이번 수행법 대강좌를 일회적 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가불자 동안거 모델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계사청년회는 이와 함께 한국불교 나아가 한국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청년불자 희망21만들기, 염원 108배 이어하기, 설법 · 집전대회 등 '1인 1수행법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02)735-3724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범어사 선암사 및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위

소위원회 구성…활동 본격화

조계종 중앙종회 범어사 · 선암사 실태파악특별위원회와 사설사암실태파악특별위원회는 11월 18일 첫 회의를 열고 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이날 범어사 · 선암사 특위는 향적 · 정문 · 혜림 · 토진 · 무자 스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향적스님을 소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11월 26일 범어사와 선암사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사설사암특위도 효림 · 법안 · 일화 · 도문 · 계호 스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효림 스님에게 소위원장을 맡기는 한편, 11월 28일 오전 11시 소위 1차 회의를 열어 조사 범위와 활동 방향 등 세부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심 민 섭



"향후10년 포교종책수립"

포교원, 내년 사업기조 설명

조계종 포교원(원장 무비)은 11월 19일 포교, 신도단체 대표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포교원 사업 기조를 설명하는 '포교 · 신도 단체 지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포교원이 별원화된 지 10년을 맞아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포교 종책 수립에 의지와 원력을 결집하는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일관 스님은 중장기 포교 종책 수립 외에도 △신도교육과 수행을 중심으로 한 신도종책 수립 △본 · 말사 포교역량 강화와 사찰-제단체 연계 시스템 강화 △군승특별교구 출범 및 청(소)년 포교활동 강화 △포교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체계 확립 △템플스테이 전담기구의 확보를 통한 국제포교 역량 강화 등을 6대 사업 기조로 제시했다. 권형진 기자

경내 화장실 건립 쉬워질듯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국회상정

전통사찰보호구역에서도 스님이나 신도들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 창고 등의 부대시설 건립이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18일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전통사찰보호구역에서 불교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불사를 위한 부대시설 변경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2항' 개정안을 국회 문광위에 상정했다.

문광위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부대시설의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 전통사찰보호구역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부대시설의 범위를 '화장실 및 창고'로 제한하자"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종무2과 박낙종 사무관은 "법률안이 개정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국립공원에 위치한 사찰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통사찰인 회룡사 주지 법현 스님은 "화장실이나 창고 등의 증 · 보수 과정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전통사찰 보호나 자연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항목을 명확히 규정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오유진 기자

본사사령

배지선
(명)편집국 취재부 수습기자
2003년 11월 10일

고침 448호 5면 '화성 신흥사에서 열린 제2차 불교환경워크숍 모습' 사진은 11월 13일 열린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자비관 신축 준공식 장면이므로 사진 설명을 바로잡습니다. 14면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이 개최한 '제3회 재해민돕기 수행선법가의 밤' 기사에서 '심우도'를 작곡한 사람은 박준상 씨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본 종단은 입적하신 이법홍 대종사님께서 창종하시어 종정 중심제로 종단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종권 쟁탈을 위해 일부 몇사람의 해종행위로 인하여 종단이 일파만파 된 것을 전 종도들이 단합하여 종단의 위상을 정립하고 발전에 거듭할것에 협조를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그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송무진외 추종자의 행위

1. 종권 쟁탈을 위해 종정 중심제(종헌제3장 13조 종정의 권한 참조)에서 불법으로 총무원장 중심제로 개정하여 해종행위를 자행하여 왔습니다
2. 송무진은 2000년 10월 23일 상벌위원회에서 채탈도첩 결정되어 2000년 10월 26일 종정스님의 재가로 채탈도첩 된자로 승려의 자격을 상실하였는데도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3.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2002년 1월 3일에 원효성사의 화쟁사상을 망각하고 사법 기관에 고소 고발한 것을 모두 취하하고 참회하며 추후 화쟁사상을 실천하겠다는 참회 각서를 작성하고 잘못을 반성한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송무진은 총무원장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정된 종헌.종법을 공포하고 대한불교원효종의 총무원장 행세를 하며, 소외 김상조를 종정에 취임시켜 종도들로 하여금 종단의 혼란을 일으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2003. 10월 28일자 불교신문 성명서, 공고문 광고참조)하였습니다.
5. 대한불교원효종은 종정중심제인데도 송무진이 자칭 총무원중심제라고 주장하며 불법단체를 구성하고 수차례 재판을 걸어왔으나 2003년 10월 30일 부산고등법원 판결(부산지방법원 선고 99 가합16739)에 의하여 총무원장 중심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조속히 송무진측이 만든 불법단체는 해체되어야 하며 종도들은 현혹되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6. 종조의 화쟁정신에 입각하여 종권을 바로잡고 귀일승하여 불법 홍포에 진념 명실상부한 불교종단으로 거듭나고자 아래와 같이 원효종 전 종도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 아 래 —

종도대회 일시 : 2003년 11월 26일 오후 2시
장 소 :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2003년 11월 14일

대한불교원효종 종정권한대행 최 덕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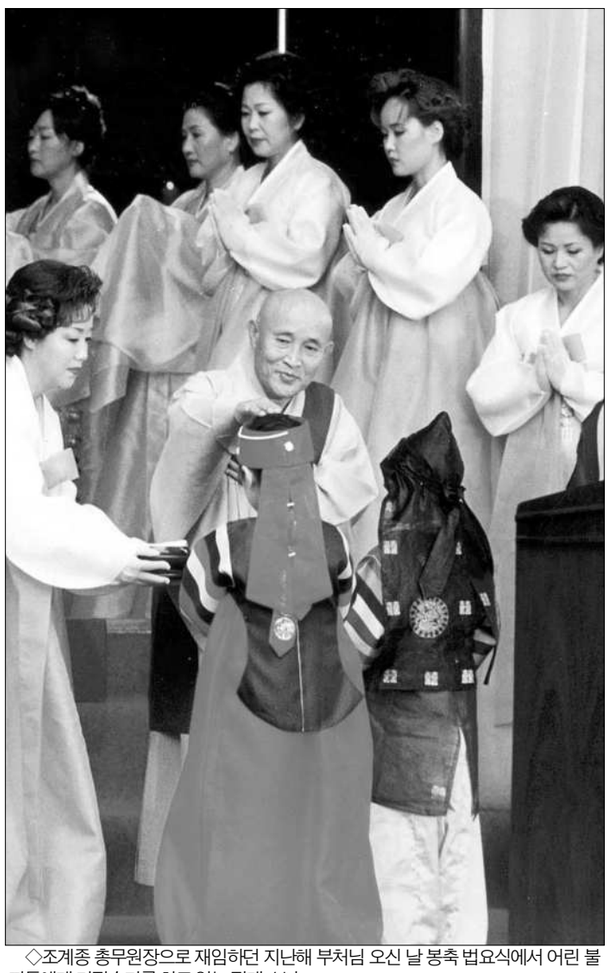
'理·事' 겸비 불교발전 큰 족적

열반게

來不入死關(내불입사관) 올 때도 죽음의 관문에 들어오지 않았고
去不出死關(거부출사관) 갈 때도 죽음의 관문을 벗어나지 않았도다.
天地是夢國(천지시몽국) 천지는 꿈꾸는 집이어니
但惺夢中人(단성몽중인) 우리 모두 꿈속의 사람임을 깨달으라.

11월 18일 원적(圓寂)에 든 정대 스님은 수행(理判)과 행정력(事判)을 겸비해 조계종은 물론 한국 불교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1962년 스물여섯의 나이로 출가, 동산, 효봉, 춘성 스님 등을 찾아 가르침을 받고 스승 전강 스님으로 부터 받은 '판치생모(板齒生毛, 이빨에 털이 난 도리)' 화두를 타파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어린 불자들에게 마정수기를 하고 있는 정대 스님.

18일 원적한 정대 스님 행장

1973년 사회국장으로 첫발을 내딛은 이래 두 차례의 사회부장, 네 차례의 재무부장(이상 70년대), 두 차례의 총무부장(80년대)을 거쳐 99년엔 종무행정의 최고 수반인 총무원장 자리에 올랐고, 1975년 제4대 중앙종회 의원으로 피선된 이후 8번을 역임하며 중앙종회 의장을 두 차례 지냈다. 올해 초에는 총무원장 4년 임기를 10개월여 남겨두고 물러나 동국학원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인재양성에도 뜻을 두다 열반에 들었다.

30여 년 간 중앙 종무행정 분야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스님은 역대 어느 총무원장보다도 뛰어난 행정력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종단의 안정과 중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9년 11월 총무원장에 당선된 스님은 종단의 혼란을 수습하고 화합을 이뤄냈으며, 중앙승가대학사 김포 이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등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굵직굵직한 불사들을 마무리 지은 것을 최대 업적으로 드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총무원장 재임 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의견을 밝힘으로써 불교계가 제 목소리를 낸다는 박수와 '정치적'이라는 질타를 동시에 받기도 했다. 계파 중심의 종단 운영으로 불교를 세속 정치화했다는 비판 역시 후대의 평가를 기다려야 할 부분이다.

스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행정력' 혹은 '정치력'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인간적인 면모다. 출가한 몸이면서도 일찍 홀로 된 어머니를 20여 년간 절에서 모시고 살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며칠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효심이 남달랐다. 지난해에는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일에 나서기도 했다.

스님을 가까이서 모신 상좌스님들에게는 "상좌들한테는 칼 같으면서도 신도들한테는 보살로 통할 정도로 덕화를 베풀기를 좋아하신 분"이었다. 성효 스님(용인 용덕사 주지)은 "하도 혼나고 컸다"며 "김장할 때 배추 몇 포기에는 고춧가루가 몇 근 필요한 지, 사소한 것까지 꿰고 계실 정도로 철저하신 분"이라고 전했다. 성무 스님(수원 용화사 주지)은 "수행이든 행정이든 어느 것 하나를 하면 끝까지 목숨을 던지셨던 분"이라며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자비로움을 잃지 않으셨고, 서로가 다 함께 좋은 길을 찾아가는 합리적인 분이셨다"고 말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스님의 인품 탓인지 입적 이후 법구가 모셔진 출가본사 용주사에는 교계의 원로·중진 스님, 신도들 외에도 각계에서 조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인태 정무수석을 대신 보내 추모의 뜻을 전했으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 박순용 전 검찰총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등 평소 스님과 인연이 깊던 정·관계 인사들이 찾아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일본 불교계에서도 조문단을 보내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특유 행정·친화력 바탕 종단 중흥에 기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등 굵직한 숙원불사 마무리

모친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장학사업

buddhanews.com에 정대 스님·청화 스님 입적 관련 뉴스 스페셜

어린이법회 年 11% 감소…존폐위기

대불어, 2만2천여 사찰대상 조사

어린이법회가 연간 11%의 감소율을 보이며 존폐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가 포교원의 후원으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2천여 사찰의 어린이법회현황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법회 참가 학생 수가 전국 초등학생 400여만 명의 0.3%에도 못 미치는 10,1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도 전국어린이법회현황조사(대불어 자체 조사) 결과인 11,937명에 비해 11%나 감소한 수치이다. 불교계 어린이포교담당자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10년 안에 어린이법회가 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가 어린이 10,173명
전국 초등학생의 0.3%

중장기적 정책 수립
포교프로그램 개발 시급

현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충남지역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없어진 어린이법회 수가 6곳에 달하며, 경기지역 역시 44곳에서 39곳으로 5곳이나 줄었다. 전국 2만 2천여 사찰 중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은 305곳에 불과하다.

종단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전국의 어린이법회현황에 대한 정확한 연도별 추이변화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불어 자체 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내 어린이법회들은 10년 단위로 절반가량씩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대불어 자체조사		2003년 포교원·대불어 공동조사	
	사찰수	어린이수	사찰수	어린이수
서울	57	2,185	62	1,995
부산	37	932	31	802
대구	14	465	10	410
인천	7	260	4	160
광주	5	160	7	220
대전	11	460	12	470
울산	7	305	7	230
강원	16	515	13	321
경기	44	1,570	39	1,500
경남	38	2,160	40	1,425
경북	33	940	30	975
전남	14	440	11	320
전북	8	250	7	250
제주	9	330	8	410
충남	17	518	11	335
충북	12	437	13	350
계	329	11,927	305	10,173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비단 부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및 경기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불교기관 및 단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지역이 이렇다면 다른 지역은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대불어 이수완 사무국장은 "종단을 비롯한 각 사찰들이 어린이포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 어린이법회 개설과 포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불교기반으로 새 이미지 창출하자

거대조직 이끌 역동적에너지 부족

20일 '일류동국 도약을 위한 포럼' 열려

'동국대 발전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있는가?'

동국대의 현재를 해부해 보는 난상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11월 20일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열린 '일류 동국 도약을 위한 포럼'이다. 동국대 홍기삼 총장은 "건학 100주년을 900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했다.

오국근 동국대 명예교수가 먼저 불을 지폈다. 오 교수는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동국대는 불교학과 한국학 분야에서 명실 공히 최고의 대학이었다. 지금도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며 "70년대의 낙하산식 인사와 그로 이한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봉현 교수(동국대 광고학과)가 서울지역 고등생과 학부모, 동국대 재학생, 동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국대 이미지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동국대를 지원가능 대학으로 고려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75%, 학부모의 80%가 '아니'라고 답했다. 재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 및 자부심도 낮아 71%와 68%가 '옮기고 싶다'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년대에 동국대를 다녔다는 문병호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이사는 "문제는 다 알고 있고, 방향도 다 안다고 생각한다"며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야 하며 거대한 불교자원을 사회적으로 선용하는 제1의 통로가 동국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나온 얘기는 보다 직접적이었다. 70년대 학번인 김택근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은 "동국대를 지배하는 것은 약간의 패배의식이고,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다"고 했고, 역시 동문인 남선 불교방송 사회문화부장은 "투자가 적고, 특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 주무기가 없다는 것이 동국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2004년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교육학 학위가능)	2년	■ 주간 30명 ■ 야간 30명 ■ 통신 80명		
	4년	■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학위수여 가능)	2년	■ 통신 80명 ■ 주간 30명 ■ 야간 30명		
	4년	■ 주간 30명 ■ 야간 30명		
포교사과정	2년	■ 야간 30명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본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남경중의대학 30명 합격
2002. 2. 제 11회 졸업생 배출, 남경중의대학 37명 합격
2003. 9. 남경 중의대학 41명 합격

· 전과 중국학위 가능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한의대), 효장 사범대학 입학 및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12월 8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7 FAX 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삼 화 불 교 대 학**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한의과대학)

2004년 본과생(학사) ■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의과대학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 여권용사진 10매, 주민등록등본
사 범 대	3학년 편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 3월 예정(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중국 중의사 시험 2002년부터 개방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 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전원 입소 ▶ 군입대 연기가능(6년)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12월 8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주소 : 中國 南京市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팩스 : 25-632-2539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8 팩스 : 02-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남경한의대 입학가능, 남경사범대 입학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불 교 **성지고등불교학교**



광동중 · 고 체육관 기공식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은 11월 26일 경기도 광동중 · 고등학교에서 체육관 신축 기공식을 거행한다.



수해사찰 · 주민에 성금 전달

경기 양평군사암연합회장 화암 스님은 11월 12일 양평군 지역 수해 피해 사찰과 주민들에게 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구미 장애인복지관장 취임

구미 장덕사 주지 갈수 스님은 11월 15일 천태종복지재단 산하 시설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임 관장으로 취임했다.



약사여래불 점안 법회 봉행

무량종 서울종무원장 법홍 스님은 11월 15일 서울 강북 세운사 대웅전에서 약사여래불 점안 및 서울종무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일주문



사보 · 회보 담당자 연수교육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사찰과 단체 사보 · 회보 담당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제39회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불교학회장 권기종 동국대 교수는 11월 29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39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문명대 교수 우현학술상 수상

동국대 문명대 교수가 최근 미술사학자인 우현(又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회 우현학술상 대상에 선정됐다.



'요가란 무엇인가' 주제 세미나

인도철학회장 김선근 동국대 교수는 11월 28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요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17회 학술발표대회를 갖는다.



동대부고에서 특강 열어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박광서 서강대 교수는 11월 27일 동대부고 법당에서 '현대인에게 왜 불교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여성불자 108인 선정 법회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원장은 11월 26일 오후 5시 서울 강남 봉은문화센터에서 창립3주년 및 여성불자 108인 선정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솟대문학 창간 기념법회

솟대문학 방귀희 대표는 11월 27일 오전 11시 여의도 63빌딩 3층 체리홀에서 '2003 솟대문학상 가족모임'을 개최한다. (02)3473-4680

"법인화 · 전문가 양성에 주력"

불교상담개발원 2대 원장에 선출된 정덕 스님



"불교계 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해 불교상담개발원을 사단법인으로 만들겠습니다."

11월 18일 열린 불교상담개발원(이사장 도영)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2대 원장에 선출된 정덕 스님(자비의 전화 회장 · 사진)은 "불교상담개발원이 사단법인이 됨으로써 사회공익성을 인정받고 후원자 유치 확대와 외부 연계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우선 보건복지부 법인설립 인가검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이 없어 설립인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다음달까지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 서류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총회를 연후 설립허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특히 스님은 불교상담개발원이 내년도에는 전문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불교계 상담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박한 사회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에게 불교계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상담전문인력 확충에 힘쓸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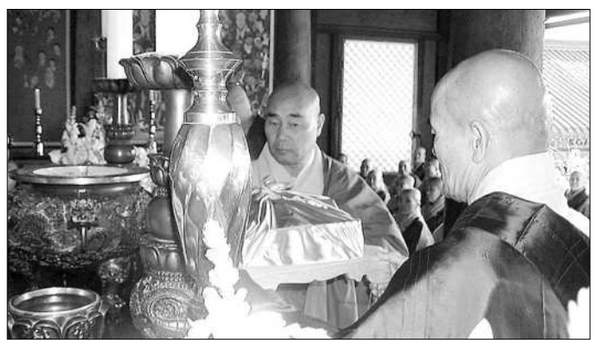
스님은 이 같은 맥락에서 불교계 상담인력 양성 시설이 부족하다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불교상담대학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학원 설립을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내년 1월 중에 스님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3월이나 6월에는 사찰상담실 설치 및 운영방법, 모범사례 등을 소개하는 사찰상담실 운영 지침서를 발간해 지역 사찰상담을 활성화 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다.

대학원 설립으로 상담의 질 높힐 계획

스님은 "불교상담사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상담원 양성교육과 소그룹교육 등을 통합해 효율성 높은 교육제도를 만들고 이를 수료하는 사람에게 불교상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이 원담 스님 법어집을 부처님전에 올리고 있다.

원담 스님 법어집 '덕숭산 법향' 봉정식

수덕사 대웅전서, 사부대중 400여명 참석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의 법어집 '덕숭산 법향' 봉정식이 19일 오전 수덕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관련기사 24 · 25면

이날 봉정식에는 원로의원 천운스님(대흥사)과 혜정스님(법주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종회의장 지하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 성관(총무부장) 현고(기획실장)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스님, 세민(해인사) 종상(불국사) 지명(법주사) 현문(통도사)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 도법(실상사 주지) 수경(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지홍(조계사 주지) 스님과, 종광 장곡 향적 원담 무자 지만 스님 등 종회의원을 비롯해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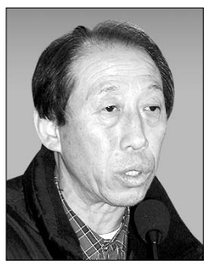
원담스님의 상좌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생전에 스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종도들이 받들고 탁마에 힘쓰길 바라는 마음에서 법어집을 출간하게 됐다"며 "문자에 걸려 스님의 고준(高峻)한 경지를 함부로 논하는 어리석음을 짓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덕사 주지 법정스님은 인사말에서 "방장스님께서 20년간 법문하신 내용을 모아서 오늘 법어집을 올리게 됐다"며 "법어집으로 모든 이가 발심해 성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덕사= 한명우 기자

"노동 인권 보장 위해 더 열심히 뛸 것"

인권상 수상 단병호 민노총위원장



"최근 우리사회 각 분야가 꾸준히 민주화의 길을 걷는 가운데서도 우리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과 인권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주최 쪽의 결정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11월 20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열린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14주년 기념식 및 제9회 인권상 시상식에서 인권상을 수상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55 · 사진)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노동운동가들에게 주는 격려라고 받아들고 싶다"고 말했다.

단 위원장은 "노동운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노동배제정책은 1970년 전태일 열사 이후 노동자 50여명이 자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노무현 정권 역시 출범 8개월 여 만에 무려 190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지만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주들은 단 한 명도 구속하지 않았다"고 법 집행의 형평성 상실을 지적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가압류를 동원한 사용자측의 노동탄압때문에 분신자살하는 참극에 대해 단 위원장은 "노동자 생존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격려이자 채찍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바람이 묻어났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청송1감호소 방문 교화공연



대한불교법인종(총무원장 만오)은 11월 5일 청송1감호소를 방문, 교화공연을 펼쳤다. 교육원장 일해, 국제부장 현지 스님, 작곡가 이천수 씨 등 사부대중 40여 명이 동참한 이날 공연에서 만오 스님은 "부처님의 가피력을 얻어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고종 경기북부 교양대 개설

태고종 경기북부교구종무원(원장 설운)은 11월 13일 경기북부교양대학을 개설했다. 교양대학은 불교전통의식반과 기초교리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한다. 의식반은 사물다루는 법, 제공의식을, 기초교리반은 불교기초교리와 금강경 등을 강의한다. (031)864-0033



동국학원 수계 대법회 봉행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11월 20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중강당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지관 스님을 계사로 '2003 동국학원 초 · 중 · 고등학생 및 학부모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학생, 학부모 872명이 계첩을 받았다.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 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몸이 바뀐다!

프라나 호흡과 동작을 통해 기혈의 순환을 원활이 하여 몸속의 죽은피를 밖으로 몰아내고 프라나의 생기로 가득 채워 젊음의 활력을 찾게한다.

▶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나로부터 비롯된 개인의식의 경계가 무너져 의식의폭이 넓어지고 집중력, 이해력, 관찰력이 증대되어 사물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이 생긴다.

▶ **가정이 화목해 진다.**

로드프라나를 배우면 몸이 마음임을 알게되어 아내와 남편과 자식에 대해 한몸 의식이 더욱 강해져 사랑의 강도가 높아진다.

▶ **지금까지 길을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 선밀공, 프라나호흡, 프라나동작 36장, 관조,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 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능력)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듦)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 **다른 차원의 세계(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 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문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 격** : 24세 - 34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건강 100% 적중

냄새를 완전 제거하여 놀라운 효능을 갖춘 식품이면서
"여성생활에도 으뜸" 이 되고 있는 **토종마늘환(丸)**

마늘이 좋은걸 알면서 냄새때문에 망설인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토종마늘은 예로부터 '일해백리'의 식물로 불려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백가지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때문인데, 이 알리신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활성화 시켜 줍니다. 마늘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은 몸에 흡수된 당질을 에너지로 바꾸어줌으로써 피로감을 없애주고 온몸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정력,간기능,시력을 높여주고 손발냉증, 변비, 요통이 사라지며 강한 항암작용 및 다이어트, 미백효과, 중풍, 신경통, 당뇨병 등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 마늘의 주요성분인 알리신에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장 · 장정 · 식욕부진 · 정장 · 변비 · 보온 · 향균 · 구충 · 정신안정 · 이뇨 · 혈압강화 · 각기 · 신경통 · 신경마비 등에 효험이 있다. - 이시진의 본초강목 -

100% 토종마늘은 무엇이 다른가?

▷ 건강식 또는 양념으로 써온 식물로 다양한 약리 작용을 한다.
▷ 장(腸)에서 흡수가 잘되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한다.
▷ 세포내 침투가 잘되고 성기능을 강화 시킨다. 혈애순환이 잘된다.
▷ 항암작용을 한다. 성인병 예방과 정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
▷ 고혈압은 낮추고 저혈압은 정상치로 끌어올린다.
▷ 비타민C와 섭취하면 당뇨에 효과가 있다.
▷ 인체내 지방을 분해해 비만 예방에 특효가 있다.
▷ 만성 감염에 효험이 있다.
▷ 비만, 심장병 예방에 특효.
▷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 표준소비자가 특별분할 : 42,000원×4개월= 168,000원(6개월분)
◎ 공주양잠농업협동조합 직거래 사업단 02)755-9821. 080-200-4545

북한산 관통터널 공사 중단과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과 시공사들이 '손뗄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 한 관계자는 "터널공사구간 외자출자를 맡은 일본 은행(UFJ, United Finance Japan)이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에 이달 말까지 공사 재개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월말까지 공사계속여부 통보 해달라"
외국계투자은행·시공사, 정부에 공문

"북한산 공사 포기…" "압박 아니냐"

외자유치 불투명 등 이유, 환경단체 "국면 전환용" 의심

또한 "시공사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측도 이달 말까지 정부의 공사 재개 방침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액 급증 등으로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건교부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경우 올해 말이면 자기 자본 대부분을 사용해 내년부터는 은행단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공사 중단 및 사업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외국계 투자은행 또한 투자 유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UFJ는 아일랜드계 은행의 일본지점을 포함, 일본 · 독일 및 벨기에 등 6개 은행들로 외화출자단을 구성, 북한산관통도로에 대한 외화대출을 준 비중이다.

이를두고 불교환경단체등은 대정부압박을 통해 공사재개를 앞당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정부가 올해 12월 말까지 공론조사를 통해 노선을 결정짓겠다는 방침과 궤를 같이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공사 재개를 노린 시공사 및 투자단들의 대정부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립공원 보존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무시한 채 경제논리로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또한 비판받아야 한다"며 "내년이면 북한산 문제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종교별 패널토의에서 법륜스님이 발제를 하고 있다.

"평화위해 종교인들 나서야"

17~18일 국제종교평화회의 열려

"대북 문제는 복잡하다. 어떤 사람은 북한을 도와주면 다시 총알이 돼 돌아온다며 지원을 반대한다. 반면 난민들을 도와주면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북한이 싫어한다. 이런 경우 '생명'을 중심에 놓고 접근하면 문제가 분명해 진다."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은 11월 17~18일 서울 올림피아 호텔에서 열린 국제종교평화회의 종교별 패널토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사심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종교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스님은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핵보유를 문제 삼아 선제공격해서는 안된다 △북한 내 민중들에게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해야한다 △북한 민중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등의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BPF(Buddhist Peace Fellowship) 의장 로버트 라이온도 "현재 세계는 끊임없는 전쟁과 환경파괴 속에 있다"며 "이런 때 종교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로 평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대북 추가 지원 즉시 강화 △북한 핵무기 개발 즉각 중단 및 IAEA 사찰 수용 △에너지 북한 공급 △재래식 무기 감축 △평화조약 체결 등을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할머니! 장기자랑 예쁘게 봐주세요

숙불회, 나눔의집 할머니들과 1박2일

11월 15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작은 삶의 터전 나눔의 집. 창립38주년을 맞아 동문들만의 잔치인 창립제 대신 나눔의 집 방문을 선택한 숙명여대 불교학생회(이하 숙불회) 10여명의 학생들은 할머니들의 증언과 사진 및 그림자료들을 모아놓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둘러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실들을 정확히 알고자 창립제 대신 나눔의 집 방문을 택했습니다." 숙불회 회원들은 이효정(01학번) 회장의 말에 다시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들의 숙소로 발길을 돌렸다.

"어여 와. 어여. 여기 좀 주물러 줘. 아퍼." 박두리 할머니(81)의 투정(?)에 학생들의 얼굴이 밝아진다. 할머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쁘다.

"할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조소영;99학번)

"할머니. 저희 장기자랑도 준비했어요. (웃음) 밀양아리랑하고 군밤타령이랑 몇 곡이요. 연습 많이 못했지만 예쁘게 봐주셔야 해요?" 전채연(03학번) 학생의 말에 한도순 할머니(83)가 웃으며 말한다. "그럼 그럼. 뭘 해도 다 예뻐. 그런 걱정마."

할머니들과 둘러앉아 고구마를 후후 불어가며 따뜻한 정을 쌓은 학생들. 할머니들의 잠자리를 본 뒤에야 법당에 모여 앉은 학생들은 주제명상과 108배 정진, 법우찬탄, 발원문 작성 등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방문일정을 마무리 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광화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법회에 참석하기로 약속하면서.

광주=김은경 기자


◇숙불회 학생들이 나눔의집 할머니들과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소외된 이웃위한 김장보시 '훈훈'

불교계 복지관들

불교계 복지시설들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지역 내 무의탁 노인과 소년 · 소녀 가장, 장애인, 노숙자 등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김장김치를 담고 이를 나눠주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금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구자훈)은 11월 27~28일 자원봉사자와 군장병들이 함께한 가운데 '김장김치 담그기 축제'를 연다. (02)804-4058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적산)은 12월 4~5일 김장담기 행사를 마련한다. (02)852-0525 수유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혜)도 12월 초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라는 김장담기 행사를 갖는다.(02)903-6940

이번 김장담그기 행사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다. 11월 26~27일 열리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 '무의탁어르신 김장나누기' 행사에는 주부, 군장병, LG화재, 벽산ENG 등의 자원봉사단이 참여해 한파를 녹이는 따뜻한 사랑을 전한다. (02)385-1351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이 12월 5일 마련하는 김장담기 행사에도 CJ홈쇼핑 자원봉사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02)466-6242

이동혁 기자

첫 국제불교영화제 열려
20~23일 미국 LA서

제1회 국제불교영화제가(1st International Buddhist Flim Festival)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로스 앤 젤 레 스 시 립 예 술 박 물 관(LACMA)에서 열렸다.

총 8편의 개봉작이 선보인 이번 영화제는 부탄 최초의 장편영화 '여행 자 와 마 법 사(Travellers & Magicians)'로 시작해 23일 독일 베르너 헤르조그 감독의 '시간의 굴레(Wheel of the Time)'로 막을 내렸다.

한국영화로는 유일하게 '달마야 놀자(Hi! Dharma)'가 영화제 둘째날인 21일 상영됐다.

한상희 기자

불교TV, 이번엔 인사문제 '시끌'

노조, 조재룡 방송본부장 임명에 이의

불교TV가 운영난에 이어 또다시 인사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리는 내홍을 겪고 있다.

불교TV는 지난 11월 13일 조재룡(66) 씨를 방송본부장에 임명했다. 이에 노조 측은 17일 "현 본부장은 정관상 정년 나이를 넘겨 정규직 입사가 불가능해 계약직으로 입사했다"며 "이는 사전에 공개채용이나 인사위원회 등의 방법을 거치지 않은 끼워 맞추기식 인사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조 본부장은 영풍건설, 영풍산업 등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현재 회사에 필요한 경영능력을 갖춘 검증된 인물"이라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도 정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교TV의 정관 33조에는 방송본부장이 해당하는 일반직 1급 이상의 직원일 경우 만 61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다.

한상희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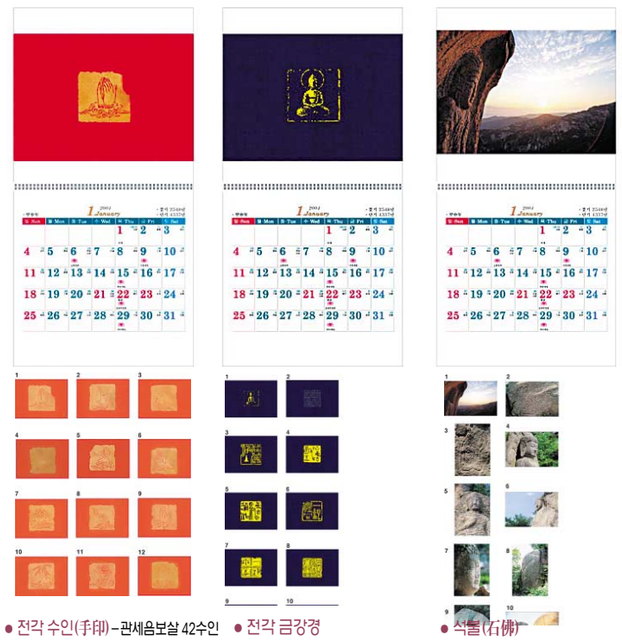

◇김영이 씨의 '수월관세음보살수불'.

전승공예대전 국무총리상에
김영이 작 '수월관세음보살수불'

제28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에 홍석현씨의 '사인검'이, 국무총리상에 김영이 씨의 '수월관세음보살수불(사진)'이 선정됐다. 한국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는 11월20일 수상자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송인정 씨의 '관음42수주병풍'과 이연욱 씨의 '아미타삼천불황금보탑도', 이정아 씨의 '천계'가 장려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조병현 씨의 '불감', 최현규 씨의 '15합 발우', 김미숙 씨의 '금니수월관음도', 유상선 씨의 '수월관음도' 등이 입선하는 등 불교소재 작품 다수가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시상식은 12월 5일 오후 3시에 서울 삼성동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열리며, 수상작들은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시된다. (02)3453-1685

김주일기자

2004년을 준비하는 불자들의 현명한 선택...

불자들의 필수품
2004년 불교 다이어리북 출시!!

향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듯, 불교 다이어리북에서는 불교의 지혜가 솔솔묻어 나옵니다.
● 전각 수인(手印) - 관세음보살 42수인
▶ 규격 : 310mm × 310mm 13매
▶ 지질 : 스노우화이트지
▶ 상호란 : 31cm × 7cm
▶ 사찰 및 단체명 무료 인쇄
● 전각 금강경
▶ 규격 : 310mm × 310mm 13매
▶ 지질 : 스노우화이트지
▶ 상호란 : 31cm × 7cm
▶ 사찰 및 단체명 무료 인쇄
● 석불(石佛)
▶ 규격 : 310mm × 310mm 13매
▶ 지질 : 스노우화이트지
▶ 상호란 : 31cm × 7cm
▶ 사찰 및 단체명 무료 인쇄
● 2004년 불교 다이어리 북
▶ 색상 : 곤색, 자주, 회색
▶ 단체명 고급인쇄 -100부 이상
▶ 가격 : 각권 7,000원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 주문전화 :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참선은 아무나 하나 ♪♬
禪
참 선 교 육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교육」 책은 재미있으며 깊이가 있고 바른 신심을 일으켜 바른 발심 바른 참선을 하는데 길잡이가 될것입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참선의 목적), 참선의 종류(범부선- 참선과 인과 법,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참선의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참선과 채식, 육식-참선의 적!, 선인체 상식), 참선할때 마음가짐, 참선전에 해야할 일, 참선할때 방귀를 참으면 어떻게 되나요, 왜 한철 90일 정진인가? 참선하면 얼굴이 바뀌는 이유? 인체 세포가 바뀌는 기간, 참선의 장소(토굴장소는 어디가 좋은가?, 토굴생활 하는 법) 선사와의 백문백답(진제선사와 백문백답)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全提와 單提, 화두,생각,망상, 선어록(禪語錄), 禪법문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괴, 정념즉괴,임제의 법로, 선문답의 공방, 禪師 법문, 근일 禪師 법문, 선지식을 찾아라, 승당에 내려가 일깨워 주는 법, 실제 단련법을 제시함, 교묘하게 전환하라, 관문을 부수고 눈을 열어주어야 한다, 도 닦는 것과 외부의 조건은 어떤 관계인가?, 근기란 무엇인가?, 도에 쉽고 어려움이 있는가?, 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지난날의 업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참선은 아무나 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조사어록에 나오는 복, 참선은 불교도 초월하는 것이다, 참선과 주파수, 기본 주파수, 편안하게 해주는 주파수, 수면과 주파수, 참선의 다섯가지 믿음, 화두참선과 염불수행, 왜 정진력을 길러야 하는가, 이십 대 3년 정진을 삼십 대 10년과 안바꾼다, 발심 수좌의 분류, 魔의 원인, 잘못 알고있는 魔, 재미있게 설명한 魔, 원담선사와 백문백답, 정일선사와 백문백답, 지리산영명선사와의 백문백답]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 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스님 일대기 (415쪽)
3권 교정중 곧 발간 예정 (인도사 1조~28조, 중국사 28조~56조, 한국사 57조 태고보우 - 경허, 만공, 전강, 송담선사까지)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사찰내 불교서점이나 영풍,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각권 1만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禪)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 禪 會



◇11월19일 서울 묘각사에서 열린 관음종 제6세 종정 죽산스님 취임법회.



◇총지종은 11월18일 서울 총지사에서 제8대 수성종령 취임법회를 열었다.

"새정신으로 종풍 더욱 확고히"

죽산대종사 관음종 종정 취임

"시방세계(十方世界)가 같은 일승(一乘)이거든 모양 없는 법신이 어찌 둘이런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으니 산은 절로 높고 물 또한 절로 깊도다."

11월 19일 관음종 총본산 서울 묘각사 대불보전을 가득 메운 5백여 사부대중을 향해 제6세 종정의 법좌에 오른 남천 죽산(南天 竹山) 대종사는 이같은 법어를 내렸다.

이날 법회에는 원융종 종정 일공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 원효종 총무원장 무진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미산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덕수스님 등이 참석해 새 종정의 취임을 축하했다.

죽산 스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종도들이 서로 의지하고 함께 나누면 원만하게 풀릴 것"이라며 "베풀고 나누는 행을 자신의 의지처로 삼고 수행정진에 힘써 나가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종정 예하를 정점으로 사부대중이 화합하고 승속 일체를 이루어 21세기 선진종단으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죽산 대종사는 55년 탈해사에서 운암 화상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자운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태허 스님으로부터 보살계를 수지했다. 보덕암, 동학사, 백련암, 성암사 등지에서 33년동안 안거를 성만했으며, 관음종 원로의원, 원로의장 등을 역임했다.

"화합바탕 수행 또 수행하라"

수성대종사 총지종 종령 취임

11월 18일 서울 역삼동 총지사 서원당에서 총지종 제8대 종령 수성 대종사가 창종조 원정 대정사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

수성 대종사는 "종단의 조직과 체제의 외형적 발전에 연연하지 않고, 수행과 실천의 종풍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며 "승단화합 정신을 바탕으로 종도들은 수행하고 또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성 대종사는 "화합의 정신은 불교계 전체에 요구되는 최고의 수행덕목"이라면서, "개인보다 전체를 위해서 서로 힘쓰는 것이 바로 수행이며, 수행자라면 응당 그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공 총지종 통리원장도 "우리 전 종도들은 제2의 창종을 이루겠다는 정신과 마음자세로 종단발전은 물론 한국불교의 발전과 불법홍포를 위하여 중대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8대 종령 수성 대종사는 54년 불교에 귀의한 이래 총지종 창종에서부터 종단의 기틀을 다지는데 헌신해 왔다. 재단법인 총지종 이사 · 감사, 사감원장, 대구 · 경북교구장, 중앙종의회 의장, 종립 동해중학교 이사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종단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뿐만 아니라 대종사는 평소 청정수행과 화합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종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교화자교육이수 8명

진각종, 교화시무 임명

진각종 교화시무(수행과 종무행정을 겸하는 예비스승) 8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진각종은 7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00일간 실시한 제4기 교화자 교육을 이수한 8명의 예비교화자를 11월 13일 교화시무로 임명했다. 이들은 서울 탑주심인당, 대구 희락심인당 등 일선 심인당에 각각 배치됐다.

진각종은 조계종 등 종단의 행자 수계산림에 해당하는 과정의 교화자 교육을 받아야 법계를 인증 받는 스승이 된다.

천태종, 26일 동안거입제

천태종은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해 종단 산하 모든 사찰에서 한달간 동안거 결제에 든다. 천태종의 안거는 전통적인 안거와 달리 여름과 겨울 재가자와 출가자가 함께 1개월 정진으로 이뤄진다. (043)423-7100

총화종 내년예산 96억

총화종 중앙종회(의장 화담)는 11월 19일 남양주 수진사에서 제53차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96억여원의 200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사업계획에는 종단 원찰 건립을 위한 ARS 성금 모금과 의식법전 보급, 현 17개 교구를 15개 지역 31개 교구로 개편하는 조직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여래종 총무원장 법정스님 취임

한국대승불교여래종은 11월 14일 충북 옥천 약사사에서 제8대 총무원장 법정스님의 취임 및 창종 3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여래종 종정 인왕스님을 비롯해 전 총무원장 명안스님 등 7백여명이 참석한 취임법회에서 신임 총무원장 법정스님은 "효율적인 불교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힘쓰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화합종단을 실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관음종 고덕2동 어린이집 개원

관음종 산하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대표이사 홍파)은 서울 강동구로부터 고덕2동어린이집(원장 최경희)을 위탁 받아 11월 14일 개원했다. 이에 따라 서울복지원이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광진구 노유운성어린이집에 이어 두 곳으로 늘었다. 고덕2동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5층 170여평 규모로, 2세 미만 아동 10명, 2세 아동 14명, 3세이상 아동 40명, 방과후 교육 30명 등 94명의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게시판

행사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1월 28~29일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원연수를 실시한다. (02)385-135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인표어린이도서관은 11월 27일 복지관 강당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2003 책사랑잔치'를 연다. (02)852-0525

▲터사랑은 11월 30일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 승일교, 고석정, 월정리 전망대, 노동당사 등을 방문하는 답사여행을 떠난다. 출발시각은 양재역 오전 7시30분, 안국역 오전 8시. (02)725-1284

▲부산불교사회복지관협의회와 대구경북불교사회복지관연합회는 11월 29일 오후 1시 경주 하일라 콘도에서 '불교사회복지기관 1차 연합 워크숍'을 개최한다. (051)868-0951

▲(사)한국불교대원회는 11월 28일 오후 7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대원정사 합창단 발표회를 연다. 찬불가 등 불교 관련 음악이 선보일 이번 발표회에는 가수 이진관 씨 등이 찬조출연 한다. 발표회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02)773-9171

상담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2~5시 복지관 1층 상담실에서 가족 갈등,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고민 상담을 실시한다. (02)466-6242

모집 ▲금강불교대학은 불기 254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불교학과와 교법사 과정이며 원서접수는 11월 20일~2004년 2월 16일. 제출서류는 불교학과의 경우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사진 4매이며 교법사 과정은 지원서 1부, 사진 3매. (02)576-6401

구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소쩍새마을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 2급 이상. 마감 11월 30일. (033)762-9870

이전 ▲원융종 총무원은 11월 28일 서울 구로2동 704-23번지로 총무원 사무실을 이전한다. (02)853-0531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태고종 총무원사 내년3월 착공

청사 설계 진행 · 건립기금조성 박차

태고종 총무원이 서울 종로구 사간동 시대를 연다.

태고종은 내년 3월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륜사에 총무원 청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에 따라 설계작업에 이미 들어갔고,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기금 조성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총무원에 접수된 청사 건립 기금은 총 4억여원. 총무원장 운산스님이 2억을 약정, 1억4천5백만원을 접수했고, 부원장 혜공스님(대구 관암사)이 1억원, 강원교구 종무원 3천만원, 충북교구 종무원 3천만원 등 성금을 접수하는 종도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원로의원 혜초스님 1억원, 선암사 주지 지허스님 1억원, 강원종무원장 1억원 등 약정된 기금을 포함하면 7억여원에 달한다.

태고종은 올해 안으로 10억원의 성금을 모금한다는 1차 목표를 세우고, 종도들을 대상으로 권선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모금된 성금 가운데 일부는 청사 건립 외에도 동방대학원대학 개교를 위해 사용된다.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종단의 존폐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다는 각오로 불사에 동참하는 종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불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종단이 한국불교와 사회를 선도하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02)382-7361~3 박봉영 기자

종단소식

금강대생 구인사 참배

천태종 종립 금강대 재학생 49명은 11월 21~22일 단양 구인사에서 스님들의 구도행을 체험하는 행사를 열었다. 지관실수 수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방문에서 학생들은 지관 실수와 조사전 참배했으며,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친견했다.

국제 청소년지도자 연수

진각종 비로자나청소년협의회(회장 무외, VIYA)는 12월 14~28일 인도, 네팔 등지에서 VIYA 국제 청소년지도자 연수를 실시한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인도 불교성지 순례와 산악트레킹(도보로 산악지형을 이동하는 프로그램), 네팔문화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에는 VIYA 청소년지도자를 비롯해 자성학교 교사, 위덕대 불교학과 학생, 전국청년회 회원, 종립학교 심학교사(교법사) 등 16명이 참여한다.

본원종 양평 서림사 낙성

본원종 양평 서림사(조실 무구)는 11월 30일 오전 9시 주법당인 수광전과 3층 규모의 설선당의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수광전에는 과천 유덕사에 있는 석가모니 삼존불을 이운해 이날 점안하며,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만든 아미타 비취옥불도 함께 봉안한다. 서림사는 향후 사단법인 불교아미타염불선원을 설립, 재가불자 안거와 교육 등 교육 · 수행 도량으로 자리잡아 나갈 계획이다. (031)774-3538

봉 대한민국 국운 융성기원 국제 고승 백고좌 대법회 행

■ 일시 : 불기2547년(2003)년 12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 청주시 사직동 시민회관

인 사 말 씀

귀의 삼보하옵고
본회는 각 종단의 대덕 큰스님과 전국의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한국불교를 세계각국에 홍포하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여, 불교문화교류를 통한 국제간의 친선은 물론 학술적 공동연구를 통하여 불법과 국위를 높혀 왔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국제간의 교류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하여 퇴색해가는 호국불교사상을 고취시키고, 국운융성과 남북평화통일, 나아가서 인류평화운동에 기여코자 서원하고 금번 「대한민국 국운융성기원 국제 고승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코자 하오니 전국의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더욱 성원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7(2003)년 12월 일

봉행준비위원회 위원장 석 동 암 합장

행 사 내 용

제 1부 대한민국 국운 융성과 남북통일을 위한 기원제
제 2부 공인법위증서 봉정식
제 3부 고승 백고좌 신도수계식
제 4부 공인 대법사 품계 수여식
제 5부 불자연예인 특별축하공연

※ 법계고시참가요령

⊙ 법계고시에 참여하실 스님과 대법사는 동참 승락서와 법계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12월 15일까지 고시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함.
※구체적인 내용은 봉행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전화 (052)257-7816 / 227-7816
팩스 (052)268-7813

▣ 법계 심사위원 (무순)
인왕 의천 정암 혜철 문봉 천강 청하 대보 학산 송산 청원 도암 도기 원덕 법성 지산 동원 혜원 청호 법일 혜종

▣ 봉행위원 (접수순)
성혜 인왕 정암 의천 대보 가산 정철 학산 수선 청하 지산 성존 선흠 혜산 보문 성림 법행 경덕 무상 지운 일토 우초 원천 일견 가성 외 각종단 스님

● 주관 : 국제 고승 백고좌 대법회 봉행위원회 ● 후원 : 사단법인 미륵종교협의회, 사단법인 세계종교 평화협의회, 불교방송, 불교TV, 교계언론기관
● 주최 : 사단법인 국제불교승가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716-1」 ● 특별후원 : 미륵대도 금강연화종(대표전화 032)833-1378)

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s.co.kr FM 94.5 MHz
포항·안동 중계소 오는 11월 개국
중계소 설립 후원전화 060-701-0408 (한 통화당 2,000원)

BBS 춘천불교방송 FM 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몸·마음 하나되는 나만의 세상

고3 수험생들의 '내면의 세계를 찾아 떠나는 여행'







파라미타 주최 수련회현장

숨을 내쉬어라. 초조함과 두려움을 긴 숨과 함께 내뱉으며 너희들의 세상을 활짝 열어라. 새에게는 새의 하늘이 있고, 두더지에게는 두더지의 땅굴이 있으며, 물고기에게는 물고기만의 바다가 있다. 제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너희들을 이제 한 가지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려 한다. 즐겨라. 실컷 웃고 떠들며 열정을 마음껏 발산해라. 그 과정에서 너희들의 목소리를 되찾아라. 조금 높을 수도 때론 갈라질 수도 아니 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괜찮다. 넘어지고 부딪혀서라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어라. 그렇게 참된 나를 찾아라.

"캬악~" "공기가 너무 상쾌해."

하늘을 바라보고 숲과 같이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활기가 넘치는 고3수험생들. 11월 18일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는 내면의 세계를 찾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가 고3수험생 60명을 대상으로 입시경쟁으로 인한 중압감을 떨쳐내고 자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박 3일간의 수련프로그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춤으로 몸풀고 선무도로 건강 다지고

숙소인 낙산유스호스텔에 도착해 짐을 푼 학생들은 4개 모둠(조)로 나눠 팀명과 팀구호 등을 정하기 시작했다. 불사조, 5:5 cross조, 찐따조, 부끄럽조. 팀구성원들의 특성을 반영한 기상천외한 팀들이 속속 탄생됐다. 이어 진행된 이경석 장학사(파라미타 지도의원)의 진로특강. 학생들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2004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의 특징과 예상 경쟁률, 각 대학별 성적 산출 요소 반영 비율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엉덩이가 들썩거리기 시작한다. 첫날의 마지막 일정인 댄스시간.

'딴따딴~ 딴따~ 딴따따따'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자 학생들의 몸놀림이 빨라진다. 여학생들이 학수고대한 라틴댄스 배우기 시간. 일명 땡큐복(화려한 장식의 라틴댄스복을 실제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뜻)을 입고 등장한 임윤희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구호에 학생들이 스텝을 밟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시절 즐겨 추었던 포크댄스과 흡사한 라틴댄스 '메링게'. 팔짱을 끼고 턴, 밀고 당기고,러브 핸들, 트위스트 등 라틴댄스의 기본 동작 하나하나가 학생들의 땀방울로 웃음으로 다시 피어난다.

"너무 재미있어요. 공부생각 안하고 이렇게 실컷 웃으며 놀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박형식(부천고)

다음날, 새벽부터 부산스럽게 움직이던 학생들은 불교의 전통수행법인 선무도를 배우기 위해 강당으로 모여들었다.

"몸을 움직이는 건강체조라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을 가지고 재미있게 논다고 생각하세요. 집중하지 않으면 재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마음은 늘 그곳에 두세요."

학생들은 김형삼 교법사(동대부고)의 지시에 따라 팔다리를 굽히고 어깨를 들었다 놨다하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숨을 들어 마시며 그 안에 마음을 움직이세요."

선무도를 배운 학생들은 바닥에 잠시 앉아 몸과 마음이 함께 논다는 의미를 되새기며 아침을 맞이했다.

다도·참선으로 불안한 마음 다스려

이어 진행된 다도와 참선 프로그램. 학생들은 낙산사 원주스님의 지도에 따라 4~5명씩 그룹별로 앉아 다도의 의미와 다구들의 명칭 · 쓰임새 등을 익혔다.

"야. 차측이 어디에 쓰인댔지?" 최미애(명성여고)

"차호에 있는 찻잎을 뜨는거잖아." 김승현(부천고)

차예절과 행다법 등이 몸에 익지 않아 실수가 많았지만, 제 손으로 끓여먹는 차 맛이 색다르다.

"뭐랄까. 음…. 약간 떫기도 하지만 달기도 하고. 집에서 먹는 맛과 다른 것 같아요."김상원(부천고) 학생의 말에 신성원(부천고) 학생이 훈수를 둔다.

"물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첫잔의 맛은 약간 떫지만 두 번째 잔은 단거래."

머리를 맑게 하고 귀와 눈을 밝게 하고 밥맛을 돋우고 소화를 촉진시켜준다는 차. 학생들은 옛 선인들이 즐겨 마시던 차를 통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참선에 들어갔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두 손을 단전에 모으고 시선을 20cm 앞에 고정시키고. 학생들은 그렇게 20여 분간을 앉아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또한 모든 것을 얻었다.

"처음에는 다리도 저리고 눈이 감긴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왠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임진수(부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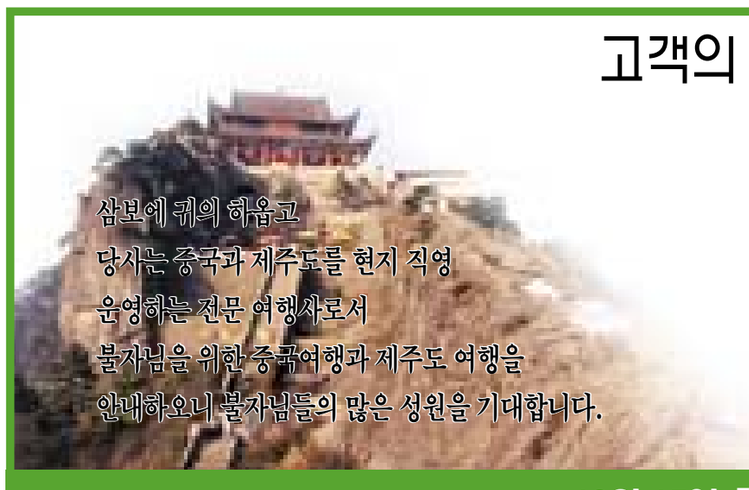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고민이 많았는데, 무엇인가 가닥이 잡힌 느낌이 들어요. 걱정 · 근심 같은 불안한 마음들이 제 안에서 소멸된 기분이거든요."이규현(명성여고)

참선과 다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린 학생들은 단풍이 진 설악산을 등반하며 새봄을 준비하기 위한 개구리의 동면소리를 들었다. 또 조그만 촛불 하나둘을 모아 칠흑같은 밤을 밝히며 미래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세상의 어떠한 강요나 잣대에도 흔들림 없이, 나만의 하늘 나만의 땅 나만의 바다를 찾기 위한 도약의 시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슴 가득히 꿈을 담은 학생들의 포효는 설악산 줄기를 타고 세상에 내려와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양양=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 (주) 행복만선 Tel.02) 720-8489



〈 중국 4대 불산 성지순례 〉
1. 관음보살 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5만원
2. 지장보살 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보살 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79만원
4. 문수보살 도량 - 북경 / 오대산 / 운강석굴 69만원
5. 관음도량 과 지장도량 순례 8일 125만원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

〈 나만의 중국 자유여행 - 항공 + 호텔 〉
1. 금요일에 출발하는 북경 3일 29만원 2. 목요일에 출발하는 북경 4일 34만원
3. 월 · 수 · 금요일에 출발하는 상해 3일 329,000원

〈 국내 - 제주도 사찰순례 〉
1. 산사체험과 역사유적 답사 3일 21만원 2. 마라도와 한라산 등반 3일 25만원
3. 마라도와 우도팔경 3일 27만원
- 제주도 일정은 제주 4대 사찰순례가 포함 되었습니다.

12월 15일 출발 제주도 사찰 순례 3일 – 파격가 185,000원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는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제2, 제3의 북한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와 도로환경포럼이 11월 19일 동국대 다향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민토론회'가 그것이다.



◇토론회에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측이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환경영향평가 입안과정부터 이뤄져야

도로정책 문제점 · 개선방향 토론 요약

●많은 도로는 폭력이다?

도로는 오로지 직선이며, 직선은 효율적인 것이며, 효율성은 미덕인 반면에 곡선은 게으른 것이며, 자동차는 절대적 우선권을 지닌다는 논리가 어느새 우리들에게 내재화 됐다. 이런 직선의 논리 때문에 그나마 일부 남아있는 국립공원의 심장까지 뚫고 들어가겠다는 논리가 비등해지는 것이다.

자본의 효율성은 속도의 빠름을 요구한다. 북한산 관통도로도 결국 자본의 효율성에 기대고 있다. 성(聖)의 공간인 사찰에까지 뻗어나가는 자본주의 야수성은 인간사회에서 성속의 절대적 경계선조차 없애버렸다. '영성(靈性)의 문화'를 '물성(物性)의 문화'가 지배한 것이다.

속도는 타인과 환경에 대한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다. 그러나 '고속'을 향유하는 대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인도의 경제학자 나란디 싱은 자동차를 '정의와 평등의 죽음 위에서만 번창하는 악마의 자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주강현 한국민속연구소장은 "우리의 도로는 너무 많다. 지나침은 문화가 아니라 폭력이다. 문화의 시대, 문화를 선택할 것인가, 폭력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도로에 대한 잘못된 믿음 3가지

도로를 개설하면 교통시간을 단축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이다. 인류 역사상 어떤 교통수단을 개발해도 시간을 단축한 예는 없다. 오히려 길어졌다. 걸어 다닐 때는 도보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해 살았고, 마차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동차를 타고부터는 오히려 한 시간 출퇴근 거리를 마다하지 않게 됐다.

도로를 개설해 교통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믿음이다. 처음 당장에는 빠른 것 같아도 차들은 길이 막힐 때까지 몰려오게 되어 있어 속도는 금방 떨어진다. 지금 도심에서 자동차 속도는 자전거나 마차보다 오히려 더 느리다.

있던 도로를 없애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생각도 잘못된 믿음이다. 성수대교붕괴나 청계고가도로 철거에서 보듯 도로는 만들면 만드는 대로 도로가 막힐 때까지 차를 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차를 몰지 않게 돼 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국토, 인구, 경제규모와 산악이 많은 지형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고속도로를 많이 건설한 나라"라고 지적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등 환경적인 고려와 저감대책의 수립이 부실한 게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산 관통도로다.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획과정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노선이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승인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환경 훼손 저감방안이나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요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과 허위로 얼룩진 배경에는 평가 협의기준을 위반해도 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제도적 결함이 있다. 위반할 경우 협의기준 초과부과금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적제재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허위 · 부실 작성은 공공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져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부실평가서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체계가 없는 것도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도로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관련 기관들의 환경에 대한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건교부와 도로공사가 관계하는 도로 사업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해 도로에 관련된 일체의 행정과 집행을 국민들이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건교부를 비롯한 산하 연구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발주자, 평가서 대행자, 시공자 등에 대해 반드시 처벌과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또 도로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설계와 시공에서도 기존의 감리와는 다른 차원의 환경검토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틀과 제도도 필요하다.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들고 오염이 적도록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도보, 자전거, 발자동차, 에너지 절약형 소형 자동차를 위주로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지역사회간에는 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수재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공사 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공사 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도로건설정보 국민에 모두 공개해야
평가기준 위반 땐 발주 · 시공자 등 처벌
감리와 별도로 설계 · 시공 모니터링을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이성훈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
전임지도자

불교,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문화포교로 자리매김
투철한 사명감과 프로의식 가져야

얼마 전 사석에서 모 불자 연예인이 본인의 평생 화두는 '불교, 축구, 해병대'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농으로만 들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참으로 명쾌한 신념이란 생각이 들어 새삼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아주 평범한 학생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이며 불자였던 내가 불교레크리에이션 강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는 예상치 못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불자 집안에서 태어나 모태 신앙으로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었지만 신심은 그리 신심이 깊지 못했던 나에게 대학 시절 마주친 커다란 시련의 고통이 나를 부처님 곁으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은 아이러니를 뛰어넘어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시작된 신행 생활은 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어린이법회교사, 청소년법회간사, 청년회장, 군종병 등의 봉사활동 내지는 종교활동의 차원을 넘어 교계방송 진행자,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 지도자, 대학강사로 이어지며 현재까지 생업으로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포교가 단순히 자원봉사자의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명감과 프로의식을 가진 불교레크리에이션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주어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와 힘을 준 단체가 바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이다. 레크리에이션이란 분야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60년으로 약 40여 년간의 역사가 있었으나 그동안 거의 타 종교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해온 이 분야가 미래 포교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 할 것을 확신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1985년에 창립하여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전하기 위하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활동하고 있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그동안 수 천명의 법회지도자와 200여명의 전문지도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어느 불자가 묻는다 '불교와 레크리에이션이 무슨 관계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신(身), 구(口), 의(意)로 남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을 잘 활용하면 남을 기쁘고 즐겁게 또한 편안하게 해주어 서로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불교레크리에이션의 참모습이라고 말해본다. 그리고 서양에서 온 레크리에이션이란 말의 뜻도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부처님 말씀에 담겨 있으니 불교공부 열심히 하시면 알게 되신다고!' 나만의 괴변일지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정보화, 기계화, 개인화로 대변되는 21세기를 살아가며 이제 우리나라에도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여가대중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람 냄새를 맡으며 인간적 만남과 편안함 그리고 즐거움을 함께 하는 가운데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포교야말로 시대 흐름에 꼭 맞는 최첨단 포교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제 불교계에서도 포교원과 중앙신도회 교육팀을 시작으로 불교레크리에이션이 단순한 여흥이나 놀이가 아닌 하나의 학문과 문화포교의 분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으로는 교계 대학에도 관련학과의 개설이 논의되는 듯해서 불교레크리에이션을 이생의 숙제로 안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본다.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스포츠 굿데이 2003 굿브랜드 대상 선정

※주의 : 저희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지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47-9114

당뇨 · 혈압 뽕잎으로 잡는다

혈당 · 혈압 낮춰 "선약 중의 선약"
전통재래식추출법 개선특허 받아





옛 어른들이 선약 중의 선약이라고 극찬한 뽕잎을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3대째 가업으로, 원액을 추출하는 전통재래식 추출방법을 보완 · 개선한 과학적인 방법(특허 제0346747호)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발명자 이해승 사장에 따르면 조부와 부친이 만들어 준 뽕잎원액을 먹고 당뇨와 고혈압에서 해방되어 가는 사람을 보고 가업으로 이어가겠다는 사명감으로 연구를 시작했으며, 그늘에서 말린 뽕잎을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은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이나 중국의 본초강목에는 수십군데에서 내용을 다룰 만큼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의보감에는 뽕탕을 마시면 당뇨증상이 억제되고 고혈압 중풍 외에 자양 강장 효과도 있는 등 각종 약초 가운데서도 불로장생의 묘약이라 쓰인다.

뽕잎의 대표적인 성분인 DNJ는 혈당강하 작용이 뛰어난 성분으로 오직 뽕잎에만 다량 존재하고 있고 다른 식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그것도 말린 뽕잎무게의 0.1%로 함유량도 매우 높다. 또한 뽕잎은 직접적으로는 전분의 분해를 늦추어 혈당을 조절하고 간접적으로는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나오도록 촉진한다.

뽕잎은 혈관벽에 붙어 있는 고지혈을 없애주며,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등을 없애주며, 혈압을 낮춰주며 강한 이뇨효과로 혈압을 떨어뜨린다.

농촌진흥청 생체활성화물질 연구팀에 의하면 뽕잎진액은 당뇨병 치료제인 아카보즈 성분보다 혈당 강하효과가 21%, 냉동누에가루보다 22%나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현대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채소라 불리울 만큼 그가치가 농업과학 기술원, 경희대등 여러 곳에서 과학적으로 속속 입증되고 있는 이 뽕잎은 독성이 전혀 없고, 누에를 쳐야 하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매우 안전하며 많이 먹어도 전혀 부작용이 없어 국민 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뽕잎의 성분

- 디옥시노지리마이신(DNJ), 혈당강하성분 (뽕잎에만 다량함유)
- 패고민 : 혈당을 떨어뜨리는 침을 분비, 인슐린 분비 촉진
- 칼리스테진 : 혈당강하 성분
- 루틴 : 뇌 모세혈관 강화, 뇌출혈예방(고혈압에 좋다는 메밀 20배)
- 가비(GABA) : 혈압강하 성분(메일의 48배, 녹차의 40배)
- 모라세닌 : 혈압강하 작용
- 단백질 : 식물 중 최고
- 그외 칼슘, 철분, 아연, 식이섬유 등 100여종 이상의 인체에 유익한 성분

■ 문의 : 02)3446-5102

"100번째 연꽃 드디어 피웠습니다"

경찰불심이 100송이 연꽃으로 피어났다. 11월 19일, 100번째 경찰불교회가 경북 구미에서 창립됐다. 대한민국경찰불교회(이하 대한경불회)가 출범한 지 3년 만이다. 지난 80년대 처음으로 결성됐던 내무부 치안본부 불교회 '연꽃모임'이 이제 전국 100곳의 경찰기관에 다시 연꽃으로 피워진 셈이다. 대한경불회가 빠르게 성장한 원동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 '100번째 불교회, 구미경찰서 불교회' 창립 현장에서 짚어봤다.

구미경찰서 불교회 창립
현장에서 본 경찰 불심



◇'경찰불교 파이팅!' 경북 구미경찰서 불교회 경승 스님들과 회원들이 11월 19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마치고 환하게 웃고 있다.

■'100'이라는 수에서 경찰불자들의 희망을 본다.

구미경찰서 4층 대강당. 이 지역 스님들과 경찰불자 120여 명이 모였다. 김천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 구미시사암연합회장 정우 스님(금강사 주지), 경승실장 대혜 스님(원각사 주지), 구미경찰서 김성배 서장, 경북지방경찰청 불교회 김성조 회장 등이 동참했다.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회장단 소개, 경과보고, 서장 인사말, 구미시장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자광 스님의 법어가 이어졌다.

"드디어 100번째 연꽃을 피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불자들이 큰일을 해냈습니다. 하나가 백이 됐습니다.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러 큰 강을 이루듯이 말입니다."

구미시사암련 회장 정우 스님도 "경찰불자들이 이 세상에 지혜와 자비를 실현하는데 희망을 주었습니다. 경찰불자들과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곧바로 경찰불자들의 화답이 이어졌다. 구미경찰서 불교회 김도태 회장(경위 · 경무과 경무계장)은 "100이라는 숫자에서 경찰불교의 희망을 본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100번째를 위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보살행을 실천하는 경찰보살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기초단위 경찰서 불교회 창립 지원 성과
조직력 · 왕성한 현장활동 앞세워 직장불자회 '모범'
"또다른 100번째 위해 다시 뛰겠다" 다짐

■100송이 연꽃을 피운 '경찰불심'의 정체는….

경찰불교회 발전의 키워드는 '조직력'과 '현장활동'이다. 흥미롭게도 경찰이라는 직업이 주는 이미지 그대로다. 대한경불회는 지난 2001년 4월 출범 이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 기초단위 불교회 창립에 주력해왔으며, 특히 경찰불자들의 체계적인 신행활동을 돕는 프로그램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2002년에 경찰청 내 중앙사무국을 개설하는 한편 경찰법요집 발간, 경찰 출신 25명의 상임포교사들의 미창립 경찰서 법회 지원, 불교회별 등산 및 사찰참배 등의 소모임 활성화, 지역별 연계활동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대한경불회의 노력은 출범 당시 기존 57곳의 불교회를 100곳으로 늘렸다. 이는 현재 경찰청 산하 지방청, 경찰서, 경찰학교 등 255곳 기관의 39.2%에 달하는 수치로, 2001년 4월 대한경불회 출범 때보다 43곳이 증가했다. 이렇게 불교회 수가 늘면서 불교회의 내적인 성장도 눈에 띈다. 교리공부와 법회의 정례화는 기본이고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경찰불교회 김중겸 회장(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번 100호 불교회 결성은 경찰불자들이 그동안 치열하게 실천해온 포교 원력을 재확인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조직운영의 내실화, 교계 신행단체와의 연계활동 등을 통해 경찰불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서산 부석사로 성지순례

농협중앙회 불자회(회장 강명구 · 사진)는 11월 15일 충남 서산 부석사와 인근 사찰로 추계 정기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전남일대 3寺 성지순례

한국전력인불자연합회(회장 이인규 · 사진)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화순 운주사, 해남 대흥사, 내소사 등 전남 일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공형수 · 사진)는 12월 7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서울 세검정 하림각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임원선출 · 직제개편 총회

대구광역시청 유마회(회장 강재형 · 사진)는 12월 11일 대구 삼덕동 관음사에서 신임 임원 선출과 직제 개편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공불련 전상배 총무 미국 유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총무 전상배(사진) 감사원 4국4과 부감사관은 12월 15일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으로 2년간 유학을 떠난다.



16일 문화재교실 개원법회

포항교사불자회(회장 박기백 · 사진)는 11월 16일 포항 죽림사에서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문화재 교실'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우리불자회는요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

'8만원의 참회'. 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지난 2000년 7월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하던 한 승객이 지하철 2호선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읽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편지와 함께 보내온 사연입니다. 우리 법우회원들은 이 때 무한한 환희심을 경험했었습니다. 그간 벌여온 문서포교활동에 작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우회는 1991년 5월 서울 구룡사에서 창립했습니다. 모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1천만 수도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 안전운행을 서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민들의 충직한 발이 되는 것'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됐습니다.

사실 초창기 때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자체 법당이 없어 이 절 저 절을 떠돌며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92년 10월 불자인 김진호 사장의 도움으로 지금의 종합운동장역사에 30여평 가량의 법당을 새로 마련, 번듯한 도량을 갖추고 본격적인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부처님오신날에는 지하철 연등달기 행사와 봄 · 가을 성지순례로 신심을 다지고, 분기별로 왕십리 영아원과 상계동 노인의집으로 보살행을 펼치는 등 꾸준한 활동으로 직장법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1월 15일에는 자체 법요집 '신수봉행(信受奉行)'를 1천부를 제작, 다른 직장 · 직능불자회에 법보시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지하철법우회원들이 11월 15일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내 법당에서 '후불탱화 봉안 및 법요집 <신수봉행> 출판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지하철역 '자비의 말씀' 게시판 큰 성과
법요집 제작, 타직장 · 직능불자회 법보시

지금도 우리 법우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법우회는 참으로 열심히 정진해왔습니다. 매월 두 차례 양평 사나사 주지 화암 스님을 법사로 정기법회를 꾸준히 봉행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99년부터 '풍경소리'와 공동으로 지하철 115개 역사에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설치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문서포교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회원도 지속적으로 늘어 현재는 도반들이 280여 명이 넘습니다.

활동은 신행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00년에는 철도청, 도시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생명과 환경살리기 남산 걷기 대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도 도봉산 입구에서 천축사까지 환경살리기 걷기 대회를 개최, 철도불자들의 단합을 다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법우회가 왕성한 활동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법우회원들의 노력과 조계종 포교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포교원은 불교상식과 정보를 알려줘, 우리 법우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법우회는 더욱 문서 포교에 힘써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도록 정진할 것입니다. 또 음지에서 시민의 발이 되어온 것처럼, 개인적인 정진과 함께 이웃의 행복을 기원하는 지장보살이 되겠습니다. ■심재창 총무

팔공산 호법산신 조성 권선문


〔천룡정사에 조성할 호법산신〕

귀의 삼보하옵고

시방삼세 부처님과 모든 중생들이 한마음으로 기뻐하는 계절에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천룡정사**에서는 팔공산 중턱에 위치한 기도도량이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도량**으로 거듭나고 **국태민안**과 **만중생**의 안녕을 위하여 팔공산 **대석조 산신님** 조성의 **대발원**을 세웠습니다.

산신 신앙은 우리민족 고유의 신앙으로 **불교**에서는 **불법**을 **수호**하고 **대중**들에게 **복록**을 전하는 **호법신장** 중에 한분이십니다.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 이 **천년불사**에 지대하신 원호와 물심양면의 **위법정신**을 바라며 그 **인연공덕**으로 **재수대길 신병쾌차 무병장수**는 물론 발원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 합니다.

국내최대 호상 4m50cm(15尺) 산신 4m 80cm 원석으로 조성
(사찰매장 운영 하실 화주보살모십니다)

- **산신공덕비동참 : 3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751070-52-055271** ● **예금주 : 장기홍**
- **문 의 : 053)986-1355 / 전송 053)986-1356 / 휴대폰 017-533-1356**

※ **동참자는 천년불사 공덕비 세워드림**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59번지

팔공산 **천룡정사** 주지 **지덕** 합장

불교성지순례
15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곳!! 인도
실크로드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특선기획
저렴한 경비로 인도성지를…
인도성지 배낭순례 10일 (불교8대성지) 1,2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12월 5일(129만원), 1월 9일(139만원), 2월 12일
▶조건 : 항공료, 전용버스, 보험료, 숙식비 포함(10명 이상 출발) ▶불포함 : 비자대, 입장료

인도성지순례 10일(불교8대성지) 1,8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12월 7일, 1월 7일, 2월 10일

인도, 네팔성지순례 15일(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0,000원
▶일 정 : 뭄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갠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등 히말라야설산)-카투만두
▶출발일 : 12월 4일, 1월 3일, 2월 7일

인도문화탐방 10일 (인도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1,990,000원
▶일 정 : 델리-자이푸르(라자스탄사막지방 핑크빛 고도)-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카쥬라호(힌두조각 예술의 극치)-알라하바드-바라나시(갠지스강, 녹야원)-델리(국립박물관)
▶출발일 : 1월 6일, 2월 12일

교각·원효·월충 스님의 사상과 저술 등

신라·고려, 중국불교 발전에 큰 영향


◇두지원 교수


◇허친송 교수

11월 14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제6회 천태국제학술회의 참석차 중국 불교학계를 움직이는 두지원(杜繼文), 허진송(何勁松) 중국사회과학원 교수가 방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안의 불교연구실은 중국 불교연구의 중심으로, 두지원 교수는 전 세계종교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중국불교통사>를 집필한 불교사 전문가다.

제6회 천태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두지원·허친송 중국교수에게 듣는다

허진송 교수는 두지원 교수의 제자로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불교문화연구실 실장이다. 두지원, 허진송 두 교수로부터 한국 불교와 중국 불교의 교류 가능성과 중국에서 불교의 위상, 한국 불교와 중국 불교의 관계 등을 들어봤다.

▲현재 재직 중인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불교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는지?

두지원 : 세계종교연구실내에 불교연구실과 불교문화연구실이 있다. 불교연구실에서는 불교의 역사, 철학을 중심으로 중국불교사와 세계불교사를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일본 불교, 불교문헌 등을 연구하고 있다.

허진송 : 불교문화연구실에서는 불교가 중국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주고 있는지 문화사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불교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불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두지원 : 허진송 교수가 <한국불교사 상, 하>를 쓴 장본인이다. 중국에서 한국불교 연구는 한·중 불교관계사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타국불교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공통적 인식은 이들이 중국불교에 어떤 공헌을 했느냐에 있다.

허진송 : 그런 점에서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에 공헌한 바가 많다고 평가된다. 지금까지 불교학자들은 인도 스님들이 중국 불교에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한 연구가 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영향을 준 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 스님이 중국에 영향을 준 사례가 많은지.

허진송 : 지장보살의 영지로 중국 4대 불교 명산 가운데 하나인 지우화산(九華山)의 교각 스님과 신라 무상(無相 680~756) 스님, 원효 스님의 사상이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 무상 스님은 쓰촨성(四川省)에서 선종을 전파했다. 당(唐)대에 북종선(北宗禪)의 정중종을 완성한 스님으로 정중사(淨衆寺)에 머물면서 후학양성에 힘썼고 대자사, 보리사, 영국사 등을 건립,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효 스님은 중국의 화엄사상, 법상종(法相宗)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고려시대 <천태사교의>를 저술한 제관(諦觀 ?~970) 스님은 천태 논소제문(論疏諸文) 등의 자료를 송나라에 전해줘 중국 불교 발전에 기여한 스님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지원 : 아직 고증된 바는 없으나, 중국에서 인도 스님이 썼다고 알려진 전적들 가운데에는 신라시대 스님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전적류들도 있다. 한국 스님들은 중국 불교 사상이 창조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신라 월충(月忠) 스님이 쓴 것으로 알려진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은 이후 티베트어로 번역돼, 티베트 불교에 큰 영향을 줬다. 한국 스님들이 중국에서 쓴 책들이 티베트에 많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태학술대회에 참석하였는데, 중국에서 천태학 연구 동향은?

중화대장경 미흡부분 고려대장경서 보충

한·중학자 교류없어 한국불교 제대로 평가 못해

두지원 : 중국에서 천태학 연구 열기는 매우 높다. 반계명이란 사람이 쓴 <지의전>이란 책이 나온 것을 봐도 알 수 있고, 저장성(浙江省)에서는 천태학에 대한 국제학술회의가 4번 열렸다.

중국 천태종의 개종조인 지의대사는 중국 학자들이 뽑는 전 세계 최고의 사상가 10명에 꼭 포함된다. 불교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철학사적으로도 연구가 활발하다.

타다 코오분(多田孝文, 대정대학) 교수가 지의대사를 작은 석가라고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석가모니 제자들 중 가장 마지막을 꽃피운 스님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에서 불교의 위상은?

허진송 : 중국 헌법 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돼 있으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불교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었다. 개혁이후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여러 종교가 중국사회에 나타나고 있지만 도교·불교 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양쯔강(揚子江) 이남에서는 불교인구가 90%이상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불교도인 만큼 중국 정부의 관심도 각별할것 같다.

두지원 : 중국 정부는 현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을 확대시키면서, 국민을 계도할 수 있는 종교를 불교라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불교를 장려하며, 불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중국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사는 정부 지원에 의한 것이 상당히 많다. 10여 년 전 간행된 200여권 분량의 <중화대장경>역시 중국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허진송 : 참고로 <중화대장경>은 산시성(山西省) 조성사에 있던 금나라 때 대장경을 저본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해인사 <고려대장경>에서 보충했다. 한국 불교는 이렇게 중국 불교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학자들은 한국 불교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두지원 : 한국불교와 중국불교는 고대에 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문헌에 나타나있다. 그리고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현재에도 중국불교협회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이에는 잦은 인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불교학자들 간에 교류가 거의 없어, 한국 불교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진송 : 반면 일본과의 학술교류는 활발하다. 일본 창가학회의 '일본동양철학연구소'나 '중외일보' 같은 일본 내 연구소나 언론사가 주관한 국제학술대회가 해마다 열린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중국과 학술교류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 듯 하다. 간헐적인 교류만이 있을 뿐, 지속적인 학술교류는 이번에 참가한 학술대회 외에는 들어보지 못했다. 동아시아 국가 불교학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한국 불교학계나 불교계에서 만들어주길 바란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탑(3)

정림사탑·미륵사탑

미륵사지석탑은 2002년 10월 이후 해체 보수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일제강점기 때 보수를 위해 발라놓은 시멘트를 제거하고 원형을 최대한 살리려는 작업이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복원될지 우리 모두의 관심사다.

그런데 이 미륵사지석탑은 같은 백제의 탑이라도 정림사지5층석탑과 다른 모습이다. 두 탑 모두 지붕이 얇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정림사탑은 홀쭉하고 미륵사탑은 뚱뚱하다. 이러한 미의식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의문은 정림사탑과 미륵사탑 가운데 과연 어느 탑이 먼저 조성되었는가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일제강점기로 윤무병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정림사탑이 미륵사지탑보다 나중이든 먼저이든 분명한 것은 정림사탑이 보여준 우아한 미의식은 사비시대를 반영한 양식이고, 익산 미륵사지탑의 위엄 있는 미의식은 익산시대를 대표하는 양식이라는 점이다. 사비시대란 부여를 수도로 정한 시기를 말하고, 익산시대란 부여에서 익산으로 천도하기 위해 왕궁, 미륵사 등을 건립한 시기를 말한다. 설사 정림사탑이 미륵사지탑보다 후에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정림사탑에는 사비시대에 유행했던 양식이 짙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비시대에 일본에 영향을 준 탑, 예를 들면 호류지5중목탑





◇정림사지 5층석탑(사진 왼쪽)과 미륵사지석탑. 미륵사지석탑의 위엄있는 형상에는 익산시대를 펼쳐 나가려는 백제인의 의욕이 충만해 있다.

탑 지붕 모두 얇으나 탑신은 홀쭉·뚱뚱

사비시대 우아함·익산시대 위엄 표현

때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가인 고유섭 선생이 제기한 바 있다. 고유섭 선생은 미륵사지탑이 목탑의 구조가 비교적 충실하게 남아있고 정림사탑은 보다 간략화 된 점을 들어 미륵사지탑이 더 오래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미륵사탑은 석탑임에도 불구하고 목탑을 번안한 모습이 역력하게 남아 있다. 서까래를 3단의 계단받침으로 나타내고, 많은 기둥을 설치하며, 창방의 구조를 표현하는 등 목조건축의 가구법을 모방한 것이다.

그런데 고고학자 윤무병 교수는 발굴을 통하여 정림사탑이 정림사가 세워진 6세기 중엽에 세워진 것으로 640년에 세워진 미륵사지탑보다 앞섰다는 반론을 폈다. 붓의 논리에 칼의 해부로 대응한 그러한 논쟁이다. 여기에 문명대 교수는 양식적인 분석으로 윤무병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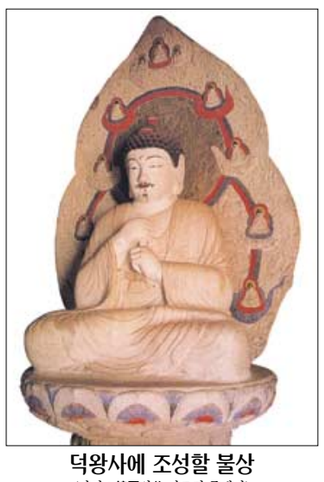
정림사탑이 미륵사지탑보다 나중이든 먼저이든 분명한 것은 정림사탑이 보여준 우아한 미의식은 사비시대를 반영한 양식이고, 익산 미륵사지탑의 위엄 있는 미의식은 익산시대를 대표하는 양식이라는 점이다. 사비시대란 부여를 수도로 정한 시기를 말하고, 익산시대란 부여에서 익산으로 천도하기 위해 왕궁, 미륵사 등을 건립한 시기를 말한다. 설사 정림사탑이 미륵사지탑보다 후에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정림사탑에는 사비시대에 유행했던 양식이 짙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비시대에 일본에 영향을 준 탑, 예를 들면 호류지5중목탑의 몸체가 홀쭉하고 지붕이 얇다는 점에서 그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사비시대 때 정림사탑식의 우아한 양식이 주류를 이루다가 익산시대를 맞이하여 미륵사탑식의 위엄 있는 양식으로 바뀐 것이다. 익산의 새로운 시대에 부흥하여 백제로선 전무후무한 대규모 사찰을 조성하다보니 그 규모에 걸맞은 위용을 갖추기 위해 괴체감이 풍부한 탑을 조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백제 이후에도 이 두 탑은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 탑들의 모범이 된다. 부여 장하리3층석탑, 금골산5층석탑, 비인5층석탑 등은 정림사탑의 양식을 계승하고, 익산 왕궁리5층석탑과 부여 무량사5층석탑 등은 미륵사탑의 양식을 따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조성불사 권선문

비로자나불 대작불사 발원



덕왕사에 조성할 불상
(사진 : 韓國의美 자료집 중에서)

비로자나불 석조불상을 조성하면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권선안내문

귀의 삼보하옵고

소납 산승은 40여년 동안 수행하면서 대작불사와 포교활동에 전념하면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석조불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1000일 기도중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받아서 큰 환희심으로 대작불사에 큰서원을 세워서, 지극한 신심으로 비로자나불 석조불상 조성불사를 시작**하고저 합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다함께 동참하셔서 이번 대작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한마음 크게 내시어 큰 공덕 지으시고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연공덕으로 하시는 일 마다 소원성취 하사옵시고 세세생생에 성불하옵시길 향피워 발원 드리옵니다.

이번 **덕왕사불사**에 동참하여 주시는 선남선녀 사회제위 여러분에게는 고마우신 마음을 **비각에 새겨** 영원히 빛나게 하겠습니다

- **설판불사 (100만원 이상)**
- **가족동참불사 (30만원)**
- **동참불사 (10만원)** 또한 **범종불사**도 함께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참금 계좌번호>
· 농 협 729-02-117074 · 국민은행 622-24-0064-982
· 우체국 700435-02-005878 ※ 예금주 : 유재하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녹남 455-5번지
일출산 **덕 왕 사** 주지 **유용각(만덕)** 합장
전화 054)853-3855, 854-3855 휴대폰 011-522-1237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증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바라춤, 나비춤 등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하신 곳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051-265-5692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448-1144
031-448-1188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387-0361
016-428-6665

대구 비구니 스님 토굴 보살님과 도반삼아 함께 기도하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현재 보살님 혼자 계심
(60 ~ 65세)
016-9646-0578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원주 보살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세 ~ 60세)
051-338-1080
017-540-10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세 ~ 60세)
▷ 경북 영주
054-636-0229

時間易法
사주없이 시간만으로 간편하고 쉽게 인간의 모든 길흉화복을 점 할수 있는 時間易法을 개인지도합니다
016-366-9182

50대 초반 비구 의식 여법히 봉행 명리, 육임 강의 가능 운영이 힘든 포교당이나 비어있는절,보살님 절에 봉사할곳을 찾음
016-448-6612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45~50세)
▷ 경남 김해
055-323-6175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환영)
▷ 인천
011-218-5147

사찰운영이 어렵거나 스님이 안계신 사찰 연락바람
오랜 산속생활, 사주 명리에 득한 40대 비구입니다
053-953-1278

공양주보살님(50대) 부전스님(30대) 모십니다
▷ 서울 서초구 양재동
016-381-131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45세~55세
백운계곡 주변
011-317-0448

가맹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구회(포교단)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가맹점 캠퍼스 설치
▶봉직자 과정 – 원사, 정사, 심우, 원주 자격
▶포교사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포교사
▶법사과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연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법사
011)412-8040

한새올 – 생활법복, 승복
생활법복과 승복전문 제조사 한새올에서 전국대리점 및 취급점을 모집합니다
www.hansaeol.com
051)644-6624
017-544-6020
※홈페이지 제작 및 쇼핑몰 제작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결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기공도법 수련원 모집
◆지도종목 : 진법기공,단전호흡,혈도술,선·법공 전수
(심신 허약, 스트레스, 쳐주 디스크, 만성지병등 건강회복, 기혈도 시술)
진법공도회 법공도협 선원
출장지도및 기시술가-도국종사
031)643-9051
043)877-9051

참선에 관심있는분
불법을 아십니까?
뜻이 있는 불자님께서는 가야산 불법정사에서 더없는 깨달음을 만나보십시오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불법정사
054-931-3166

진흥 단식원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산좋고 물좋은 곳 요양할 수 있음
사찰에서 운영하는 곳
054-874-4670
011-534-4670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九星學
신비의점술
[구성학의 기초]
[구성학의 사주풀이]
저자 직강
011)340-1472

탈종 공고
· 사찰명 : 직영사 · 법명 : 일향
· 주소 : 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716 번지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과 맞지않아 탈종하고자 공고합니다
불기 2547년 11월 26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오적골(갑오징어뼈) 칼슘죽염 마늘환
모려(굴껍질) 칼슘죽염(다이옥신 검사필)
오적골과 모려는 대부분 칼슘성분으로서 칼슘 원료 및 예로부터 불에 태워 민간요법으로 사용하였다
오적골 및 모려를 천일염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대나무에 다져 넣어 태움을 반복한 다음 1300℃이상 고온에서 (용융)녹여내린 고품격 칼슘죽염입니다
※ 칼슘죽염 100g 당 칼슘 2000mg 이상 함유 ※
▶ 특허출원 : 칼슘염 및 그 제조방법 ▶ 칼슘죽염및 그 제조방법 외 1건
청미래 063)581-0590. 011-482-0578
www.cmire.com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실력테스트 해보세요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화상방지용 전통 氣항아리 부황
■ 실용실안출원등록 (03-21028) ■
⊙ 제품 특징 ⊙

⊙화상방지 부황단면도⊙

⊙부황관자 SET⊙
▶ 본제품은 전통항아리 부항의 단점인 화상의 문제점을보완, 화상방지용특수관자로제작 되어 부항시술시화상을입지않고안전함
▶ 氣 제품으로 특수 제작되어 수맥 및 전자파를 차단하고 몸 안에 독소를 흡착시키는 효과가 뛰어나 혈액순환과 내장기능 운동을 활성화 시켜 진정 이완·반사·교정·효과를 극대화 시킴
▶현재 전국 유명 찜질방과 사우나 등에서 성황리 판매 영업중으로 소자본으로 창업하여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유망직종으로 전문샵을 운영할 분 에게는 통증완화 알콜 숙성 방법등 부항요법 무료교육
카히로힐링아카데미 cdhk0514@hanmail.net
031)792-8444. 011-9954-9534

역경학 개인 지도
강사 : 대주 스님
내용 : 특수비법 최단기 완성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02)962-0867. 011-741-0867

易學 지도
오행의 기초에서부터 전문과정까지 알기 쉽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 지도 합니다
사주팔자를 보지 않고도 占事를 정단할 수 있는 신비한 비법도 아울러 전수합니다
배우는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출장지도 가능함
☎ 019)446-4755

눈
안구 건조, 눈물, 충혈, 피로, 눈곱, 침침함, 눈부심, 희미함, 시력 강화 다른 질병관련 시력 저하된 분 경전을 많이 보시는 스님, 불자님

일본특허 : 2790212 식약청 HSK : 2106909099
미국특허 : 5382714 상표출원 : 2002-5278069-80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완제품 수입)
눈밝은세상 (02)2237-8004
전국 대리점모집 – 홈쇼핑 홍보준비중
제품정보:http://eye88.hihome.com (한글) : 눈밝은세상

행자님을 모십니다
도심 불교 포교의 대명사 능인선원, 국녕사, 등룡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춰 함께 정진하실 행자님을 모십니다. 큰 뜻을 품고 자신을 갈고 닦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행자님들을 모셔서 새시대를 열어가는 참된 수행자와 전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참수행에 큰 뜻을 품은 행자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행 자』· 지격 : 고졸이상 40세 미만 · 신체 건강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대한불교조계종 능인선원 | 능인불교대학
▶문의 : 577-5800 교202 • e-mail : neungin@chollian.net
H·P : 011-9887-6351, 011-249-3378, 011-898-4680

전국유일! 매화역수강좌
매화의 맑고 독특한 향처럼 오직 수리학(1~9)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어느분이나 매우 재미나고 쉽게 배울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명리학 수준이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립니다
▶ 개강 일정 : 2003. 12. 5 - 09:00~12:00
주1회 금요일 (1개월 완성)

정통풍수지리
도상에서혈을 찾은후 현지답사를 하고 명당순례로 패철사용법을 완전 터득시켜드리고 양택의 길흉판단,풍수건강법, 풍수인테리어에 중점을 두고 강의합니다
※ 음양택에 대한 [풍수비법 자료집](휴대용) 제공
▶ 개강 일정 : 2003. 12. 5 (주.야간반)
주1회 금요일 (1개월 완성)
장소 : 화암빌딩 402호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한국사회교육원 사암침술학회 02)2267-9136

『현대불교』 신문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합시다. "복도 짓고 포교도 하고... 지금 동참해 주십시오"

■ 구독신청 및 법보시 동참안내
· 구독신청 ☎ 02)737-0090(直) 02)737-8881(代) · 구독료 : 월 5,000원
· 법보시 동참 : 매월 1천원이상 원하시는 금액으로 동참

부처님의 자취가 그리워 떠나는...
佛教聖地
삼보에 귀의 하옵고...
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는 12년을
初心의 마음으로 佛者님과 함께합니다.



혜초여행사
HYECHO ADVENTURE TOURS,LTD.
대표 : 02)733-3900 / 직통 : 02)6263-4848
대구사무소 : 053)567-8848
www.hyecho.com

불자님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친절!과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할인 항공권 ▣ 여권 제작 대행 ▣ 세계 각국 비자 수속 대행업무
※ 스님은 수수료없이 대행하여 드립니다.
◆ 서울 담당자 : 석채언 / 이진영 / 김진석 / 이아름
◆ 대구 담당자 : 신동우, 노유미

고품격 **佛教의 발상지 - 인도 / 네팔**
NO팁! NO옵션! NO쇼핑!
후원 SINGAPORE AIRLINES
성지지역 및 각 도시 최고의 호텔과 한식 전문 요리사가 함께합니다



▣ 불교성지순례 - 8박 9일(아시아나항공) 215만원
델리 직항편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빠르게 다녀오실수 있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 인천-델리(1)-럭나우-스라바스티(1)-룸비니-쿠시나가르(1)-파트나(1)-라지기르-보드가야(1)-바라나시(1)-아그라-델리-인천
● 출발일 : 1/8, 2/5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 불교성지순례 - 12박 13일(싱가폴 항공) 259만원
8대 성지와 불교미술의 보고 아잔타,엘로라 그리고 산치 대탑의 화려함까지 느껴보실 수 있는 불교성지순례의 모든것이 담겨 있습니다
● 일정 : 인천-뭄바이(1)-오랑가바드(1)-보팔(1)-산치-아그라(1)-바라나시(1)-보드가야(1)-라지기르-파트나-쿠시나가르(1)-룸비니-스라바스티(1)-럭나우-델리(1)-인천
● 출발일 : 12/8, 1/2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 불교성지순례 - 10박 11일(싱가폴 항공) 225만원
불교성지순례는 물론 인도 문화유적지의 보고 델리 / 아그라의 여유있는 탐방과 싱가폴 투어까지 이어지는 엄선된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 인천-싱가폴-델리(1)-럭나우-스라바스티(1)-룸비니-쿠시나가르(1)-바이살리-파트나(1)-라지기르(죽림정사)-보드가야(1)-바라나시(녹야원)(1)-아그라(1)-델리-싱가폴(1)-인천
● 출발일 : 12/25(성도재일), 1/26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15명 이상일 경우 1분은 무료로 모십니다.(15 + 1 free)

인도 / 네팔 佛教聖地巡禮
NO팁! NO옵션! NO쇼핑! 단1회
佛教 聖地巡禮만을 위한 싱가폴항공 특별기가 최고의 佛跡地인 부다가야로 모십니다.
싱가폴 항공 전세기 취항!!! 특별가 189만원 (싱가폴 ↔ 부다가야) 후원 SINGAPORE AIRLINES
특별전세기 2차 12월 8일 (8박 9일) - 30명 출발에 현재 22명 접수
● 순례지 : 싱가폴 - 부다가야 - 바라나시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스라바스티 - 럭나우 - 아그라 - 델리 - 싱가폴
● 포함사항 - 개인경비를 제외한 일체 ※ 1차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불교성지 배낭여행 - 108만원 ※ 일정은 불교성지 순례여행과 동일합니다.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인도 성지순례에 따른 교통, 숙박, 가이드
● 불포함사항 : 비자, 관광진흥기금, 식사, 입장료, 싱가폴 지역 관광
*** 승가대학, 신행단체, 학생 단체 대환영!!!
미리 계획하시면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성지 순례가 될 것입니다.

인도 네팔 문화탐방 시리즈
➜ 인도 네팔 하이라이트 13일 ₩2,490,000 ● 출발일 1/18 1/25 2/8 2/15
인도의 대표적 관광지와 네팔을 함께 돌아보는 실속 여행
● 일 정 : 델리→자이푸르→아그라→오차→카주라호→바라나시→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델리

➜ 인도 네팔 일주 17일 ₩2,890,000 ● 출발일 12/11 12/25 1/1 1/8 1/15 1/29 2/12
뭄바이, 엘로라, 아잔타, 산치대탑을 포함한 인도 북부와 네팔을 돌아보는 알찬 여행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보팔/산치→델리→자이푸르→아그라→오차→카주라호→알라하바드→바라나시→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네팔 문화 대탐방 33일 ₩3,950,000 ● 출발일 12/29 단 한차례!!!
신비의 땅 인도 대륙과 히말라야 왕국 네팔을 한바퀴 돌아보는 인도 여행의 진수...
● 일 정 : 캘거타→푸리→코나락→부바네스와르→첸나이(마드라스)→마일라푸람→폰디체리→스리랑강→마두라이→빙갈로르→함피→고아→뭄바이→아잔타/엘로라석굴→보팔(산치대탑)→델리→자이푸르→아그라→잔시→카주라호→알라하바드→바라나시→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인천

인도 호텔팩 시리즈
미리 호텔과 기차예약을 해두고 안전하게 떠납니다. 2명이상 수시출발!!(복대+티셔츠+안내문까지)
인도기본 10일 109만원(주중) ●일정 : 델리-바라나시-아그라-자이푸르-델리
인도핵심 15일 123만원(주중) ●일정 : 델리-자이푸르-아그라-오차-카주라호-바라나시-델리
인도/네팔 22일 139만원 ●일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석굴-아메다바드-우다이푸르-자이푸르-델리-아그라-카쥬라호-바라나시-룸비니-카트만두

겨울 티벳 단체 배낭 8일 133만원
해발 4,000m 겨울 티벳고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티벳 사람들의 문화를 자유롭게 둘러 보실 수 있습니다.
● 출발일 : 12/20, 1/17
● 포함사항 : 국제선, 국내선 티벳여행 허가서, 숙박, 전용차량, 여행자보험, 전문인솔자, 현지가이드
● 불포함 사항 : 관광진흥기금. 현지공항세, 식사비, 입장료, 개인경비

티벳 세미배낭 여행 시리즈
3-4명이 팀을 이루어 광활한 티벳 고원을 짚차로 달립니다.
● 출발일 : 매주 화, 목, 토, 일 (3-4인 수시 출발 가능)
● 상 품 : ❶ 티벳 8일 - 155만원 ❷ 티벳 11일 - 179만원
❸ 티벳 / 네팔 8일 - 169만원 ❹ 티벳 / 네팔 11일 - 179만원
❺ 동부티벳 12일 - 183만원 ❻ 티벳 / 에베레스트 BC / 네팔 16일-197만원
● 포함 사항 : 국제선, 국내선, 티벳여행허가서, 숙박, 전용차량, 여행자보험, 전문인솔자, 현지가이드
● 불포함사항 : 관광진흥기금, 중국비자비, 현지공항세, 식사비, 입장료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문막)	● 위치 : 경기도	● 위치 : 전남
● 법당 : 15평	● 법당 : 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18평	● 요사 : 50평	● 요사 : 40평
● 부지 : 900평	● 부지 : 2000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1억8천	● 가액 : 15억	● 가액 : 1억8천(급)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사찰(임법당) 안내

- 위치 : 노원구 불암산 자락에 자리잡음 도심포교 또는 어린이집, 전세 투자 전망 좋음
- 부지 : 약300평 가량 활용(개인땅 임야임)
- 건물1 : 평수 45평중 법당 15평, 스님방 1, 공양방1, 목욕, 실내화장실, 실외 화장실
- 건물2 : 요사채 40평, 방6개, 목욕, 실내화장실, 실외 화장실
- 무허가 40년된 건물로써 건물 등기 구청에 등기되어 있음 (땅은 타 개인땅임)
- 가액: 건물 1 – 1억5천만원(1년안된건물임) 건물 2 – 1억1천만원(1년6개월된건물)
- 각각 매매도 됨. 가격 절충가.

011-709-765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진주간 소재
- 대지 : 250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1동, 20평 1동
- 가액 : 1억 6천 500만원
- 산신각, 용왕단(자연수)

016)421-9154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 시내 요지
- 부 지 : 150평
- 법 당 : 15평
- 요 사 : 20평
- 가 액 : 1억 3천
- 위치 : 대구,경산 20분거리
- 면 적 : 400평(실사용800평)
- 법 당 : 30평(불사중)
- 요 사 : 30평
- 가 액 : 8천만원(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김천, 상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462-5275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아파트 밀집지역
- 대로변. 주차시설 최고
- 30평. 1층. 도시가스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시설 A급
- 왕쑥뜸시설. 닥트완비. 마당도 있음

011)9360-8253

사찰(급) 안내

- 경북 포항시 죽장면 하옥리
- 대지 200평, 전 500평
- 법당, 요사, 신축건물, 옛 고가터
- 가액 : 1억6천5백만원

054)262-6673

011)9302-0343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신도시, 주엽전철역 150m 앞뒤로 아파트단지
- 평수 : 25평, 방1개, 시설 A급. 3층 건물에 3층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바닥은 전기 온돌 판넬. 철학관으로도 적합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2백만원

019)687-0306.031)919-030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명당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양도가 : 10억

※ 산세좋으며 주차시설 30대 가능

- 위치 : 서울 시내
- 대지 : 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

※ 역사깊은 도심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신행정수도부근
- 특징 : 현시대에 찾기힘든 명당 기도 도량
- 산속이면서 고속도로에서 5분, 국도에서 3분거리에 있슴
- 부도설치 가능
- 부처님 모시는 불사 가능
- 가액 : 12억

011)568-44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IC근교 4km지점
- 종교용지 600평, 임야 16000평
- 법당 40평, 요사채 60평
- 천년 고찰지. 문화재(마애불)있슴
- 복지시설 환영.분할 매매 가능
- 가액 절충 가능

02)394-1870

011)9691-4941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
- 부지 : 764평
- 건물 : 법당 15평(전통목조), 종각3평(전통목조), 요사채
- 불사할수 있도록 조경완비 했음
- 가액 : 3억

011)462-0392

포교당 안내

- 부산 수영구 민락동 4층
- 크기 : 55평, 법당, 방 4개
- 주방1개, 화장실 2개
- 보증금 2500만원, 월 70만원
- 도심속의 포교지
- 광안리 해수욕장, 바다가 한눈에 보임

011)595-1522

051)759-9058

사찰 안내

- 위치 : 신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천평. 밤산 군유지 2만평
- 건물 :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 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봉 안대. 동양화같은 최고 명당 비구니선원 적합
- 가액 : 2억7천만원

011)531-1334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 부 지 : 1500평
- 법 당 : 35평
- 요 사 : 90평
- 가 액 : 10억

※잘지은 사찰임

<절 터>
- 위 치 : 언양 차리
- 부 지 : 1500평
- 가 액 : 1억3천

※ 언양에서 10km 제비집 형국

<토굴>
- 위 치 : 남덕유산
- 부 지 : 약 2,000평
- 인법당 : 50평
- 가 액 : 2억2천

※ 지리산 천왕봉이 안산 홈페이지 사진 참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81-9575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급) 안내

- 위치 : 대구동화사가는 중간(도학동)
- 대지 : 80평
- 건물 : 2층건물(2층 1천소불 모심) 1층(가게) 방 5칸
- 가액 : 2억3천만원(융자1억1천포함)

011)541-9987

053)983-0050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가정1동 493-1 법륜사
- 3층 건물중 3층
- 총 60평, 법당 20평
- 방3개, 욕실 겸 화장실
- 시설및 보증금 포함 3천5백만원
- 15년간 포교했슴. 삼존불 봉안
- 용택자6점 보유. 스님노환으로 인계

032)571-1761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시설 일체. 용왕단
- 가액 : 3억 3천만원(절충가능)

011)226-2880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봉방동
- 실내면적 : 30평
- 법당, 상담실, 공양실, 주차장
- 보증금 20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018)222-793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주택가
- 대지 203평, 현거래시가 260만(5억2천7백만원)
- 사정상 급 평당 195만(3억9천5백만원)
- 법당 30평, 요사채 25평, 5층, 7층 탑
- 백년이상된 고목 1그루
- 포교 적합지
- 화장실 남2, 여2
- 주차 7~8대 가능
- 주인 직접, 소개인 사절

011)883-7856

포교당최적지안내

- 위치 : 서울상봉역 옆2층
- 실평수 50평 이상
- 포교당 필요한 시설 완전 구비
- 공양방, 사무실, 그외 방2개, 욕실
- 삼존불, 신중단, 영단, 칠성단, 산신단
- 가액 : 3천만원, 월 16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251-3151

02)434-8212

암자및토굴명당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 장군혈 명당 길지
- 해발 650m. 청정 지역
- 지리산천왕봉 안대. 일자능선
- 부지 2천평, 건평 55평
- 임법당. 심야전기
- 가액 : 2억. 절마당까지 차량진입가

011)9548-980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동호동
- 건물 실평수(50평)
- 임법당, 방2개
- 특징 : 신도시 개발지역 도심속의 포교지로 최적지임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보증금 답사후 절충)

016)502-7307

053)963-9945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아흔아홉골
- 대지 1440평, 논 100평, 임야 25000평
- 법당 23평(목조), 삼성각 7평(목조) 요사채 50평
- 가액 : 7억원

033)763-4328

011)798-8747

사찰 안내

- 부산시 동래구 사직1동 70-2
- 용문사 포교원
- 전세 3500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 1700만원
- 4층에 4층. 32평
- 시설 완벽. 즉시 법회 가능

011)9548-8667

포교원 안내

- 대구 동구 효목1동89-23
- 평수 : 36평
- 법당(3층), 방2, 부엌, 화장실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 500만원
- 불단, 탱화, 연등 등

053)959-0490

011-820-461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장전2동 588-19(식물원 입구)
- 평수 : 39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300만원

011)9238-6626

011)9399-8673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 평수 : 대지 200평, 요사 50평
- 가액 : 답사후 결정

※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484-5202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 대지 : 130평
- 요사채 건평 : 55평
- 임야 3천평
- 산신각, 법당
- 가액 : 3억 5천만원

033)563-3051

토굴 및 암자안내

토굴이나 자그마한 암자 구합니다

(서부 경남권)

016)441-009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장흥
- 대지, 임야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채 110평 1동
- 창고겸 숙식가능요사 45평 1동
- 위치 터 좋아 모든 포교, 사회 복지 활동 최적지
- 가액 : 3억 7천만원

011)9457-7060

유치원 및 사찰하실분

- 위치 : 경남 양산 덕계
- 대지 : 400평
- 건평 : 180만원
- 4층 건물
- 임대가 : 3억원(절충가능)
- 부대시설 : 도자기가마, 도자기방, 茶사랑방(초가), 텃밭

018)585-9882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계양구 계산동
- 평수 : 3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32)541-7985

011)253-7729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시 대흥동 보문산길
- 3층 건물중 2층 33평
- 삼존불, 후불 탱화, 지장불 108불, 신중단
- 옥탑방, 지하 사용가능
- 몸만 와서 운영가능
- 전세 2천, 시설비 1800만원

011)9867-9822

불교의식(조계종 소속) 스님 특별모집



본 교육원에서는 2004년 1월 5일 3기 첫 개강일부터는 조계종(소속) 스님들을 위하여 별도 수강반을 마련하였사오니 불전 의식을 배우시고자 하시는 스님들 께서는 아래 모집기간중에 본 교육원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요일과 수강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기간 : 2003년 11월 25일 ~ 12월 25일까지

아 래

비구스님
- 초급반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까지(과정 4개월)
- 중급반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까지(과정 6개월)

비구니스님
- 초급반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까지(과정 4개월)
- 중급반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까지(과정 6개월)

▶과 목
- 초급 : 목탁 요령 사용법, 새벽도량석, 종성, 각단예불, 사시마지 불공, 행선축원, 관음청, 지장청, 관음시식, 배송 등...
- 중급 : 시련절차, 괘불이운, 천도, 49제 재공편, 상가 염불 다비편, 구병시식, 방생의식, 불상탱화 점안법, 각종고사, 재장엄번 작성법과 설치법, 령가축원문작성법, 위패, 지의, 전 만드는 법, 사물다루는법(정근북, 천수북, 태징)
- 의식(속성반) 시간이 없어서 짧은 기간에 이수 하실분을 위하여 별도 지도함.

※ 등록시 조계종 소속 승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승려증(앞뒤복사본 1통) 3×4cm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을 본 교육원 서무과에 꼭 제출하여 주십시오.

▶준비물 : 두루막착복, 목탁, 요령, 필기도구 각자 필히 지참요망.

··· 성불하십시오 ···

교육원 전화 : 053)955-7725 (접수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까지)
위치 : 대구 동구 신암육교(국민은행 뒤편) 큰도로에서 30m 지점
주차시설 : 대구 수협공판장 內

대구불교의식 범음 · 범패 교육원 원장 주 동주(동현) 합장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청 근교
- 법당 : 60평
- 요사 : 방 2개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 역사깊은 포교당임

011)530-1975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남 현풍 근교
- 건물 : 조립식 인법당
- 사정상 급매 및 전세(조건좋음)
- 사주를 봐주시는 스님 환영
- 신도 많음

018)891-1011

사찰 안내

- 위치 : 정동진 (바다 바로앞 위치) 전망 최고
- 사용가능 부지 83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 1동은 건물 등기 돼있음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33)563-305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쌍문동 일광사
- 법당 30평. 삼존불
- 현재 보증금 1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02)998-0940

017)372-094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15분거리
- 대지 201평, 전 33평
- 법당 : 20평(기와), 최고 시설
- 삼존불, 후불, 신중, 용왕, 칠성, 지장, 산신탱화 요사채 1동 40평,
- 방3개, 화장실 2개, 현대식건물, 옥외 화장실3개, 창고1개, 주차완비, 정남향, 교통편리
- 가액 : 1억3천만원(전세도 가능)

011)817-4027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태백산
- 부지 : 45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오가피 일만주, 엄나무 500주, 지구자나무 600주가 심어져 있음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72 정향사

054)673-8200

011)776-556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지하철 당고개역 앞
- 평수 : 약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02)935-4294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부근
- 55평. 임대, 법당(삼존불, 산신각, 108 지장보살님)
- 방3개, 주방, 화장실
- 가액 : 7천만원(상담후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 시설완비. 즉시 법회 가능

016)243-1643

02)907-1643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소재
- 부지 : 600평
- 법당 : 30평
- 요사 2동, 50평
- 가액 : 1억 8천만원

동 진 불 사

02)325-0692

053)782-5504

018)689-0455

사찰(암자)안내

- 위치 : 경기도. 산세수려함
- 자연물 최고. 오래된 암자
- 법당 1, 요사채 1, 산신각 1
- 대지 : 2천평
- 가액 : 평당 35만원(절충가능)
- 실버타운, 양로원, 납골당, 주택가능 전세, 월세 가능

011)9126-226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 법당 : 12평
- 요사채 : 25평
- 가액 : 1억 2천만원 (집기 일체)

016)652-754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초등학교 옆
- 아파트 2천세대. 포교 적정지
- 건물 5층 5층 40평
- 방1, 부엌, 화장실
- 법당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51)557-6598

011)9599-1284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만월산에 위치함
- 사용평수 : 약 1200평(국유지)
- 시설 : 법당 약 15평, 요사 약 25평
- 삼존불, 방4개, 부엌1, 내부화장실2개, 외부1개
- 심야전기, 상수도, 에어컨 2대, 주차장 완비
- 가액 : 9800만원

011)9982-47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창동에 위치
- 5층건물에 2층, 약 35평
- 삼존불(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음보살)
- 신중탱화, 칠성탱화, 영가단, A급불단
- 방2개, 공단 연등 약 400개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011)9911-042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1동 269-53
- 대지 66평, 건물 30평, 단층 기와집
- 동래온천 관광호텔, 동물원, 금강공원, 동래별장, 허심청, 모두 도보로 3분거리
- 3억원에 구입하였으나 일본유학관계로 2억원 (전세금 4천만원, 은행융자 2천만 포함)
- 지하주차장 있으면, 주위 10여대 주차 가능
- 현재 석탑과 석등이 모셔져 있슴

02)914-3958. 019-368-3958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태백산
- 부지 : 45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오가피 일만주, 엄나무 500주, 지구자나무 600주가 심어져 있음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72 정향사

054)673-8200

011)776-556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지하철 당고개역 앞
- 평수 : 약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02)935-4294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부근
- 55평. 임대, 법당(삼존불, 산신각, 108 지장보살님)
- 방3개, 주방, 화장실
- 가액 : 7천만원(상담후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 시설완비. 즉시 법회 가능

016)243-1643

02)907-1643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소재
- 부지 : 600평
- 법당 : 30평
- 요사 2동, 50평
- 가액 : 1억 8천만원

동 진 불 사

02)325-0692

053)782-5504

018)689-0455

사찰(암자)안내

- 위치 : 경기도. 산세수려함
- 자연물 최고. 오래된 암자
- 법당 1, 요사채 1, 산신각 1
- 대지 : 2천평
- 가액 : 평당 35만원(절충가능)
- 실버타운, 양로원, 납골당, 주택가능 전세, 월세 가능

011)9126-226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 법당 : 12평
- 요사채 : 25평
- 가액 : 1억 2천만원 (집기 일체)

016)652-754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초등학교 옆
- 아파트 2천세대. 포교 적정지
- 건물 5층 5층 40평
- 방1, 부엌, 화장실
- 법당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51)557-6598

011)9599-1284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만월산에 위치함
- 사용평수 : 약 1200평(국유지)
- 시설 : 법당 약 15평, 요사 약 25평
- 삼존불, 방4개, 부엌1, 내부화장실2개, 외부1개
- 심야전기, 상수도, 에어컨 2대, 주차장 완비
- 가액 : 9800만원

011)9982-47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창동에 위치
- 5층건물에 2층, 약 35평
- 삼존불(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음보살)
- 신중탱화, 칠성탱화, 영가단, A급불단
- 방2개, 공단 연등 약 400개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011)9911-042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1동 269-53
- 대지 66평, 건물 30평, 단층 기와집
- 동래온천 관광호텔, 동물원, 금강공원, 동래별장, 허심청, 모두 도보로 3분거리
- 3억원에 구입하였으나 일본유학관계로 2억원 (전세금 4천만원, 은행융자 2천만 포함)
- 지하주차장 있으면, 주위 10여대 주차 가능
- 현재 석탑과 석등이 모셔져 있슴

02)914-3958. 019-368-3958

목어

발(足)



김 징 자
언론인
본지논설위원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의 저서<작은 인간> 본문은 '태초에 발이 있었다'로 시작된다. 직립한 인간의 발은 달리기로 말하면 다른 짐승보다 빠르지 못해도 마라톤처럼 지구력을 가지고 다른 동물을 앞지를 수 있다. 이유는 달릴 때 오르는 체온을 땀샘에서 나오는 땀을 스쳐지나가는 바람으로 증발시켜 냉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털이 거의 없는 피부를 가지게 되었지만.

아무튼 '태초 인간의 발'은 손과 두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후대에 '걷는 것은 철학이다'란 유명한 말을 만든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파를 걷는 학파, 즉 '소요학파'로 부른 것은 걷는 것이 생각하는 능력을 높여준다는 발견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철학자 칸트도 음악가 베토벤도 산책을 일과의 하나로 편입시켰음을 우리는 안다. '생각이나 영감은 걸을 때 떠오른다'면서.

그 '발'이 요즘 뜨고 있다. 건강을 위해 발마사지를 권하고, 발마사지 기계가 발명되어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 발마사지야 고대중국에서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요즘 들어 중국 동남아 등의 관광 상품으로 큰 인기를 누리기는 처음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성업이다.

신체 맨 아래쪽을 버티고 있어 더럽고 냄새나는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던 발을 깨끗이 씻기고 약물로 또 한번 씻기고 30분 넘어 느긋이 마사지 받는 그 '신분상승(?)'에 불만 있어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발에게 한번 물어보면 '적당히 걷고 적당히 달리는 것으로 신체와 사고(思考)에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한다'할 것 같다.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호들갑에 어리둥절하면서.

불광사, 외부감사 자청

서울 석촌동 불광사(주지 지정)는 199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재정감사를 외부 회계사에게 맡기고 결과를 신도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사찰이 재정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광사가 외부감사를 자청하고 나섰다는 소식은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불광사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매년 상 · 하반기 두 차례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물론 불광출판사, 불광유치원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장군죽비

북한산을 뚫으려는 기업은?

대선자금과 관련,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관통도로와 연관된 대기업들의 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공사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금호그룹의 경우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LG그룹 최고 경영자도 조만간 같은 처지에 놓일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 관계자는 "북한산을 뚫으려는 기업들의 업보"라고 일침을 놨다.



불자 세상보기

구승회
동국대 교수 · 철학

"쓰레기는 누가 치울것인가"

'자유주의 · 자본주의의 승리로 역사는 끝났다'는 후쿠야마의 예언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오늘날 세계는 급속히 자유주의로 수렴해 간다는 사실에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는 '자유주의의 보편화'라는 세계이념이요,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보편화된 것은 현실이 아니라 이념이다. 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자본의 이동 및 상품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편화하라는 압력이다. 자본과 상품이 세계화될수록 거주, 이주, 노동, 인류의 보편적 복지는 더욱 반(反)세계화 한다.

인권의 무제한적 보편성에 비추어 보면 한 국가 내에서 거주 ·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면, 국가간이라고 해서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국경은 여전히 넘기 어려운 벽이며, 세계 노동시장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다. 자유주의를 만들어낸 서구의 모든 나라들은 예외없이 까다로운 이민 절차와 심사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며, 불법 이민의 방지와 추방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인류 보편의 자유'는 글자 그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문화 특수적 자유'이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그들도 인류 보편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피하는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그들로서는 돈벌기 쉬운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일자리 많은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살아 있는 우리가 조성한 환경이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역시 수혜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하기 좋은 환경'을 독점하려는 것은 인종적 이기주의(쇼비니즘)말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거기에는 명백한 자기모순이 숨어 있다.

우리는 일본이 재일교포들에게 참정권을 불허하는 것, 거주 등록시 지문날인 제도를 시행하는 것, 미국이 입으로는 가장 친한 나라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까다로운 입국 비자를 요구하는 것, 중국 공안이 처절한 실존적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을 강제 소환하는 것에 대하여 신성한 인권의 보편성을 거론하면서 분노한다.

이처럼 보편적 인권을 숭상하는 우리는 4~5세대 동안 이 땅에 살아온 화교들에게 자장면집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거주 · 교육 · 재산 취득 등 온갖 제한과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몇 년을 살았건 모든 외국인은 3~6개월에 한번씩 거주허가를 경신하도록 하는 외국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동포와 사할린 동포의 영구 귀국을 제한하고 있으며, 탈북자의 입국을 거부하고, 우리가 더러워하는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냉대하고 멸시한다. 하물며 탈북한 국군포로조차도 훈장은 고사하고, 재입국마저도 기꺼워하지 않는다.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리문제로 외교통상부와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물론 그들은 외국인이다(중국동포 역시 중국국적자들이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규약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당연하다. 칸트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방인을 환대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낯선 곳에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16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기에 앞서 '내일 아침 쓰레기는 누가 치울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35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일자리를 침탈한 노동이민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3D 업종이 세계화되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로 수출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들이 한국에 들어 온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이동한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마당

[현대불교에 바란다] 전남 무안 이용춘

사부대중의 윤활유 역할 해주길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다. 전에 있던 부산교도소와 달리 이곳은 불교를 접할만한 환경이 매우 빈약하다. 법사단도 없고, 불법을 공부할 만한 변변한 교재도 없다. 그렇지만 이곳의 법우들은 불교방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일년에 한번씩 삼천배도 하는 등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곳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항상 보시하고 베풀어주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 분은 이 곳 목포교도소 수용자 대표인 총 반장이다. 일년 동안 총 반장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산부처가 아닌가'하고 생각했다. 총 반장은 교도소 밖에 가족이 없는 수용자들에게 담요, 양말, 옷 등을 보시하고 있다. 이 분은 생활이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나 하나도 살기 힘든 교도소란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현대불교>가 교도소 밖의 스님이나 불자들과 이 곳 재소자들 간에 자매 결연을 맺는데 도움이 되는 중간자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현대불교>가 부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곳 중생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

부처님오신날부터 광복절까지 백일기도를 했고,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번씩 1080 참회를 하면서 백일기도를 할 생각이다.

[현대불교를 읽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양대웅

'지상백고좌' 보고 마음의 병 고쳐

불교 공부를 하던 중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뜻에 대해 항상 풀리지 않는 의심이 있어 정신의 병을 앓고 있었다. 윤회가 마음을 떠나서 마음 밖에 별도로 있는 것인지 전전긍긍하던 차에 정신의 고뇌에서 방황하는 정신병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현대불교>의 '지상백고좌'에서 춘천 현지사 만현 큰스님의 법문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 모든 의문이 풀리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만현 큰스님과 <현대불교>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만현 큰스님을 찾아 뵙고 큰 절로써 감사의 예를 올려야 하겠으나, 지면을 통해 두손 모아 합장의 예를 올린다.



성오스님(미국 뉴저지 원적사 주지)

미주 한국불교 관련 기사를 읽고

최근 불교언론들이 미주 한국불교의 현실을 조명하는 기사들을 보도했다. 이 기사들이 미주 불교의 현실을 본국 불교계에 소개하는 큰일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몇 가지 오해의 소지와 분명치 않는 부분 또한 남기고 있기에 여기에서 밝히고자 한다.

첫째 미주 한국불교와 한국기독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미주 한국기독교는 거대한 기독교 사회란 자산을 가지고 출발했다. 한국불교가 넘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한인들은 교회공동체를 중심으로 직장과 이민생활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신앙심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뒤늦게 들어온 불교가 한인들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 및 포교의 지평을 열어 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거대한 기독교와 단순비교는 무리
해외포교 방안 체계적 정립 필요

둘째 한국불교의 정체성 부재가 미주 불교에서도 그대로 반영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한국 불교는 '통불교'라고 칭한다. 이런 규정은 포괄적이란 장점도 있지만 한국 불교를 서양에 전달하기에 불분명하다는 약점도 있다. 왜냐하면 서양인들의 문화나 사고방식은 동양의 문화와 달리 논리적, 분석적이기에 동양의 종합적, 함축적인 사상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

셋째 미주한국 불교는 본국의 훌륭한 스님과 종단의 후원을 필요로 한다. 이제 다시 거듭나고 있는 미국 내 한국불교는 본국의 영향을 받으며 미국에 새로이 적응하는 시기에 있다고 보아야 된다.

미국인들은 물질로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동양사상에 대한 관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상류층과 지성인 중심으로 불교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사찰들이 속속들이 건립되고, 사찰에 와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수행을 하고 있다.

이에 한국불교는 교포중심의 의식불교나 의례적인 행사에만 머물지 말고 한국어를 못하는 교포 2세 및 현지인들을 포교하고 수행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스님 및 포교사들을 많이 배출해야 할 것이다.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11月 셋째주, 넷째주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제 232 호
감 사 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173-20
최 영 식
귀하께서는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오셨으며 특히 경찰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제58주년 경찰의날을 맞이하여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권 지 관

파동명상요법으로 수많은 강력사건(유괴살해·강도·강간)을 해결하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아 제58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 지방 경찰청장으로 부터 본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팔만대장경 동판복원 세종문화회관서 고불식



해인사 팔만대장경 동판복원불사 고불식이 11월 17일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고불식에서 조계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의원 지관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오늘 고불식을 갖는 이 동판대장경은 달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손가락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 역시 달을 보도록 해주는 선지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은 "팔만대장경 동판불사는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국민이 동참해서 완성해야할 과업인 만큼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성원과 동참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원우 기자

부산국군병원 묘광사 16일 준공 개원법회

부산국군병원내 법당인 묘광사(상임법사 김근수)는 11월 16일 영주암 회주 정관스님을 증명법사로 점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법당과 종각 108평 규모로 조성된 묘광사는 법회공간인 대웅전과 지하대중방에 휴식 공간과 편의 시설을 갖추고 군 장병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게 됐다. 천미희 기자

원효의 삶·가르침 무대에 27~29일 마당극 공연

원효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창작 마당극 '신새벽 술을 토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가 무대에 오른다.

원효 성사 열반 1317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민족미학연구소, 민주공원 주최, 문화 기획 극단 자갈치 주관으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작은 방에서 선보인다.

'신새벽 술을 토하고…'는 원효사상을 재조명하고 원효스님의 삶을 통해 불교의 진정한 대중교화와 역할을 역설하는 마당극이다.

천미희 기자

치유예술과 불교가 만난다

아시아 6개국 29일까지 심포지엄·공연

대원사·APPAN 주최

세계적으로 치유예술(아트테라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와 각국의 치유무용이 광주에서 처음 만난다.

전남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는 2003 아판 한국본부(The Asia-Pacific Performing Arts Network. APPAN)와 공동으로 '아판 제6회 국제심포지엄 및 자선공연'을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무각사, 보성 대원사 일원에서 개최한다.

전통무용과 질병치료의 상관관계 규명

전마선 교수 '유방암환자 위한 禪舞' 발표

아시아 6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26일 광주 무각사에서의 개회식에 이어 '아태공연예술의 치유역할'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이자리에서 아주대 전미선 교수가 '대체의학측면의 유방암환자를 위한 선무'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며 인도의 무용평론가 산타세르젝싱그씨가 '치유예술로서의 인도무용'을 발표한다. 또한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등 각국의 학자들이 '치유무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전통무용과 질병치료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발표가 보고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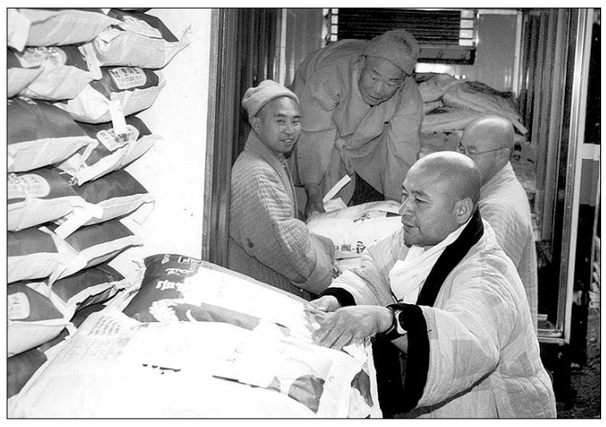
이어 26일(KT 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강당), 27일(대원사 티벳박물관) 양일간 '소아백혈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선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는 인도의 '힌두 전통무용', 인도네시아 '코믹한 이중적 성의 표현춤' 태국 '치유무용', 중국 '경극의 노인춤과 무술', 일본 '재활무용' 등 각국의 전통무용과 치유무용이 공연되며 한국에서는 이선옥 박사가 창안한 국제적인 '선무(Zen Dance)'가 선보인다.

공연에 이어 참가단은 광주 원효사, 순천 송광사 선암사, 보성 대원사 녹차밭 등을 순례하며 한국전통문화와 불교를 체험하고 29일 회향한다.

이번 아판대회를 공동주관하는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치유예술과 불교가 만나게 되어 뜻 깊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전통불교문화가 세계에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판(APPAN)은 아태지역의 공연예술의 발전, 협력, 진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로 17개국 167개 단체가 2000년 1월 서울에 국제본부를 두고 발족했다. 매년 아시아 각국에서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심포지엄과 문화축제를 개최하며 이번에 6개국 50여명이 참석한다.

이준엽 기자



봉선사, 진산식 성금 모아 불우이웃에 쌀·김치전달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이 11월 20일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숙자들에게 자비의 쌀과 김치를 전하는 조촐한 전달식을 가졌다.(사진) 철안 스님은 진산식 당시 모아진 성금으로 4천만원 상당의 20㎏ 쌀 400포와 김치 100 상자를 구리시 인창경로식당, 딸기 어린이집, 관음사, 의정부 선재동자원, 포천시 사회복지관 등에 전달했다. 오유진 기자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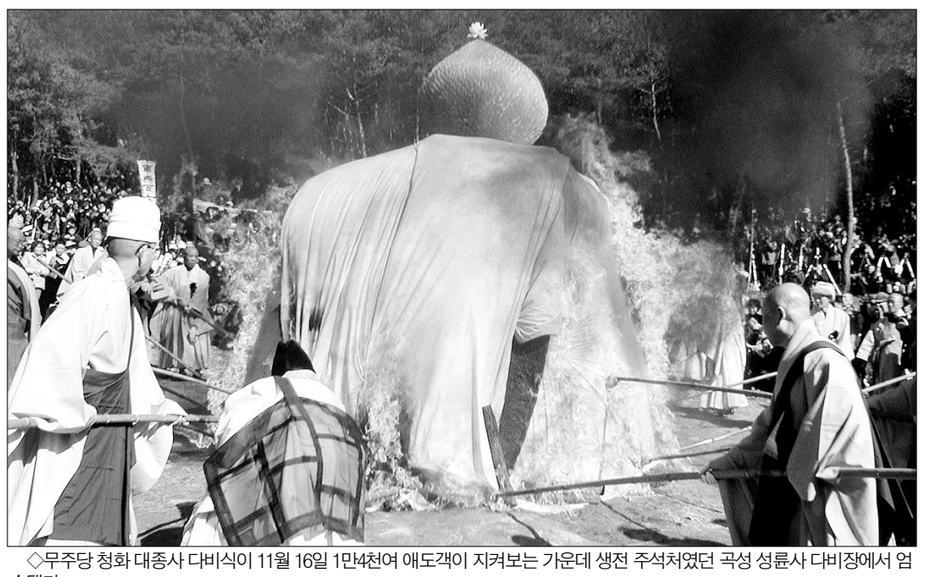
11월 24~12월 22일, 스님 26명 설법

방대한 화엄세계를 26명의 대덕스님들이 29일 동안 설하는 통도사 화엄산림법회가 열린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화엄산림 대법회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설법전에서 개최한다. 30여 년의 전통을 지닌 화엄산림은 영축총림 부방장 초우 스님의 입제법문을 시작으로 전계사 혜남 스님 등 26명의 스님이 세주묘엄품, 여래현상품, 입법계품 등 화엄경의 방대한 가르침을 29일간 설법한다. (055)382-7182

한편 통도사성보박물관은 11월 17일부터 기획전시실에서 '고려불화 재현전'을 개최한다. 원로 서양화가 강록사(姜鹿史) 화백에 의해 유화로 재현된 수월관음도 등의 고려불화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회는 내년 1월 11일까지. (055)382-1001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무주당 청화 대종사 다비식이 11월 16일 1만4천여 애도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전 주석처였던 곡성 성륜사 다비장에서 엄수됐다.

가시는 듯 다시 오셔서 남은 불사에 힘을…

16일 성륜사서 청화 스님 다비식

조계종 원로위원 무주당 청화대종사 영결식과 다비식이 11월 16일 1만4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 성륜사에서 봉행됐다.

영결식은 원로회의 부의장 종산스님의 행장소개에 이어 추도, 입정순으로 진행됐다.

원로의장 도원스님은 영결사에서 "별안간에 원적의 부음을 접하니 일월이 무광하고 대지가 빛을 잃었다"고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오늘 큰스님을 영결하는 제방의 사부대중이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평소 큰스님에게서 받은 자비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아쉬움의 마음이 슬픔 되어 흐르는 눈물"이라고 추모했다.

전국수좌회 대표 현산 스님(화엄사 선원장)은 "길잡이를 잃은 탄식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가시는 듯 다시 오셔 남은 불사에 힘을 더해 달라"고 말했다.

현화, 헌향에 이어 청화스님의 법구는 상좌스님들에 의해 다비장 연화대로 이운되었다.

스님의 법구가 다비될 연화대는 평소 청빈과 겸손으로 일관한 스님의 가풍에 따라 일절 치장하지 않고 거적으로만 덮었다.

12시45분, 원로의원스님들의 거화로 시작된 다비는 사부대중의 '나무아미타불' 염불 속에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계속됐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도원스님을 비롯 원로의원과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종본사 주지, 선원대표스님, 강원 강주, 종회의원 등 전국 각지에서 1천여명의 스님이 동참했다.

재가불자로는 박성용(금호그룹명예 회장), 허진규(일진그룹 회장), 김근태(열린우리당 대표), 이남기(전 공정거래위원장)씨 등 정·재계, 문화계 등 각계대표와 신도, 일반인 등 1만 4천여명이 참석해 청화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아쉬워했다.

곡성= 이준엽 기자



"생식가루 한되 갖고 석달동안 정진 굽은 허리 펴려고 기둥에 묶고 참선"

45년간 시봉 정신안 보살

"스님은 깨침을 얻은 그대로 생불이셨습니다"

45년간 청화 큰스님을 시봉한 강정신안(82·사진) 보살. 세수 35세이던 청화스님이 대흥사 진불암에서 8명의 스님과 함께 정진했을 때 처음 친견한 강 보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참으로 큰스님을 뵙는구나하는 환희심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회상했다.

강 보살은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전국의 선방을 다니시며 한번도 주지를 맡지 않았다"며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커다란 바랑에 책만 가득 담겨있었다"고 회고한다.

"눕지 않고 공부하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안타까워서 방 한편에 이부자리를 놓아두었죠. 그러나 다음날 보면 그대로였습니다." 청화스님의 장좌불와에 대한 정신안 보살의 설명이다.

강 보살은 "생전의 청화스님은 겸손하셨다"며 "어느 누구에게나 경어를 썼고 문밖에까지 나와 배웅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추모하는 불자들이 수없이 찾아드는 신도회 사무실. 팔순의 정신안 보살은 귀찮아하지 않고 불자들을 손수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다. 청화스님이 그러했듯이….

통증 잡는 비결!!

머지션을 해 보셨나요?

머지션 이란?

머지션이란 영어로 "마법사, 마술사" 요술처럼 신기하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동의보감 내경편에 모든병은 氣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며 통증도 氣가 막히면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만물을 살아 숨쉬게 하고 몸속의 기와 혈을 풀어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는 생체 에너지이다. 인체의 어떠한 통증도 원인은 기가 막혀서 생긴다는 것을 알면 통증은 너무 쉽게 잡을 수가 있다. 머지션을 통증부위에 갖다대면 통증이 완화되는 것은 머지션에서 기(氣)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누구든지 직접 해보기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본인 스스로 통증을 잡을 수 있는 순수한 자연방법 이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진액이 부족하면?

인체는 206개의 크고 작은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뼈와 뼈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을 관절이라고 하며 이것을 연골 또는 물렁뼈라고도 하는데 이 관절에 기가 막히면 "삐꺽"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은 관절에 진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다. 이것을 오래두면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자동차나 기계는 사람이 손으로 윤활유를 적당히 조절해 주지만 우리 인체는 진액(津液)이란 물질. 일명 윤활유(潤滑油)라고 하는 미끄러운 액이 자동적으로 수분과 세포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고 있다. 인체에 기가 막히면 진액의 공급이 중단되어 근육질이 경직되고 수분이 증발하여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통증을 느끼게 되지만 통증부위에 인위적으로 기(氣)를 소통시켜주면 진액이 다시 잘 돌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된다.

불신이 병을 키운다!

머지션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는 순수한 자연치유방법이며 인체에 부작용이 없으며 누구든지 한번만 테스트 해 보시면 통증에 대한 고민이 좋은 인연이 될수 있지만 광고 내용에 대한 불신으로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통증의 종류를 가리지 마시고,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건강에 대한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머지션 연구원장 서 상 태

※ 머지션 체험 사례 공모 : 채택되신 분에게 머지션을 드립니다.

서울 수도권은 직접 오셔서 무료 체험해 보십시오!!

※ 지방에는 자료 우송해 드립니다.
※ 자연요법은 인체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 본 광고 내용을 모방한 가짜가 있으니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십시오!!

■ 세미나 일정 **사찰에서 초청시 무료 출장 강의 및 체험해 드립니다.** – 연락주세요 –

- **2003년 11월 24일 월요일**
  장소 : 역삼동 삼정 관광호텔 2층 킹룸
  시간 : 오전 11시
  ※ 교통편 : 제일생명 4거리 차병원 방향 300m 지점
- **2003년 11월 24일 월요일**
  장소 : 부천 관광호텔 2층 대연회장
  시간 : 오후 7시
  ※ 교통편 : 전철 부천역 남광장 → 인천방향 400m
- **2003년 11월 25일 화요일**
  장소 : 대전 샤모니 관광호텔(구. 훼밀리호텔)4층 크리스탈룸
  시간 : 오전 11시
  ※ 교통편 : 고속버스터미널 뒤
- **2003년 11월 26일 수요일**
  장소 : 울산 태화 관광호텔 별관 2층 연회장
  시간 : 오후 7시
  ※ 교통편 : 태화로타리
- **2003년 11월 26일 수요일**
  장소 : 대구 동대구 관광호텔 2층 루비홀
  시간 : 오전 11시
  ※ 교통편 : 고속버스터미널 뒤
- **2003년 11월 27일 목요일**
  장소 : 마산 아리랑 관광호텔 2층 동백홀
  시간 : 오후 7시
  ※ 교통편 : 마산역 광장
- **2003년 11월 27일 목요일**
  장소 : 부산 아리랑 관광호텔 2층 봉황실
  시간 : 오전 11시
  ※ 교통편 : 부산역 앞
- **2003년 11월 28일 금요일**
  장소 : 광주 파레스 관광호텔 7층 모나코홀
  시간 : 오전 11시
  ※ 교통편 : 동구 황금동 밀레오레 건너편

종로3가 국일관 옆 중앙고시텔 2층

서울 02)2263-5135
평생전화 : 050-2331-0627

머지션 연구원


◇지리산 생명평화결사 창립식이 11월15일 실상사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1만여개의 생명평화등 점등장면.

온세상 평화의 등 밝혀지길…

‘지리산 생명평화결사’ 창립
1만여 등불 밝혀 행사 절정
1천개 평화마을 건설 방침

자연, 인간, 지역, 종교, 이념의 벽을 허물고 서로 끌어안는 ‘지리산 생명평화결사(이하 평화결사)’가 남원 실상사에서 창립,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평화결사는 11월 15일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이 지리산에서 희생된 원혼들을 달래고 뭇생명의 해원상생을 염원하며 시작한 1,000일 기도 회향과 함께 발족됐다.

실상사 보광전 앞 경내에서 진행된 창립식에는 도법 스님을 비롯, 수경 스님, 김진웅 목사, 남영숙 목사,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 박노해 시인, 남지심 소설가 등 각계인사와 불자, 지역민 3백여 명이 참석했다.

밀렵꾼의 덫에 걸린 참매와 소쩍새를 지리산에 풀어주는 생명방생으로 시작된 이날 창립식은 ‘생명평화의 등 점등’으로 실상사 경내에 1만여 개의 등이 밝혀지면서 절정을 이뤘다.

이날 창립식에서 도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만인이 밝힌 등불마냥 마을마다 평화의 불이 밝혀지기를 기원하며, 이웃에게 평화를 나누어주는 ‘생명평화 탁발순례’를 펼치겠다”고 선포했다. 생명평화 탁발은 다음달부터 도법 스님과 수경 스님이 단장이 되어 마을은 물론 사찰, 교회, 성당, 시민단체 등 전국각지를 돌며 직접 생명평화를 알릴 예정이다.

이번에 창립한 평화결사는 개인별로 생명평화결사 서약을 한 ‘평화의 등불’과 이들이 3인 이상 모여이룬 ‘평화마을’, 평화마을이 여러개 모인 ‘평화지대’로 조직되며 평화대회, 평화학교 등을 통해 교육과 모임방향을 모색한다.

평화결사는 평화운동정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회원 10만명을 목표로 생명평화서약운동을 전개하며 평화마을 1천개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남원= 이준엽기자



천일기도 회향한 도법 스님

“이번 천일기도는 우리민족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종교계 시민사회 대중이 함께한 기도였습니다”

2001년 2월 16일부터 ‘좌우익희생자와 뭇생명 해원상생을 위한 범종교계 100일기도’를 시작으로 1천일동안 매일 5시간씩 특별 정진기도를 봉행한 도법스님이 지난 12일 천일기도를 회향했다.

매일 5시간씩 정진기도 생명평화 탁발순례 계획

“기도를 마치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한 도법 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평화를 가꾸는 것만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평화를 위해 죽음도 같이하는 10만명의 평화대가 있다면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수경스님과 함께 평화를 ‘구걸’하는 생명평화의 탁발순례에 나설 계획이다.

청담스님 열반 32주기 추모법회



도선사(주지 혜자)와 청담문화재단(이사장 동광)은 11월 15일 호국참회원 대강당에서 청담대종사 열반 32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추모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조계종단이 중생구제의 큰 뜻을 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준 청담대종사의 원력을 이어받아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저희 제자들은 큰스님의 듯을 받들고 계승하기 위해 오늘 다시 도선사에 모였다”며 도선사가 큰스님의 서원을 선양할 수 있는 정화의 성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수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선사와 청담문화재단은 이날 추모법회에서 중앙승가대 도심 석상 스님을 비롯 동국대, 진주산업대, 청담중 · 고 학생 54명에게 6천5백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도선사 회주 혜성,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중앙종회 의장 지하, 문수사 주지 혜정, 청소년교화연합회장 현성, 청담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과 국회의원 김원길, 서울 강북구 김현풍 구청장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선문화연구회 명상편의점 열어

서울 도심 한복판에 건강을 위한 명상 체험 공간이 마련돼 화제다.

선(仙)문화연구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에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명상을 즐길 수 있는 명상 편의점 ‘선(仙)’을 열었다. 편한 시간에 편의점을 찾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듯, 누구나 쉽게 방문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각종 명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이 표방하는 것은 ‘쉬운 명상’과 ‘웰빙(well-being) 명상’ 두 가지. 걷기명상, 그림명상을 체험하면 명상지도자의 간단한 지도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선’의 이완(40) 대표는 “명상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며 “바쁜 현대인들이 잠깐의 휴식을 통해 나와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입장료는 4000원이며 방문객들에게는 연꽃차가 무료로 제공된다. (02)722-6653 강신재기자

장흥 정안사 공예태후 헌다식

KBS 인기드라마 ‘무인시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돈독한 불심을 보여주고 있는 공예태후의 헌공 다례식이 11월 7일 전남 장흥 정안사에서 개최됐다.

장흥군과 장흥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등 지역문화계는 공예태후 가문의 사찰이었던 정안사와 소설가 이청준의 작품 ‘축제’의 무대인 남포마을과 한승원의 작품 ‘아제 아제 바라아제’의 촬영지인 신흥사를 묶어 문화답사 코스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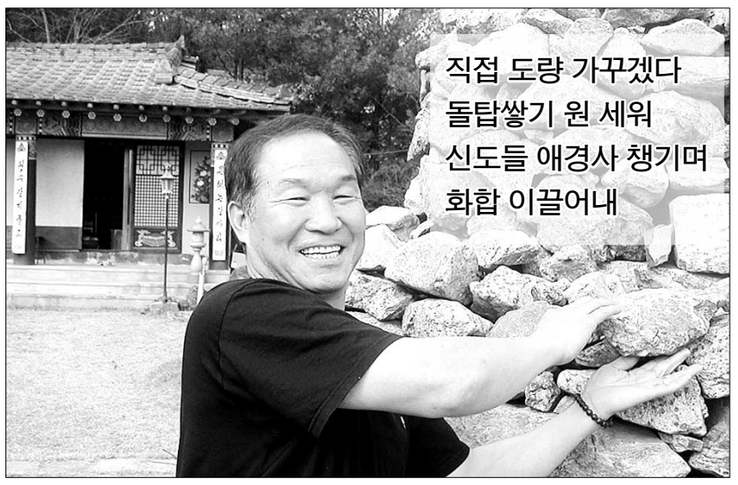
우리 절 우리 신도

높아지는 탑, 쌓이는 불심

양평 법림정사 정용순 신도회장

경기도 양평읍 한켠으로 접어드니 10여 개 돌탑이 그 위용을 드러낸다. ‘법림정사’ 절 마당에 우뚝 선 채로 대웅보전을 감싸 안은 모양이 마이산 돌탑을 연상케 한다. 이 탑들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 절을 대표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신도들의 바람과 정성을 오롯이 녹일 수 있는 것으로 말이죠. 그러다 생각하게 된 것이 돌탑이죠.”


◇자신이 쌓은 돌탑앞에 선 정용순 신도회장.

직접 도량 가꾸겠다
돌탑쌓기 원 세워
신도들 애경사 챙기며
화합 이끌어내

돌탑의 기원을 궁금해하자 법림정사 신도회장 정용순(52 · 지묵) 씨가 수줍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도량이 채 정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림정사와 인연을 맺게 된 정 씨. 주지스님의 법문이 좋아 사찰을 들락거리던 그는 2000년 돌탑쌓기 원을 세우기에 이른다. 마이산 탑사의 돌탑에 반한 것도 이유라면 이유겠지만, 신도들 손으로 도량을 가꿔가는 뜻을 높이 사서 ‘법림정사 돌탑만들기’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생각은 좋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적당한 돌을 찾아 홍천까지 뛰어가 돌을 구해오는 한편, 얼음장 같은 개울물에 발을 담궈가며 운반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몸은 고됐지만 정성을 담은 탑이 조금씩 높아질 때마다 환희심이 일었다. 크고 작은 돌이 서로의 틈을 메워가는 동안 부처님에 대한 정성 또한 깊어질 수 있었다.

정 씨의 불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돌탑쌓기 작업을 매개로 법림정사 신도회의 화합을 이끌어 냈다. 유명무실했던 신도회가 정씨의 활약 이후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모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씨는 법림정사 신도들의 애경사를 꼼꼼히 체크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얼마 전 경내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도가 족을 위해서는 결혼준비는 물론 이삿짐까지 손수 날라줄 정도. 떡방앗간을 운영하면서 꾸준한 떡보시를 실천해온 것 또한 정씨의 봉사 가운데 하나다. 각종 절 행사가 열릴때마다 그의 떡 · 과일 공양은 소리없이 진행됐다.

이런 정 씨가 최근에는 대웅전 중창불사라는 큰 원을 세웠다. 절일을 제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은 불사를 위한 적금마련까지 이끌어냈다. 큰 가람은 이루지 못할지라도 부처님 모시는 성전다운 법당을 제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돌탑에 닿은 작은 정성과 진실한 마음이 새 법당에서 피어오를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강신재 기자



추천의 말

성운스님 법림정사 주지

법림정사의 보배입니다. 절과 신도일이라면 열 일 제쳐두고 나서는 마음이 꼭 부처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 마음이 지역사찰에까지 뻗어 최근에는 양평사암연합회 행사 또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묵 거사의 불심으로라면 양평지역 불국토 건설도 그닥 먼일이 아닐 듯 합니다.

불국토 건설 몸소 실천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총회 개최

◆ 일 시 : 불기 2547년 11월 29일(토) 11시

◆ 장 소 : 흥도사 설법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33-250
전화 : 02)2234-2198

위과 같이 공고함

불기 2547년 11월 18일

대한불교대승종 종정 도암 성도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일원	이준엽	062)375-9986 / 011-9644-3536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도로공사·공장분진·소음까지

'또 버려진 절터'





김천 갈항사지

산은 부처님을 모신 절 집이 깃든 곳이고, 부처님을 모시는 이들이 등 구부리고 모여 사는 곳이다. 부처님을 모신 집은 아이 낳고, 고기 굽는 집이 아니기에 팔작이나, 단청으로 모양을 내야하고, 대나무, 싸리나무로 울타리를 쳐야한다. 부처님을 모시는 이들이 사는 것은 단순히 밥숟갈을 고르고 잠자리를 펴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이마는 맑아야 하고, 옷자락은 무채색이어야 한다. 댓돌 위에 놓인 흰 고무신에 햇살이 쌓이고, 처마 끝 묵은 거미줄에 달빛이 걸리는 곳. 물소리, 가랑잎 구르는 소리로 장엄한 절 집에 포크레인이 큰 짐승처럼 다가 설 때, 물욕의 거센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올 때, 부처님을 모시는 이들은 더는 물러 설 곳이 없어 창자가 달라붙는 침묵으로 맞서야 하고, 도롱뇽, 진달래도 한 덩어리가 되어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가슴은 터널이 관통하고, 눈은 고압선이 안대처럼 휘감긴 산. 무릎은 도로로 잘리고 어깨는 아파트로 짓누르는 산. 산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차라리 연약한 사문의 옷자락에 매달리려 한다.


◇보물 제245호인 오봉동 석조여래좌상.

색깔이 없는 인생. 짜고 떫은 맛도 없이 향기만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오감(五感)도 버리고, 핏줄도 끊은 이들의 눈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수행자의 힘은 침묵에서 나온다. 마주서지 않는 무저항의 힘. 똑같이 주먹을 쥐지 않는 비폭력의 힘. 말없는 말의 힘. 수행자의 힘은 바람과 허기로 채운 공복(空腹)에서 나온다. 자벌레처럼 길 위에서 수없이 허리를 접었다 펴는 그 값진 수고에서 나온다. 기도와 수행의 공간으로 대물려 살아온 집이 난데없는 굉음으로 기왓장이 흔들릴 때, 만장처럼 현수막이 나부끼고, 목탁소리, 염불소리로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굴착기의 전진을 멈추지 못할 때, 출가사문은 이목구비 다 빗장을 지른 채 빈 가슴으로 역사의 광장에 주저앉아 염주알을 굴릴 뿐이다.

사패산, 천성산의 관통을 막기 위한 절집안의 싸움이 처절하다. 도롱뇽과 함께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45일간 단식을 계속한 지율스님의 주위에 10만 명이 넘는 불자들이 서명으로 동참하였다. 40여개의 사찰이 훼손 위기에 처한 사패산 터널공사도 막바지 싸움에 접어든 느낌이다.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불화를 막기 위한 싸움이기에 불자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추풍령 아래 첫 고을. 금오산 서쪽 자락의 옛 가람 터인 갈항사지(葛項寺址)도 알고 보면 또 다른 터널 공사로 몸살을 앓는 곳이다. 경부 고속철도가 발밑을 관통하고, 대구~아포간 고속도로가 눈자위를 후벼 파고 지나가도 사지이기에 세상의 이목을 끌지 못할 뿐, 버려진 뒤에도 다시 버려지는 폐사지가 갈항사지다. 갈항사지는 절 터 입구에 또한 거대한 골재공장이 들어서 먼지로 가로막고 소음으로 접근을 통제한다.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인 금오산 골짜기에 빈 껍질로 남아있는 갈항사지는 옛 절터의 모습은 잃어버린 채 과수원, 담배밭, 고추밭으로 윤회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한번 부처님과 맺은 인연은 영원한 것이어서 법등은 식었어도 꼭지 무른 과실들은 과즙이 넘치고 풀꽃들은 향기가 넘친다. 인연 따라 상(相)과 용(用)은 변해도 한번 향냄새 짙게 배인 그 체(體)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갈항사지는 행정구역상으로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위치한다. 황악산에 직지사가 있다면 금오산의 암봉 아래 마땅히 갈항사가 자리하여 소백산 줄기의 정기를 김천 땅에 모으고 상주~문경, 영동과 무주, 삼도시장의 장터를 열어 세간의 인심을 풍요케 했던 것이다. 갈항사지로 오르기 위해 지나치는 갈항마을은 돌담과 돌담사이의 나이 든 감나무 울타리들이 숯검정 같은 껍질을 두르고 잊혀진 세월을 지키고 있다. 아귀가 뒤틀린 돌담 아래 해바라기를 하다가 감나무 가지처럼 뒤틀린 손가락으로 절터를 일러주는 벙어리 노파의 손짓이 무표정하기만 하다.

<삼국유사>에는 효소왕 1년(692) 당나라에서 귀국한 화엄종의 고승 승전(勝詮)법사가 어느 해인가 금오산 자락에 절을 짓고 돌해골(石骨蜀骨)을 청중으로 하여 화엄경을 강의했다고 전해진다. 돌해골은 석화된 해골로 이를 천도하기 위해 승전법사가 법회를 베풀었다는 추측과 함께 돌해골 80여개가 전해온다는 전설이 있으나, 그 전설조차 땅 속 깊이 어딘가에 묻혀 다시 들려줄 이들도 없다. <삼국유사>의 기록과 <신동국여지승람>에도 갈항사지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면 갈항사지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조선 중기까지 사세를 이끌어 온 것으로 추정되나 어느 때 무슨 이유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었는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2001년 6월 경상북도는 가야문화권의 역사문화유적지 보존 정비 계획을 세워 갈항사지 발굴 정비로 73억원을 책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갈항사지는 발굴정비는 물론, 사적지 지정도 안 되고 있다.

갈항사지에는 현재 보물 245호인 오봉동석조여래좌상이 있고, 석조비로자나불 1기와 갈항사터 동서삼층석탑(국보 제99호)의 표지판만이 남아 있다.


◇본래의 불두를 잃고 새로운 머리를 얹힌채 철책의 보호를 받고있는 비로자나불.


◇폐비닐이 나부끼는 고추밭에 나란히 서있는 동서탑 표석.

◇국립민속박물관앞에 놓여있는 갈항사지 동탑(왼쪽), 서탑(오른쪽).

통일신라때 창건…寺勢 조선중기까지
창살 속 비로자나상 보기 안쓰러워
국보급 동서삼층석탑은 민속박물관에 전시
정비예산 책정불구 사적지 지정도 안돼

절터 위쪽에 사세의 부흥을 꿈꾸며 새로운 갈항사가 들어섰으나 사찰의 복원은 막막해 보이기만 한다. 사지 한 켠에 편액도 없는 전각 안에 모셔져 있는 석조여래좌상은 비록 코는 무너졌으나 아직도 눈매가 분명하게 살아있고, 목에 두른 삼도도 부드럽게 느껴진다. 불상 뒤의 구멍으로 보아 광배를 세웠던 흔적이 있으나 항마촉지인을 한 천년의 불상은 무언의 설법을 계속할 따름이다. 오늘의 처지가 안쓰러운 것은 전각 앞 밭둑 철책 안에 갇힌 비로자나좌상이 한층 더하다. 옛 추억은 기억하기조차 싫은지 본래의 머리를 잃고 이물스러운 새머리로 교체된 비로자나불상은 철책이 보호각이 아닌 철창처럼 느껴져 마주 하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차라리 시원한 무두불이 낫지 않았을까. 진열장의 마네킹처럼 무덤덤한 저 새머리에는 무슨 상념들이 저장되고 있을까. 허전하기는 폐비닐 조각이 나부끼는 고추밭에 나란히 서 있는 동서 삼층석탑의 표석도 마찬가지이다. 부재와 탑신이 뿔뿔이 흩어진 채 정작 사지에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표지 돌만이 쓰러질듯 서 있는 것이다.

경복궁 안 민속박물관 입구에 무연히 서 있는 갈항사터 동서삼층석탑은 국보급의 성보답게 갈항사지의 존재를 세인에게 알려주는 신라의 대표적 삼층석탑이다. 1916년 2월12일 밤 도굴꾼들에 의해 탑내에 간직했던 유물을 잃고 무너진 두 개의 삼층석탑은 가까스로 경복궁으로 옮겨진 가슴 아픈 수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갈항사터 동서삼층석탑은 건립연대가 밝혀진 많지 않은 신라 석탑 가운데 하나이고, 신라석탑으로서는 유일하게 기단부에 금석문이 남아있는 전형적인 양식이라는 점에서 그 조형미의 우수성과 함께 이 분야 연구자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고유섭(高裕燮, 1905~1944) 선생은 이 두 탑을 가리켜 "단려하고도 아순(雅淳)한, 가장 문아(文雅)한 탑 중의 하나"라고 극찬하였다. 얼마 전까지 남면사무소 뜰에 장식물로 주저앉았던 팔부신중상(八部神衆像) 4기도 최근 직지사로 옮겨졌다는 소식이다. 한 때는 신라 왕실의 발걸음이 빈번했을 옛 가람 터에는 주린 배를 채우려고 날아드는 산꿩이 푸드득거릴 뿐 흰 구름조차도 금오산 능선에 머문 채 발 길을 끊고 있다.

<시인,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사진=고영배 기자
다음은 성주 법수사지편

갈항사지 가는길

갈항사지는 김천에서 4번 국도를 따라 김천교를 건너 구미로 가는 906번 도로로 접어든 다음 오봉저수지를 지나 삼가마을 방향으로 1.7㎞ 정도 가면 된다. 삼가마을에서 갈항마을로 가는 길은 골재채취공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공장을 지나쳐 산 밑 마을까지 올라가야 한다.

부처님 성지 녹야원에 첫 한국불상 봉안



'한-인도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마하보디사르트센터는 스리랑카 근대 불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다르마팔라(Dharmapala : 1864~1933)가 조직한 대각회(Mahabodhi Society) 사르나트 지부가 있는 곳으로 이 안에는 무르간다쿠티비하라 사원이 있어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 동남아 불교국가들의 불상이 모셔져 있지만 유독 한국 불상만 없어 성지를 참배한 한국 불자들의 안타까움이 컸었습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성지 복원운동의 일환으로 불상을 점안하고 본격적인 인도불교와의 교류에 앞장서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안법회에는 대각회 부회장 등 현지 불교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인 수교 30년 기념 성도절(12월 30일)에 봉불법회
불자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동참불자 명단 영구복장

올해는 불교의 발생 성지인 인도와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한-인 수교 30주년'**을 기 념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후 최초로 설법하신 성지 녹야원에 한국전통 양식으로 조성된 불상을 모시는 불사를 독자 여러분을 비롯한 전국 사부대중과 함께 추진합니다.

또한 인도 불교지도자와 한국 참가단이 동참한 가운데 거룩한 **성도절에 불상봉안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성지순례**도 갖습니다.

부처님 나라 인도와 수교 30주년을 기리는 이번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부처님 성지 녹야원 한국부처님 봉안불사
- **동참금 :** 1구좌 1만원
- 모든 동참자의 명단은 부처님 복장에 영구히 봉안됩니다.
- **접 수 :** 국민은행 006-01-0783-27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

▶ 봉안법회 참가 및 성지순례 행사 프로그램
- 점안법회
  - **일 시 :** 2003년 12월 30일(성도절)
  - **장 소 :** 마하보디사르트센터(Maha Boddhi Sarnath Center)
  - **법 주 :** 혜총스님(감로사 주지)
- 인도 · 네팔 성지순례
  - **인솔법사 :** 리선행법사(성지순례 전문가)
  - **일 정 : 2003년 12월 28일 ~ 1월 7일(10박 11일)**
  - **코 스 :** 인도(사르나트(녹야원), 보드가야, 쿠시나가르, 라즈기르, 스라바스티, 바라나시, 아그라, 뉴델리), 네팔(룸비니)
  - **동참금 :** 199만원(비자대금 포함)
  - **특 전 :** 지역마다 최고급 호텔, 요리사 동행 식사제공, 서울 · 부산에서 동시 출발

▶ 동참문의 : (02)737-8881
▶ 주 최 : 현대불교신문
▶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총동문회

일상 화두삼아 가족을 부처님 처럼



가정법회 12년째 이끌어온 여여회
이란 씨

◇12년 동안 매달 한차례씩 여여회 가정법회를 이끌어 온 이란 씨.

91년 시작 올해 12년째 맞은 가정법회
운영진 없어도 체계적 공부·신행 정진
대장경 봉안등 법보시 한 책만 1만여권
'무릎포교, 무릎전법' 가정의 중요성 강조



11월 13일 오전 11시. 몇몇의 보살들이 옆구리에 불경을 끼고 하나 둘씩 모여든다. 그들이 무리지어 모인 곳은 사찰이 아닌, 서울 잠실의 한 가정집 거실이다. 보살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들의 집인 것처럼 익숙한 모습으로 차 대접이며, 신발정리며 분주히 움직인다. 곧 집전을 맡은 정법화(52) 보살의 목탁소리가 울리자 각자 자리에 앉는다.

"나무영산회상불보살, 나무영산회상불보살, 나무영산회상불보살. 여여회 11월 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여회(如如會)는 199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가정 법회다. 불상을 모신 법당이 아닌 평범한 가정집에서 열리는 이 법회는 경전공부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달에 한번, 매월 둘째 주 목요일 11시면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으레 30여명의 회원들이 정시에 모인다.

한번도 어김없이 법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1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소임을 맡아온 회원들의 든든한 뒷심 때문이다. 지난 달 10월 100회째 발행된 <여여회보>도 경전공부 내용을 녹취, 이를 컴퓨터로 문서화하는 여래심(52), 원묘행(45), 법운화(52), 대지행(48) 보살의 노력이 모인 것이다. 한사코 이름 밝히기를 사양한 지도법사 스님도 대구에서 먼 걸음을 마다하고 12년 동안이나 <옥야경>, <육방예경>, <묘법연화경> 등을 회원들에게 가르쳐 왔다.

특히 여여회가 따로 회장이나 운영진을 선출하지 않고도 이처럼 체계적으로 공부와 신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란 씨(법명 수덕화 · 54)의 숨은 공덕이 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게 전하며 보살행을 실천하겠다"는 발원으로 그의 호인 '여여(如如)'를 따 가정법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니었음을 가늠케 한다.

여여회는 경전위주의 이론공부 뿐 아니라 실천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의 사찰을 찾아 다양한 보시행을 펼쳐왔다. 돈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마음 내는' 불사를 위해 회원들은 운주사, 연흥사 등의 고찰의 불사에도 동참했다. 또 경전이 필요한 사찰을 찾아 한글대장경, 티베트 대장경 등을 봉안해 지금까지 법 보시 한 책만도 1만 여권에 달한다.

이러한 여여회의 보살행에는 이씨가 말하는 '무릎포교, 무릎전법'의 철학이 담겨있다. '무릎'이라는 말은 이 씨가 평소 강조하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포교'를 의미한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는 말처럼, 가족을 먼저 포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가족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일상의 모든 일을 화두삼아 생활하는 것이지요."

7년 전 해인사에서 가족수계를 받은 이씨의 남편과 두 아들은, 방이동에서 가정법회를 꾸리던 시절부터 그녀를 '방이동 포교국장'이라 부르며 응원을 아끼지 않는단다. 이 씨 가족의 영향 때문인지 다른 회원들의 거사들도 법회 때 마다 필요한 책, 가방 등을 보시하는 등 여여회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의 기쁨을 전해주겠다는 화두로 수행정진한다는 이 씨는 모든 불자가 한사람의 포교사임을 강조했다.

"꼭 스님과 포교사만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건 아니지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부처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밝은 미소를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전법입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곧 부처님 가르침을 띠처럼 이어주는 인연의 끈이 될 것이고요."

글=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圓 月庵堂 正大 大禪師 學校法人 東國學園葬 寂

前總務院長이신 學校法人 東國學園 理事長 月庵堂 正大 大禪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世臘67세 法臘42세로 佛紀2547年 11月 18日(陰 10月 25日) 寅時 (05時) 三幕寺 月庵堂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永訣日時：불기2547(2003)년 11월 22일(음 10월 29일) 오전 10시
■永訣式場：龍珠寺
■茶毘場：龍珠寺 蓮華臺

訃告

명：법선 서응 월하 원담 보성 석주 관응 송담
고문：도원 법룡 종산 원명 도천 지종 성수 활안 덕명 숙산 녹원 이두 정천 천운 동훈 지관 진제 지혜 초우 혜정
지도위원：지유 고산 월주 능가 정우 월운 정일 법정 도문 밀운 법홍 철응 봉주 봉철 정원 송월 종하 설정 홍교 성파 통광 현성 혜성 도법 명진 지선 정관 무진장 암도 일면 정련 성타 종범 학능 능혜 명선 인환 종진 성우 지안 혜총 혜인 현산 함주 원융 적명 무여 명정 무문 고우 정광 현기 금아 인각 지환 정태 정찬 영진 의정 법산 법안 진철 무관
상：오현 정휴
장의위원장：법장 홍기삼
부위원장：지하 월서 무비 도영 윤현보
장의위원：성관 현고 태연 미산 탁연 종열 청학 정산 법선 일관 진명 성광 마근 현해 지명 진각 법정 자광 지성 법타 종상 세민 원정 성오 현문 혜승 평상 명공 명섭 현봉 몽산 용주 범여 철안 오현 혜자 원혜 지만 지현 동광 효림 성직 정휴 도후 정념 도완 원담 진구 장혹 탄우 인행 선광 법능 법보 혜승 법광 장적 무이 장우 종광 향적 현응 선각 정인 이암 원정 상운 지준 도문 설봉 법조 원행 일화 현공 의연 진만 일문 무자 보경 보선 월우 주원 광조 법경 혜림 초격 지욱 정문 원택 지홍 학담 종훈 청화 지홍 정호 도각 정안 영담 종삼 영배 토진 장류 법안 도공 수현 본각 도문 운달 흥륜 계호 경륜 정성 혜원 혜원 서돈각 류주형 황창규 박도근 최상범 고복현 박인국 민병록 한보광 이황우 김태홍 정진환 김진철 조암 조수환 서윤길 임호일 이종춘 손성 김보현 차수련 노완섭 엄기환 조성구 한용환 길홍우 김석용 유덕기 김무봉 여인형 이관제 권용법 정찬현 최창선 선상규 이호용 최이숙 곽준규 최법혜 김영걸 설영기 이보춘 최영조 박순홈 이계영 이명옥 김영재 김영국 신홍목 배성한 김오우 배의용 김영웅 진대호 류풍운 조태경 윤석성 이규춘 박용석 윤종화 강윤호 정지천 신임식 송재운 한성규 주정식 표명진 박장옥 박명순 배종우 구연식 이수경 열춘근 이임수 강형석 최현익 유영빈 김정태 정락 영담
집행위원장：도광 정현 정태 법우 혜영 정찬 정완 정견 정호 정석 이영환 원경 성관 세영 법경 성법 지정
부위원장：감：병：법：전：심경 법우 선원대중 한문우 김계현 이천종 의：지：빈：법성 성일 정석 정유 목윤 봉념사 학인 홍：보：덕신 성무 성효 신관호 박정규 호：법：성호 원오 성행 확적 각：승문 선래 무영 성원 봉명사 학인 다：주：성국 응진 성신 원：
도문 은상 좌：성용 성조 성현 자승 성공 지일 성목 성주 신륭 성도 덕신 성법 성봉 성하 성륜 성월 정도 성화 성무 성유 선관 성곡 성국 정안 성운 성효 성암 성견 성고 성본 성각 성인 성오 성학 성원 성장 성완 성원 성산 성광 성파 성전 의탄 성허 성타 성현 성송 도안 효산 원광 성석 법능 성재 성인 탄문 탄호 탄묵 대원 원일 보각 탄무 탄종 탄월 탄학 탄해 탄일 탄산 탄운 탄덕 태웅 도정 일연 도은 법기 법현 법천 법진 법웅 법성 법신
손：상 좌：임명배
재가상좌：

■문의처：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88
☎ 031-234-0040/02-2260-3004-6

學校法人 東國學園 理事長
月庵堂 正大 大禪師 東國學園葬 奉行委員會

동국대학교 동대사대부속고등학교 명성여자고등학교 금산상업고등학교
동대사대부속중학교 명성여자중학교 금산중학교 홍제중학교 은석초등학교
동대부속유치원 동대부속 경주병원 포항병원 경주한방병원 서울가야한방병원
분당한방병원 전자계산원

릴레이 수행일기 〈下〉



홍치원

법무사

나의 참선 입문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선방을 찾아 입실(入室)하여 그 일주일 동안 참구해온 화두를 점검받곤 하였다. 그뒤 1년 후 종달 노사께서 입적하시자, 현재 서강대학교 문리대에 재직하는 박영재 교수님(법명; 法鏡)이 그 뒤를 이어 선도회 제2대 지도법사로서 선도회를 지도하고 있다.

수행법 역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간화선이 정통 수행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간화선은 달마대사로부터 당, 송대를 거쳐 그 이후 1,300여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검증된 수행법으로서, 특히 복잡한 현대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화두를 참구함으로써, 참선을 하는 동안 잡념을 떨쳐버릴 수 있고, 그 화두를 매번 점검받음으로써, 항상 화두에 대한 새로운 의심을 갖도록 하여 더욱더 화두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선도회의 간화선에서는 입실을 통한 화두 점검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 꾸준히 참선하는 것이다. 종달 노사께서는 저서인 〈좌선〉에서, 좌선을 통해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이를 그냥 참선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로 알아들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선의 저변에는 이미 자신에 대한 깊은 참회가 전제되어 있음을 문득 느낄 때가 있다. 그리고, 꾸준한 참선은 오랜 업장을 자신도 모르게 녹아져 내리게 할 것이다.

참선, 참회가 전제되어 있음을 느껴

꾸준한 수행만이 효과 극대화 할 수 있어

이때부터 나는 법경 법사님의 지도 아래 〈무문관(無門關)〉(남송 무문혜개 선사가 공안 48칙을 한데 모은 선수행의 지침서) 과정을 모두 마치고, 현재는 〈벽암록(碧巖錄)〉(원오극근 스님이 100칙의 공안을 모은 책) 과정을 지도받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양적인 성장이 도력(道力)과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선도회에서는 무문관 과정을 마치고 나면, 혼자서도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의미로 법사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런 연유로 나는 인천의 직장 참선 동아리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참선 모임을 갖고 있다. 회원들의 양해를 얻어 간화선 수행을 원하는 일반인과도 함께 모임을 갖고 있다.

근래 들어서 정신적인 수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 수행법 역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간화선이 정통 수행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간화선은 달마대사로부터 당, 송대를 거쳐 그 이후 1,300여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검증된 수행법으로서, 특히 복잡한 현대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화두를 참구함으로써, 참선을 하는 동안 잡념을 떨쳐버릴 수 있고, 그 화두를 매번 점검받음으로써, 항상 화두에 대한 새로운 의심을 갖도록 하여 더욱더 화두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선도회의 간화선에서는 입실을 통한 화두 점검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 꾸준히 참선하는 것이다. 종달 노사께서는 저서인 〈좌선〉에서, 좌선을 통해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이를 그냥 참선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로 알아들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선의 저변에는 이미 자신에 대한 깊은 참회가 전제되어 있음을 문득 느낄 때가 있다. 그리고, 꾸준한 참선은 오랜 업장을 자신도 모르게 녹아져 내리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이하는 현상과 그에 따른 느낌이나 감정은 너무 다양하다. 참선은 구슬을 실에 꿰듯이, 꼬치에 고기를 꿰듯이, 이러한 다양한 현상과 감정들을 한 줄에, 한 꼬치에 꿰어 가는 중심 역할이 아닌가 싶다.

재가자들은 원오극근 선사의 '좌일주칠(坐一走七)', 즉 깨어있는 시간 가운데 8분의 1정도 좌선을 하면 나머지 시간은 각자의 본업에 매진해 그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정진했으면 한다.

마음속 자비심 일깨우는 방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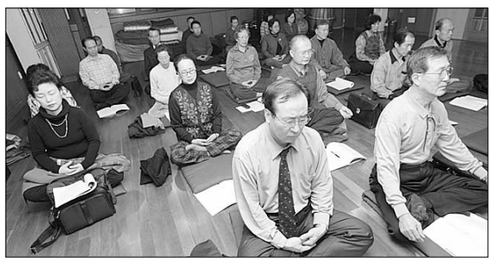
장소 제약없이 심·신 변화 체험

단기간 큰효과 불자들에 큰 호응

"'자비 손(마음의 손)'으로 몸을 관찰해 나가면 기운이 약하고 막힌 부분에서 생긴 병과 몸의 부조화가 없어집니다. 또한 몸이 청정해지면 탐진치가 사라지고 자비로운 마음, 부드러운 행위를 갖게 되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집중의 삼매와 깨달음의 지혜가 계발됩니다." 11월 12일 저녁 7시, 서울 동산불교대학 3층 법당. 지운 스님(전 송광사 강주)이 40여 수련생을 상대로 '자비수관(慈悲手觀)'의 원리를 강의하고 있었다.(사진 아래)

조용한 장소에서 집중력을 요하는 다른 수행법과 달리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자비수관은 비교적 쉬우면서 단기간에 몸과 마음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수행법이다. 3년여 전부터 송광사, 봉인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수행법은 '송광사를 사랑하는 모임(송사모)' 회원이나 동산불교대 수강생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자비수관이 정립된 배경에는 간화선 등 전통수행법에 어려움을 느낀 불자들이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른바 '제3 수행법'에 몰리는 현상이 한 원인이 됐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끼던 지운 스님은 위빠사나와 밀교 수행이 가미된 자비수관법을 발견하고 이를 직접 체험하면서 대-소승 경전상의 교리적인 배경도 갖추었다.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의 설법을 들으면서 일부 힌트를 얻기도 했다는 스님은, 1주일 단위로 신도들의 수행을 점검하며 바른 수행관을 정립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다. 지운 스님으로부터 자비수관의 수행 원리와 행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각화된 가상의 손

▶수행법의 요체가 '자비수관'이란 말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불보살의 수인(手印) 중에는 다섯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무외인(施無畏印) 또는 시무외수(施無畏手)라고 하는데, 이는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는 자비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비수관 즉, 자비의 표현인 '마음의 손'은 시각화한 가상의 손입니다. 집중을 극대화시켜서 관(觀)을 도와주고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사랑과 연민을 일깨우는 방편입니다."

공대 남았을때 공성(空性) 깨달아

▶구체적인 수행원리는.

"'자비 손'을 빌려서 몸이 갖는 땅, 물, 불, 바람의 4대(大)와 공(空)의 성품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비 손'으로 5대(4대와 공)라는 성품을 직접 대면하면 몸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실체가 없는 공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아가 본래 존재한 적이 없는 무아의 지혜가 생깁니다. 즉 땅, 물, 불, 바람, 허공 등 5대의 에너지로 결합된 몸이 양파껍질이 벗겨지듯이 해체되어 마지막으로 공대(空大)만 남았을 때, 존재의 본질을 통찰하는 힘으로 '자아'와 '내 것'이 단지 개념일 뿐, 실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아는 사라지고 깨어있는 마음인 무아, 무특성의 공성(空性)을 깨닫게 됩니다."

업장 소멸 우주 의식으로 확장

▶몸에 대한 관찰이 깊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수→화→풍→공의 순서로 관찰이 깊어짐에 따라 관하는 마음이 부분에서 전체로 바뀌는데, 이것이 관자재(觀自在)로 가는 방편이 됩니다. 자비의 모습인 5대의 손이 지, 수, 화, 풍, 공에 관계되는 업장을 소멸시켜 몸을 정화해서 몸의 고통과 속박된 마음을 자유롭게 하므로써 의식이 청정해지면서 우주 의식으로 확장됩니다."

5대는 근본 마음에서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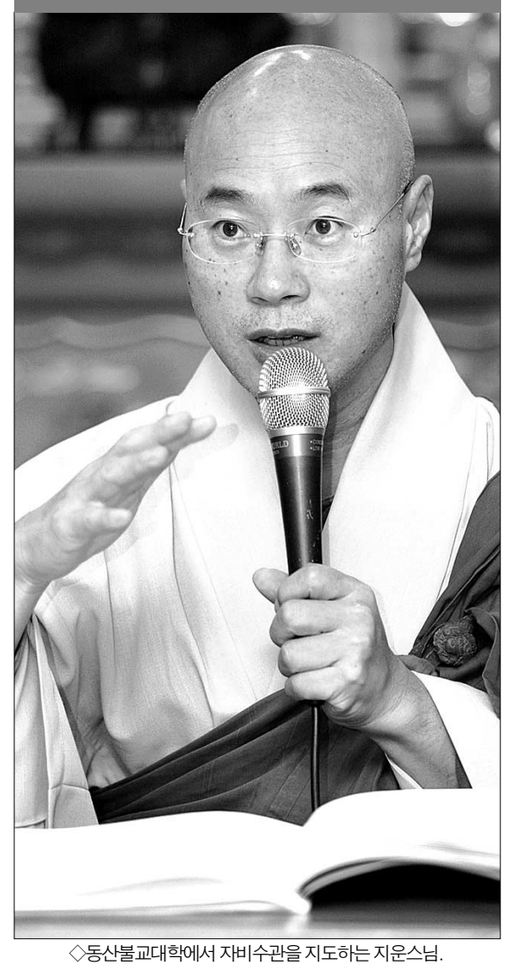
▶5대와 마음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마음 손'으로 5대를 관찰해나가면, 몸은 업이 정화된 지, 수, 화, 풍, 공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고 마음만 인식되는 경지가 이뤄집니다. 마음만 남는 상태가 되는 것은 5대가 근본마음에서 나왔으며, 마음에 의해서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손에 의해 오대는 모두 마음의 모습으로 환원되어 그 근원인 한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행진전에 따라 전환

▶몸을 관할 때 정념과 지혜, 자비의 상관관계는?

지운스님의 자비수관



◇동산불교대학에서 자비수관을 지도하는 지운스님.

"자비수관에서 관은 정념에서 지혜로, 다시 이타행의 자비로 전환됩니다. 정념은 혼침과 들뜸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합니다. 몸과 마음이 무상, 고, 무아임을 정념하면, 이 정념이 반야지혜로 전환합니다. 반야지혜가 일체중생에게 회향되면 자비심으로 변해 중생을 구제하게 됩니다."

"보리행 따르는 정법 충실"

▶자비수관에는 대-소승의 수행 원리가 담겨있는 듯 한데요.

"자비수관으로 생긴 자비심은 사회와 주변환경에까지 하나로 연결시켜 연기실상의 진리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을 본다는 점에서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며, 대승적 경지의 보리행을 따르니 정법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근본불교학교 수행교실 개강

근본불교쌍가(지도법사 빅쿠 붇다빠라, www.bodh.net)는 12월 8일부터 내년 3월7일까지 제16기 근본불교학교 사이버 수행교실을 연다. 매학기 4회 출석수업과 주3회 인터넷 수업을 병행하는 사이버수행교실은 바쁜 직장인들이나 거리가 멀어 수행센터에 갈 수 없는 불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근본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지도받는 과정이다. 12월 8~10일, 1월 12~14일, 내년 2월 9~11일, 3월6일 각각 실시되는 출석수업은 부산 다보선원(055-331-6118), 대구 지혜선원(053-255-0442), 대전 지혜선원(011-9557-8730), 서울 지혜선원(011-9557-8730)에서 동시에 열린다.

천안 호두마을 집중수행 실시

천안 호두마을(www.vmcwv.org)은 12월 5일부터 30일까지 주말(3일)수행 및 집중(6일)수행을 실시한다. 정원 법사가 12월 5~7일 주말수행을, 혜진 스님이 12월 19~21일 주말수행을, 김열권 법사가 12월 25~30일 집중수행을 각각 지도한다. (041)567-2841

명상아카데미 '깨달음의 길' 수련

명상아카데미(www.bodhitao.com)는 11월 30일 오후 7시~12월 4일 오후 3시, 12월 15일 오전 10시~21일 오전 12시, 12월 21일 오전 12시~26일 오후 3시에 각각 '깨달음의 길' 정규수련회를 연다. 명상아카데미는 매월 1 · 2째 주 금요일 오후 7시~일요일 오후 6시에 기본과정, 매월 3 · 4째 주 금~일요일 심화과정도 열고 있다. 개인상담이나 치유, 수행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상담은 수시로 가능하다. (02)598-7180

서울 불심정사 육조단경 강설

서울 불심정사는 11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육조단경 강설' 법회를 연다.

인터넷 다음카페(cafe.daum.net/buddhajukbi)에서 '장군죽비'라는 아이디로 설법하는 극락정사 회주 청봉 스님이 강의한다. (02)534-7515

"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격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원을 20만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달인물(만삼생것10kg, 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20만원 ■ 2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효사육임도서안내

■ 활용서 ■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2,500,000
● 육임래정비법 ····· 350,000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 310,000
● 각일각시운명예언비법(태아 · 길일 · 길시 선정법) ····· 74,000
● 육임신수비결 (설명비디오 포함) ····· 300,000
● 육임指斗생활비법 ····· 10,000
● 길흉상담지침록 ····· 20,000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日語版 ····· ￥272,000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학습서 ■

● 효사 육임강의록 上(학습용) · 下(활용서)권 ····· 410,000
● 육임강의 비디오 · CD ····· 900,000
● 육임형이상법 ·····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 130,000

효사 전국육임 直講 안내

● 서울 매주 금요일 「효사숙」 02-993-8680
● 서울 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숙」 02-525-3039
(비구니스님 전문학당 청룡사)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숙」 063-284-7714
● 광주 매주 월요일 「광주숙」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숙」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숙」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숙」 053-624-8680
● 오행기초 · 기본을 모르는 분들은 위 각 본 강의 2시간 전에 나오셔서 사전 교습을 받게 됩니다.
※ 수강료는 일백오십만원이고 교재 효사육임강의록 上 · 下권을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효사숙」에서「본회회원실기지도강의」와 육임서 설명회가 본 강의전에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문의 02-993-8680 / 02-998-8683

입금계좌 도서주문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강의신청 :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솜조각 속에 약사여래 자비심 담아

바라밀현장 | 천축사 불교사회봉사회 서울대병원 봉사



◇서울대병원 사회사업실 내에서 수술용 솜을 손질하고 있는 천축사 불교사회봉사회 회원들. 사진=박재완 기자

수술에 사용할 솜 다듬기 12년째
정성이 명약이라는 마음으로 봉사
바자회등 통해 꾸준한 보시행 펼쳐

초심을 지켜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그것이 내 안위와 무관한 '타인을 위한 봉사'라면 더 그렇다. 게다가 그 내용조차 '봉사'라 이름 붙이기 힘들 정도로 소소한 일인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11월 13일 찾은 한국불교사회봉사회(회장 김명순) 회원들에게만은 이것이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그네들은 이미 12년째 서울대학교병원 사회봉사실 한 켠에 앉아 의료기구를 손질하고 있다. 당시 50대 '주부'였던 최옥실(71) 할머니는 봉사와 함께 칠순을 맞았고, 한원자(65) 할머니는 예쁜 며느리를 두 명이나 들이게 됐다. 귀밑머리는 하얗게 시어가고 세상사는 거칠 것이 없어졌지만 이들의 일은 변한 것이 없다.

"수술용 솜을 포장하는 일이야. 이렇게 네 개씩 뜯어서 포장지에 싼 다음 테이프로 봉해. 그럼 저기 삼성 보살이 10개씩 묶어서 상자에 담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자 16명의 노보살들이 앞다퉈 설명에 나선다. 이들의 업무는 수술용 솜 손질. 공장에서 바로 들어온 솜박스를 뜯어 그 안의 솜을 다루기 쉽게 떼어낸다. 그리고 얇은 솜을 4장씩 분리, 10개를 하나로 묶어 소독실로 올려보낸다. 이 묶음들은 소독실에서 일제히 멸균과정을 거치게 된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함부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우. 우리 손을 거친 재료로 환자들의 아픔을 닦아내는 것이니 말여."

임만순(62) 할머니 말대로 그들의 손짓에는 각별한 정성이 배어있다. 병원의 의사들처럼 환자들을 직접 대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의료기구로나마 환자들을 만난다는 생각을 놓은 적이 없다. 환자의 병 치유에는 의사의 의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치료기술이 전부가 아니다. 불교사회봉사회 보살들은 오랜 신행경험에서 '정성'이라는 명약의 중요성을 깨달았기에, 솜조각 속에 마음을 실어 환자의 쾌유를 일념으로 기도한다. 겨자씨 속에서 수미산을 노래하듯, 작은 솜조각 안에 약사여래의 깊은 뜻이 가득하기를 발원해 온 것이다.

불교사회봉사회 회원들의 봉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천축사 신도 중심으로 이뤄지는 두 팀의 '서울대병원 의료기구 손질봉사' 외에도, 각종 차와 단주 등을 팔아서 매년 천만 원 상당의 심장병 어린이돕기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90년대 초에 시작한 '심장병·백혈병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로 서울대병원과 인연을 맺은 것이 계기가 돼, 이후 10 여년동안 변함없이 이어온 보시행이다.

이외에도 봉사회는 3백여 회원들을 중심으로 고아원, 양로원 등을 방문해 청소, 빨래 등을 해주며 꾸준한 노력봉사를 벌이는 한편, 생활용품을 별도로 지원해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불자군인들을 위해 각 군법당 및 훈련소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군인들에게 합장주를 걸어주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도봉구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5명과 무의탁 노인 5명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비롯, 연말이면 자선바자회와 일일찻집 등의 행사를 마련해 불우이웃에게 보탬이 되고 있다.

12년의 세월동안 불교계 봉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온 불교사회봉사회. 이들의 보살행 궤적을 되짚으며 앞으로 이어질 제 2, 제 3 봉사회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02)997-9468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김연숙 씨가 강릉자비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심성수련을 지도하고 있다.

"가슴이 따뜻해야 공부도 즐겁죠"

심성수련봉사 펼치는 김연숙씨
강릉자비원서 마음 수련 지도
존엄성 인식케 하고싶어 봉사

"아이들의 심성이 바뀔때마다 자식을 낳는 기분이 듭니다. 천진불의 미소를 되찾아 줄 수 있어 기쁠 따름이지요."

사회복지법인 강릉자비원(대표 부동스님)에는 '관세음보살'을 닮은 보살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연숙(48) 씨. 김 씨는 매달 강릉자비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무료로 심성수련 지도를 펼치고 있다.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들 마음속에 자비심을 새기는 것이 벌써 일상이 돼버렸다는 보살이다.

그런 그가 심성수련 봉사를 시작한 것은 6년 전. 강릉시 교육청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과정에 등록하고부터다. 시작했을 때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으나 상담자원봉사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마음치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

그러다 옥천초등학교, 관동중학교, 문성고등학교를 비롯한 강릉시내 초중고등학교에 무료강의를 펼치면서 마음수련 지도의 노하우를 쌓아왔다.

'자비봉사회' 회원으로 강릉자비원을 드나들다 자비원 봉사를 결심하게 됐다는 김 씨는 "스스로를 불행한 가족구성원이라 구분짓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케 하고 싶었다"며 "체계적인 인성계발 프로그램과 명상 등을 통해 자기를 긍정하고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고 밝혔다.

강릉자비원=(033)642-3555

강신재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란자니 드 실바 사캬디타 초대회장 (上)

스리랑카 비구니 교단 재건

19 세기 말엽, 서구 기독교인들의 지배에 저항하며 스리랑카의 불교 부흥을 이끈 것은 재가자들이었다. 특히 여성 재가자들은, 당시의 비구교단이 여성의 종교적 염원이나 교육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초기불교 이래로 가장 신심있는 불자들이 수지해오던 10계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일부 여성 재가자들이 나선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최초의 '10계를 지키는 여성들', 즉 '다사 실 마타보(dasa sil mattavo, 10戒女)'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통적인 비구니처럼 삭발하고 가사와 흰색 법복을 입으며 '아라마야(Aramaya)'라는 불교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살았다. 그들이 선택한 의상, 즉 구족계를 받은 스님의 가사와 신심깊은 재가자의 흰색 옷이 어우러진 법복의 색이 상징하는 것은 재가자도 아니고 구족계를 받은 비구니도 아닌 새로운 지위를 선택했음을 나타낸 것이었다.



◇란자니 드 실바 '스리랑카 사캬디타' 회장.

리랑카를 제외한 남방 불교권에서는 사미니-비구니 제도가 없고, 대신 8계녀 또는 10계녀 제도가 있어 여성수행자는 절에서 10계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밝히고 비구니 승단 재건에 불교국가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스리랑카의 비구니 승단 재건은 상좌부권 불교계에서 비구니와 여성불자의 힘만으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남방불교권에서 비구니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스리랑카에는 현재 400명의 비구니 스님과 4천여명의 10계녀(다사 실 마타보)가 비구니 교단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실바 회장은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강한 수행력과 원력을 갖춘 비구니 스님이나 여성수행자의 역할과 함께, 독일인이었던 아야 케마 스님의 노력이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스리랑카 비구니 교단의 복원에는 사캬디타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1993년, 사캬디타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세번째 국제회의를 개최했을 때, '10계녀 제도'를 비구니 승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최고조에 달했다. 수 백명의 10계녀가 이 국제회의에 참석해 타지역의 비구니와 불교계 여성들을 만나서 토론하고, 여성 수행자의 삶을 사는데 있어 필요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캬디타 스리랑카 지부는 대중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것은 여성 수행자들의 잃어버린 비구니계를 되살리고 불교의 존속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계속)

여성 출가자 제도 복원, 지도자 양성에 주력
'10계녀'로 승단 기틀 마련 국제적 홍보 노력

'부처님의 딸들'이라는 뜻의 세계여성불자연합회인 '사캬디타(Sakyadhita)'의 창립멤버이자 초대 회장인 란자니 드 실바(Ranjani De Silva, '스리랑카 사캬디타' 회장)는 상좌부 불교에서의 여성 출가자 제도를 복원시키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여성 불교지도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아야 케마 스님과 함께 사캬디타 창립을 주도했던 실바 회장은 스리랑카에 비구니제도를 확립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2003 참여불교세계대회(INEB)'에 참석한 실바 회장은 "사캬디타의 창립은 전 세계 여성 수행자들의 힘의 결정체"였다며 "이는 곧 스리랑카 비구니 교단의 재건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가능케 했다"고 평가했다. 실바 회장은 "스

김재경 기자

월간역학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풍수지리·사주명리·관상학과 유·불·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월간역학에서는 역학전문학원인 월간역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원을 졸업한 분에게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하며 개업시 월간역학을 통해 적극 홍보해 드립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www.kbs.cc)를 듣는 분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7만원)

강의실 수강생 모집

사주(초·중·실전), 관상(마의상법)
풍수(금낭경), 수상, 육효
12월 5일(금) 개강
과목당 월10만원(3개월단위접수)

월간역학교육원

명당탐지기 관룡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관룡자로 당신이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창간 13주년 기념 사은행사
월간역학

관룡자란?
심룡척이라고도 불리우며, 이미 수천년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사용되던 기구로,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진산실업(주)에서만 생산 공급합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랜동안 번성해오는 사찰과 서울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당 등 번성하는 종교단체의 건물, 세종대왕 릉, 남연군 묘,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중의 묘, 일본 동경의 황거(皇居)와 오사카 성,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들의 릉, 대만의 중정기념당(장개석 동상) 등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유적과 시설물에서는 틀림없이 관룡자가 작동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내지 못한 명당자리도 국내에는 많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교육장을 역임하신 김모선생께서 관룡자가 작동되는 지점에 은행나무 묘목을 이식하였는데, 수령 2년생인 나무 모두에서 호두알 굵기의 은행 열매가 50-70여개씩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김선생께서는 이것을 보고 명당의 지기를 실감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관룡자가 불티나게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룡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친구나 친지에게도 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이 기구를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충청도의 남모교수는, 자신은 관룡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기구로 명당을 찾을 수 있다면 왜 나한테 배우러와?"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가장 아끼는 제자는 자신이 직접 데리고 와서 관룡자를 구입케 했습니다. 경상도의 김모교수, 서모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룡자를 은밀히 사용해 오지만, 어쩌다가 주위 사람들 눈에 띠면 "이것은 수십년전에 중국의 한 도사가 전해 준 것으로 국내에 있는 건 모두 가짜다"라고 합니다. 전라도 김모선생의 경우 "함께 풍수공부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관룡자를 구입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모두 가짜라고 하니 제발 사지말라' 고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말렸던 사람들은 모두 이미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관룡자를 사용해오는 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의 심성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것은 자신만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터(명당)에 대한 욕심에는 형제도 없다'는 속설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납골당, 공원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방향) 까지 잡을 수 있으므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풍수지리사 등 5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원래 관룡자는 88만원 입니다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관룡자(88만원)+월간역학 1년분 (105,600)=985,600원을 80만원으로 할인해드립니다.
▣ 구입방법 : 수협 227-01-002756 예금주: 진산실업(주)로 80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관룡자 휴대용 주머니(1만원상당))무료증정.
• 신용카드 소지하신 분 12개월 분할가능. 기업체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구입 후 반품을 원하시면 1개월 이내 언제든지 즉시 환불해드립니다.
• 월간역학 1년분 구독료는 105,600원 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만원으로 할인+ 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수제품 황금 18k 헤드 관룡자 주문제작 · 육효용 수제품 서죽과 산목셋트 판매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옥빌라트 101호

www. kbs. cc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46〉



관자재보살의 법문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교화"
대비심은 부처님과 중생 연결고리

지금까지 선재동자가 찾아갔던 여러 선지식들은 인간세계의 선지식들이었다. 이들을 방문하고 나서 다시 신(神)이나 하늘세계의 선지식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 사이에 나타나는 선지식이 관자재보살과 정취(正趣)보살이다.

선재동자는 다시 남쪽의 보달락가(Potalaka)산에 있는 관자재(觀自在)보살을 찾아간다. 그 산에 이르러 이곳저곳으로 이 보살을 찾아다니다가 문득 바라보니 서쪽 골짜기에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고 수목이 우거져 있으며 부드럽고 향기로운 풀이 깔려 있었다. 관자재보살이 금강보좌 위에 가부좌하고 있고, 한량없는 보살들에게 둘러싸이어서 그들에게 대자대비한 법을 설하여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도록 하고 있었다.

선재동자가 관자재보살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니, 관자재보살은 선재동자를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가 대승의 마음을 내어 중생들을 널리 거두어주고 정직한 마음으로 불법을 구하는 것을 칭찬하였다. 선재동자가 예배드리고 나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자, 관자재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해탈문을 성취하였다. 나는 이 보살의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문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교화하여 끊이지 아니한다. 나는 이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문에 머물렀으므로 모든 여래의 처소에 항상 있으며 모든 중생의 앞에 항상 나타나서 보시, 사랑하는 말, 이롭게 하는 행, 같이 일함 등으로써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한다. 육신을 나투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갖가지 부사의한 빛과 깨끗한 광명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며, 음성으로써 하기도 하고 위의(威儀)로써 하기도 하며, 법을 말하기도 하고 신통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며,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성숙케 하기도 하고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함께 있으면서 성숙케 하기도 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문을 수행하여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 하노니 모든 중생이 험난한 길에서 공포를 여의며 번뇌의 공포, 미혹한 공포, 속박될 공포, 살해될 공포, 빈궁할 공포, 생활하지 못할 공포, 나쁜 이름을 얻을 공포, 죽을 공포, 여러 사람 앞에서의 공포, 나쁜 길에 태어날 공포, 캄캄한 속에서의 공포, 옮겨 다닐 공포,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공포, 원수를 만나는 공포, 몸을 핍박하는 공포, 마음을 핍박하는 공포, 근심 걱정의 공포 등을 여의기를 원한다. 또한 나는 여러 중생이 나를 생각하거나 나의 이름을 일컫거나 나의 몸을 보거나 하면, 다 모든 공포가 면해지기를 원한다.

나는 이런 방편으로써 중생들을 다시 가르쳐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고 영원히 물러가지 않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문을 얻었을 뿐이다."

관자재보살이 설하고 있는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해탈문(大悲行解脫門)'은 세간 속에 머무르면서 평등하게 일체중생을 수순(隨順)하며 자비행을 성취하는 것이다.

관자재보살이 이 해탈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여래가 계신 곳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의 앞에 언제나 나타나 그들을 거두어준다고 하는 것은 여래의 마음은 대비심이기 때문에 보살이 대비심을 가지면 여래와 함께 있는 것이며, 이 대비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빠진 중생의 앞에 항상 나타나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자재보살은 일체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몸을 변화해서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동류(同類)의 몸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일체중생을 거두어주려는 커다란 서원(誓願)을 일으켜서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한다.

인생의 행로(行路)는 참으로 험난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공포(두려움)가 중생들을 편안치 못하게 하고 괴롭힌다.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생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관자재보살은 우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구호하려고 하여 심지어는 어떠한 중생이든지 그를 생각하거나 그의 이름을 일컫거나 그의 몸을 보거나 하면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관자재보살은 이렇게 여러가지 방편으로써 중생들의 공포를 여의게 하고 나서는, 다시 그들에게 불법을 가르쳐서 보리심을 내어 영원히 퇴전하지 않도록 한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는 것이고, 중생과 부처님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바로 대비심이다. 대비심이야말로 중생세계 속에 부처님을 출현시키는 거룩한 생명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⑲

견성성불(見性成佛)-7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로 표현된 선종의 기본 입장은 세상과 인간의 온갖 문제에 대해서 그 궁극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개인의 마음가짐에서 찾는 것이고, 이것은 동·서양 고전종교와 고전사상에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를 했다. 고전종교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온갖 세상사에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한다고만 믿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해에는 농사가 잘 되고 어느 해에는 흉년이 드는데, 잘 되면 신령님 덕분이고 못되면 신령님이 뭔가 노해서 그러리라고 여긴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누구는 크게 애쓰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편안하게 사는데 누구는 아등바등 처절하게 발버둥을 치며 고생을 해도 되는 일이 없는 것을 두고는 흔히들 팔자소관이라고 한다. '팔자'라는 힘이 인간사를 관장한다는 관념이다.

고전종교 이전의 현저한 종교적인 신행으로서 이른바 주술(呪術)이라는 것이 있다. 영어로 매직(magic)인데, 요즈음에는 마술(魔術)이라고 해서 눈속임 기술로써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는 오락을 뜻하지만 원래 학술용어로서는 그런 뜻이 아니다. 세상의 일들이 돌아가는 데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전제 아래, 그 법칙을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술수를 부리는 것이 주술이다. 장희빈이 중전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방술을 썼다가 나중에 들켜서 쫓겨났다는데, 그 방술이라는 것이 전형적인 주술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 그것을 바늘로 찌르면 그 사람이 아프다거나 하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가뭄에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콩으로 키질을 하여 빗소리를 내는 것도 주술의 전형적인 한 예이고, 암컷을 여럿 거느리는 물개 수컷의 생식기를 먹으면 성적 기능이 좋아진다는 믿음은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인과율적인 자연법칙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다만, 그 주술적인 인과율은 과학에서 밝혀내는 인과율적 자연법칙과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이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

그러나 고전종교에서는 모든 세상사가 결국에는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점을 강조한다. 고전종교에서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 내지 실재로 말하는 정법(正法)이라든가 도(道), 조물주 등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다분히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고전종교에서는 그러한 초월적, 초자연적인 궁극의 원리를 나 자신이 깨닫고 체현(體現)하는 것을 중시한다. 또는 조물주에 대해서 피조물로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고전종교가 등장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모든 세상사가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달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닐 터이다. 지금도 원시종교적인 신행과 주술적인 사고방식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더욱이, 근대 이후에는 개개인의 각성보다는 사회의 틀이라든가 제도를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뿐 아니라 개인의 문제 해결에도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이 매우 강하게 대두하였다. 그런 사상이 현대문명을 주조하는 한 축이 되면서 고전종교의 이상은 많이 위축되었으나, 한편으로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 고전적인 이상의 중요한 가치는 퇴색하지 않고 있다.

■윤원철 서울대학교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22〉



암(癌)의 불교적 모습

모든 생명체 복제·증식 통해 존재유지
인과 무시한 욕망이 파멸의 병 불러

의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암(癌)의 발생은 높아간다.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면서 평균 수명은 이미 남녀 모두 80세 부근의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 과거 사람의 수명이 짧았을 때 감염 등으로 인한 사망에 비하여 암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에 따른 수명 연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동시에 여러 성인병과 더불어 암의 발생이 사망률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생명체의 생존 방식이 개선되면 될 수록 암의 발생을 돕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암은 이러한 생명체의 이란성쌍생아(二卵性雙生兒)이다. 단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에서 시작된 생명체는 끊임없이 분열하여 이십여 년 후에 수백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어른이 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세포의 생사(生死)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완성된 성체를 이루기 위해 세포와 세포, 세포와 주위 조직 간의 연기적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암은 정상 생명체의 세포 분열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되, 그러한 정상적 인과 관계를 무시하고 홀로 분열하고 증식하여 주위 조직이나 장기에 대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고 암 역시 주위와의 관계를 아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분열, 증식을 위해 새로운 혈관 형성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으며 주위 조직으로부터의 자극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효소를 만들어 주위 조직을 뚫고 전이(轉移)하여 전신으로 퍼져 나아간다. 이것 역시 암 나름대로의 생존해 나아가는 방식이다. 암과 생명 연장을 통해 고령화로 나아가는 우리의 욕망은 서로 뗄려야 뗄 수 없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공통점이란 정상세포와 암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복제를 통해 분열 증식하고 (慾望), 주위와의 관계를 통해 (緣起) 존재를 유지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제멋대로인 암세포도 철저하게 연기적 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발현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 어느 쪽도 연기적 관계 속에서 인과(因果)를 떠날 수 없지만 정상세포는 인과에 매(昧)하지 않고 깨어있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가 오고감(生死)에 연연해하지 않고 때가 되면 조용히 소멸해 가는데 반해, 암세포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한 욕망의 노예로서 인과에 깨어있지 못하고 당장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하여 결국 생명체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지 못하여 너와 나 모두 성급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

오래 사는 것이 의학의 지상명제로 되어 고령화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오래 살기 위해 별의별 희한한 것을 다 먹어가며 지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개인이건 사회이건 그러한 욕망(慾望)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되 인과마저 무시하고 추구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이나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은 결국 우리를 암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무량사 포교원 수강생 모집

불교의식 범음범패 교육원 (부설) 마하불교대학(불자 신행교육)

불교의식(범음, 범패) 제 3기생 학인모집(선착순 50명)



본 무량사 포교원 내 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에서는 초종파를 막론하고 염불 또는 범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스님)은 물론 현재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임 또는 법사님께서도 본 교육원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는 아무런 불편없이 운영 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모집기간 : **2003년 11월 25일 ~ 12월 25일까지**

교육과목

- 의식부문(10개월 과정) 초급 4개월, 중급 6개월
- 강의내용 : **[초급]** 목탁요령사용법, 새벽도량석, 종성, 송주편, 각단예불, 사시마지 불공, 관음단, 지장단, 칠성단, 용왕단, 조왕단, 산신단, 불공 및 축원, 행선축원, 관음시식, 배송, 사미율법 및 초발심 자경문, 생축, 망축 쓰는 법 등...
  [중급] 시련절차, 괘불어운, 104위신중거목, 천도, 49제 재공편, 상가염불다비편, 방생의식, 구병시식, 불상탱화점안법, 공장, 상가, 차량고사, 사물(북, 태징, 꽹과리 사용법)
  ※ 재장엄번 설치법, 령가축원문, 위패, 지의, 전 만드는 법
- 작법부문 : 천수바라, 도량계(나비춤) 사다라니. 오공양, 요잡, 화의재진언바라

※ 의식, 작법, 사물속성반 : 상기 부문을 짧은 기간에 배우고자 하시는 분을 위하여 별도 지도함

- 강의시간 : 의식 초급반 (일반, 4개월), 매주(월요일) 오후 3시 ~ 5시
  의식 초급반 (속성, 2개월), 매주(화요일) 오후 3시 ~ 6시
  의식 중급반 (일반, 6개월), 매주(수요일) 오후 3시 ~ 5시
  의식 중급반 (속성, 3개월), 매주(목요일) 오후 3시 ~ 6시
  작 법 (일반, 10개월), 매주(토요일) 오후 3시 ~ 5시
  작 법 (속성, 5개월), 매주(일요일) 오후 3시 ~ 6시

마하불교대학(신행) 초급반 1기생 모집

- 모집기간 : **2003년 11월 25일 ~ 12월 25일까지** ●교 육 비 : 무료
- 첫개강일 : 2004년 1월 9일(금요일)오전 11시 ●수 강 일 : 매주(금요일) 오전 11시
- 차량주차 : 대구수협공판장 內(신암동 육교부근)

무량사 포교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7-14
전화 053)955-7725 휴대폰 011-9851-0108
원장 : 주 동주(동현) 합장

간(肝)이 염간 방간 경화 간…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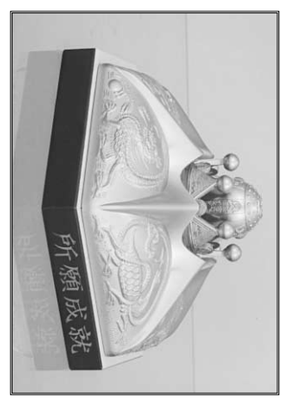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신비의 황금보물 **명당육氣방 051)865-9933**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46화)

"호자 나스레딘 이야기"

〈출전 : 잡아함경 제38;1063경;2-276상〉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 폭행 당한 기자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어느 야구선수가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했다고 떠들썩하다. 때리지 않았다는 쪽과 맞았다는 쪽의 입장이 팽팽해서 법정에까지 가게 될 모양이다. 대립하는 일이 생기면 늘 서로의 주장이 다른 것을 보며 선재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조금씩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야구선수가 힘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인 기자에게 동정의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결말은 알 수가 없다. 언론인이 갖는 사회적인 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든 힘이 있는 쪽이 이기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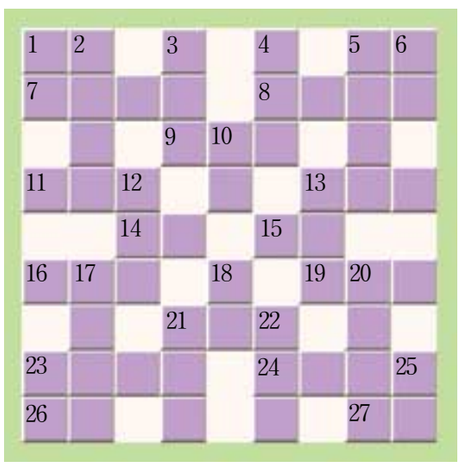
이런 일들을 보면 "원한을 갚되 원한으로 갚지 말라. 원한을 인내로써 갚으면 마침내 원한은 끝나나니 이것을 부처님의 법이라 한다"는 <법구경 분노품>의 말씀이 과연 우리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회의를 가져본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힘에 따라 좌우될 뿐, 선재가 믿는 부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바세계일까?

"칼이나 몽둥이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올바른 지혜에 기초한 방법과 수단으로 악을 멀리 해야 한다." <대반열반경>의 말씀이다. 일단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테니 기다려봐야겠다. "선도(善道) 가운데는 진실한 말의 선도가 제일이며, 모든 등불 가운데는 진실의 등불이 제일이며,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 중에는 진실한 말의 약이 제일이니라"는 <정법염처경>의 말씀을 선재는 또 믿어보려고 한다.

야구선수에게 맞았다고 소송을 제기해도 저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데, 경찰에게 맞는 기자들은 왜 제대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지, 또 집회 현장에서 피를 흘리는 노동자들은 왜 소송조차 할 수 없는 것인지 선재는 못내 의아스럽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 잘못을 뉘우쳐 깨달음 5. 연꽃 7. 중생과 자신이 동일체라 보는 불보살의 자비 8. 불교에서 4대(四大)라 말하는 것으로 땅 물 불 바람(한자어) 9. 어떤 일에 해당되는 바로 그 사람 11. 창고를 지키는 사람 13. 전생 이야기 14. 울 듯한 인상 15. 문을 닫음 16. 땅을 파거나 바위 등을 잘라내는 중장비, 포크레인 19. 새 가요의 발표나 노래 경연 등을 하는 행사 21. 공양 시간을 알리기 위해 치는 종 23. 연꽃의 공덕 중 하나로 어디서도 물들지 않고 늘 깨끗함 24. 물체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력 작용점 26. 분수를 지켜 도리에 맞게 행동하는 일 27. 삶과 죽음.

세로

1. 먼동이 트는, 밝을 녘 2. 두 무릎과 두 팔꿈치, 이마를 땅에 붙여 예배하는 것 3. 불교식 화장을 거행하는 장소 4. 하늘 땅 사람 5. 죽은 뒤에 극락세계의 연화좌대에 태어나는 것 6. 그림의 경향 10. 본래의 마음 12. 수평면에 대한 기울어짐의 정도 13. 한 가지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 17.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음, 곧 스님이 됨을 의미 18. 가라앉은 것이 떠오름 20.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함 21. 공평하고 올바른 가격 22. 절의 사무를 보는 곳 23. 일을 처리함 25. 깊이 생각함.

〈448호 「상식퍼즐」 정답〉

일	미		대		비		각	성
부	증	불	감		구	절	양	장
	유		독	각	승		각	
진	법	신		오		오	색	실
		중	심		초	대		
합	창	단		청		산	회	가
	해		회	향	문		자	
삼	일	수	심		지	극	정	성
신	속		곡		기		리	자

화제의 염주 북한염주
합격의행운을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必勝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합격필통을증정합니다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구직을 원하시는 분
◆고시준비 하시는 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연분을 찾고 계신분
◆투병중인 분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철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합격의 행운을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을 치루는 수험생과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과의 점수가 약 5~10%까지 격차가 나는 통계를 보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금강염주를 수험생 방에 걸어 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수험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등을 차단하여 건강이 약해지는 수험생들의 건강을 도와줍니다.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는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으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시험당일 수험생은 금강 108염주를 꼭 몸에 지니고 시험을 치르면 금강의 강한 기와 마음의 안정으로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영험의 필승 염주입니다.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농 협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02)723-0909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상쾌한 숙면 건강한 하루 신비의 은행석편지
베게속에 넣고 평생 사용으로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생명의 빛 생명의기
저는 북한에서 온 은행석 입니다. 구조상 특성과 화학적 조성으로 강한 흡착 및 살균작용으로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를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20분내로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이외도 고급 난초 및 나무등도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 등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거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목이 뻐근하며, 어깨가 뭉쳐있는 것도 없어지며 몸이 개운해 집니다. 또한 천식등 기침을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2시간 정도만 주무시고 일어나면 기침이 줄어듭니다.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희귀 광석으로 일부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을 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면 건강하고 장수하시는데 큰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음이온은 공기속의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cc당 약2.000個 정도 공급되는 음이온을 첨가한 은행석은 신경계, 혈관계, 근육계, 내분비계등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각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자율신경의 기능에도 효과적이며 항상 맑은 공기를 공급하여 항시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 합니다.특히 수면이 부족한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갱년기 주부님들,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뇌에 관한 병은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 지며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세요.
문의전화: 금강닥터사 (02)722-1850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氣가발산되는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문향이 은은하게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를 수입 하여 한정 판매합니다.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현으로 숭앙되고 있는 수행자이시며 포대화상 향로로 조각하여 많은 사찰 및 스님들께서도 소장 하고 있으며 불자님들의 집에나 사업장에 두시면 화를 쫓고 복과 행운이 오며 사업도 번창하고 소원 성취 할 것입니다. 힘든 세상에 웃음을 주며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을 베풀어주며 불심을 전파하고 포교 활동의 매체가 되도록 기원 합니다. 포대화상 향로는 정교한 조각 예술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 집니다. 또한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복 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예불시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최고의 포대화상 향로 입니다.
◈ 크기 : (대)가로26cm 폭15cm 높이16cm 가격 155.000원 (소)가로 20cm 폭12cm 높이16cm 가격 95.000원
(수공예품이라 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 3210-3170 /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달라이 라마 지음, 주민황 옮김, 넥서스북스, 1만1천원)

☐ **'티베트 라마가 전하는 행복에 이르는 길'** (라마 쇠바 린포체 지음, 주민황 옮김, 무우수, 8천5백원)

☐ **'달라이 라마의 행복에 이르는 길'** (달라이 라마 지음, 김은정 옮김, 경성라인, 9천원)

☐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방법, 선'** (데이비드 폰타나 지음, 곽형모 옮김, 들녘, 8천원)

☐ **'명상'**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지음, 김영호 옮김, 중명출판사, 9천8백원)

명상 수행

늘 깨어있는 삶을 살라

재가자들 위한 안내서 잇달아 출간

지난 11월 8일, 전국 선원에서 일제히 동안거가 시작됐다. 결제 기간 동안 수행자들은 산문을 나서지 않고 수행에만 정진한다. 하지만 수행이 꼭 산사의 선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늦가을, 세간에서 정진하는 재가자들의 수행을 돕기 위한 명상 안내서들이 쏠을 잇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마음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전에 가보지 못한 낯선 곳을 갈 때 지도를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다음 생이라는 미지의 세상으로 가야 할 때, 우리를 도와줄 안내자는 오직 우리가 닦은 수행뿐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저서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은 '불교를 광범위하게 연구할 시간이나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수행지침서다. 그는 이 책에서 60여 년간 몸소 체득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자신의 경험을 적절히 곁들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평화로운 삶과 평화로운 죽음은 둘이 아니다"는 달라이 라마는, 평소 삶을 올바르고 의미 있게 산 사람이라면 죽음을 수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제멋대로 굴고 반항하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늘 깨어 있는 삶(지계바라밀)'과 '인내(인욕바라밀)', '자신감(정진 및 보시바라밀)', '명상자의 수행(선정바라밀)', '지혜(지혜바라밀)' 등으로 장을 나누어 명상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과정과 수행법을 설명하고 있다.

수행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티베트 불교 수행자들이 말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 <티베트 라마가 전하는 행복에 이르는 길>과 <달라이 라마의 행복에 이르는 길>은 공성(空性)과 연기법을 깨닫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 즉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한다.

<티베트 라마가 전하는 행복에 이르는 길>에서는 티베트 불교 지도자 중 한 명인 라마 쇠바 린포체가 불교란 무엇이며,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에 임해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다. 이 책은 쇠바 린포체가 네팔의 동굴에서 수행하던 중 읽게 된 <불교에 입문하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단계적 수행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첫째 단계>의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단계적 수행인 '람림(Lamrim)' 수행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에 이르는 길> 역시 '람림(Lamrim)' 수행의 기원과 예비수행의 요소, 본격적인 람림 명상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명상수행 입문서'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명상을 위한 준비단계부터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명상전문가인 데이비트 폰타나 박사가 지은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방법, 선>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29단계의 체계적인 명상수행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어떻게 '선(禪)'이 우리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해주는지를 밝힌다.

"명상은 '있는 그대로(실상)'를 보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명상>은 '현대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크리슈나무르티(1895~1986)의 사상과 가르침을 59개의 글로 정리한 책이다. "명상은 삶의 일부로, 세상과 세상의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다"는 크리슈나무르티는 특정한 종교나 철학을 내세우지 않고, 명상이란 모든 갈등과 투쟁을 배제한 채 '생각을 멈추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공부하기 좋은 계절,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명상 · 수행 관련 서적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평상심 · 평등 · 돈오 등 부처님 가르침 부분 발췌



'불교로 보는 채근담'

홍자성 지음 / 장연 옮김

들녘 / 1만2천원

'직장인이 알아야 할 처세술,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독서….'

요즘 서점가에는 처세술에 관한 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임기응변식의 해결책이나 대안이 아닌 정신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책은 없을까? 중국 명나라 말기 홍자성이 쓴 <채근담>은 인생의 참뜻과 지혜를 담은 경구들을 모은 고전이다. '사람이 항상 채근(採根)을 씹을 수 있다면 백사(百事)를 이룰 수 있다'는 소학(小學)의 구절에서 이름을 딴 <채근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다.

"가정에 하나의 참 부처가 있고 일상 속에 하나의 참 도가 있나니, 사람이 성실한 마음과 화평한 기운, 즐거운 얼굴과 부드러운 말씨로써 부모 형제로 하여금 아무 허물없이 뜻을 통하게 할 수 있으면, 이는 호흡을 하고 마음을 관하는 수행보다 공덕이 만 배나 더하리라."

<불교로 보는 채근담-선자의 방망이와 외침>은 이처럼 <채근담>의 구절들 중 평상심, 평등, 돈오 등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구절을 가려 담은 책이다.

유교와 도교를 조화시킨 <유교로 보는 채근담-인자의 너그러움>과 <도교로 보는 채근담-지자의 너그러움>도 함께 선보인다. 여수령 기자

화엄경 100일 강설내용 정리



'탄허 강설집'

탄허장학회 엮음

불광출판부 / 2만원

평생을 불전역경과 인재양성에 매진한 탄허(1913~1983) 스님. 22살에 입산해 채 2년도 안돼 <금강경>과 <육조단경>을 강의했던 스님은 평생에 걸쳐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등 전통강원의 교재를 번역 출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중에서도 <신화엄경합론>은 화엄경 80권과 청량국사 소와 초, 그리고 이통현 장자의 논까지 곁들인 것으로, 스님이 하루 14시간씩 10여 년간에 걸쳐 완성한 역작이다. 원고지 분량만도 6만3천여 장에 달하는 이 책은 <화엄경>을 집대성한 금자탑으로 꼽힌다.

스님은 1977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신화엄경합론>을 주제로 3개월간 백일법문을 열었는데, 이 내용을 풀어 정리한 것이 <탄허 강설집 현토역해 신화엄경합론>이다. 해주 스님(동국대 교수)이 강설을 녹음한 테이프를 3년에 걸쳐 정리했다.

이번에 선보인 권1에는 스님의 강의 내용 중 화엄요해가 수록된 내용을 담았다. "서문만 잘 읽어도 화엄경의 대의(大意)가 다 드러난다"고 역설한 스님의 말처럼, <탄허강설집>에는 화엄경에 펼쳐지는 세계관과 우주관 등을 쉽고 거침없이 설명하고 있다. 대중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변하는 모습에서 "법당 100개 짓는 것보다 인재 한 명 길러내는 것이 낫다"고 설파한 탄허 스님의 인재양성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다. 녹음한 부분이 유실되거나 테이프가 끊겨 강설이 누락된 부분은 교재의 본문내용만 수록했다. 여수령 기자

새로나온 책



■<평화를 이루는 지혜>(데이빗 채플 엮음, 진월 스님 옮김, 불교시대사, 8천5백원)= 생명과 평화,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세계 불교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의 글을 묶었다. 책을 엮은 데이빗 채플 교수는 "이 책에 실린 글은 내적 평화를 찾게 해주는 불교가 사회의 조화와 인권, 환경적 균형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말한다. 달라이 라마와 틱낫한 스님을 비롯해 마하 고사난다 스님, 세계여성불자연합회장 카르마 렉세 쏘모 스님의 글 등이 담겨 있다.



■<전통사찰총서>(사찰문화연구원, 1만2천원)= <전통사찰총서> 시리즈 18번째 권 '부산 · 울산 · 경남의 전통사찰 Ⅰ'이 나왔다. 영남불교를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사찰인 부산 범어사(조계종 제14교구 본사)와 통도사의 말사인 울산 석남사, 창원 불곡사와 성주사 등 57개 사찰이 소개되어 있다. 쌍계사와 통도사, 해인사를 비롯한 70여 개 사찰을 담은 '경남의 전통사찰 Ⅱ'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어린이의 새벽>(함재수 지음, 관음출판사, 9천원)= 아동문학작가이자 한국불교청소년포교문제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합재수 법사가 <어린이의 새벽>을 펴냈다. 아동문학을 어린이 법회 교재로 각색한 이 책은 부처님의 생애와 수행일화를 배역에 따라 직접 낭독해 봄으로써 참의미를 깨우칠 수 있게 꾸며졌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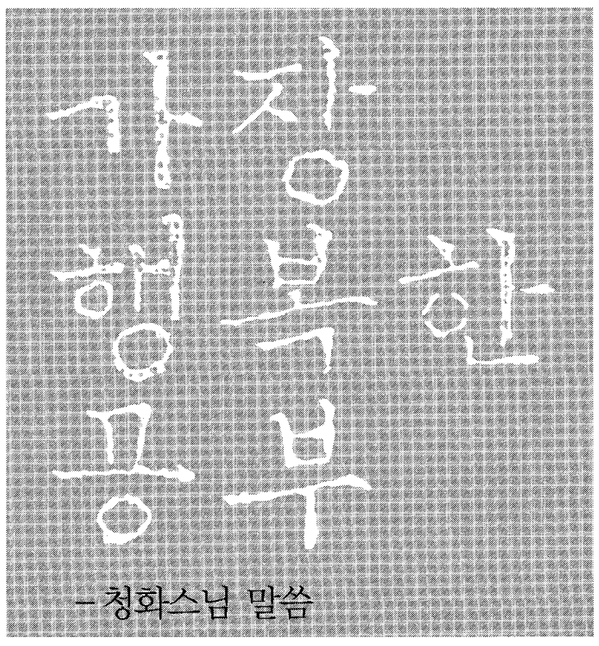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법전 스님	조계종출판사
2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 공 사
3	완벽한 참선법	우학 스님	좋은인연
4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혜봉 거사	불 광
5	산중일지	현직 스님	지 영 사
6	불자의 살림살이	우룡 스님	효 림
7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8	부처 통곡하다	정 동 주	이 룸
9	틱낫한의 비움	틱 낫 한	중앙M&B
10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카렌 암스트롱	푸 른 숲

도서 안내 :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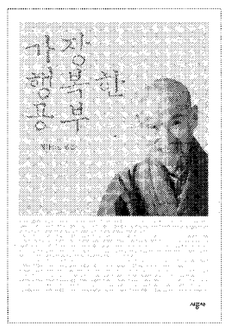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전화 (02)588-0833 팩스 (02)588-0835 www.sigongsa.com 시공사

청화스님이 남긴 맑고 깨끗한 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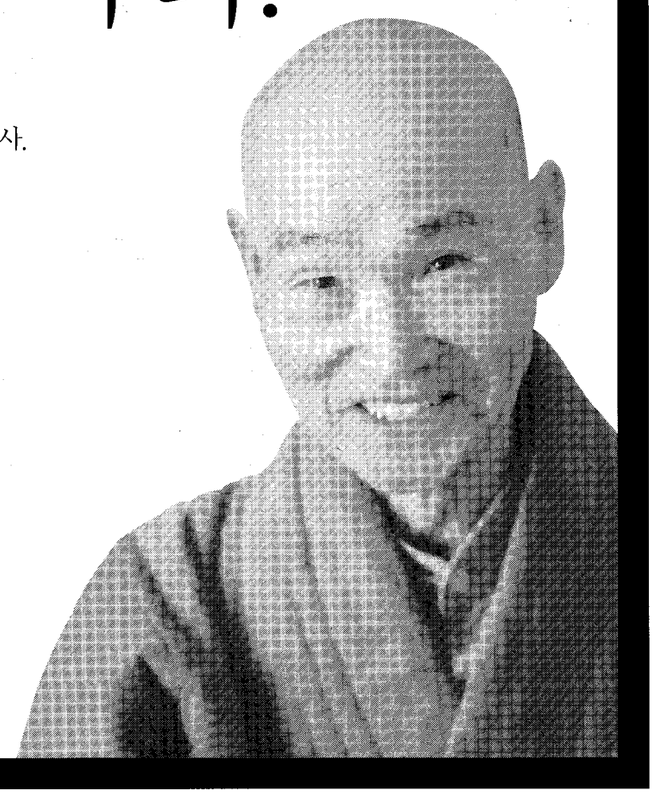


하루도 바닥에 등을 대고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 하루 한 끼만의 식사.
그 수행만으로도 대중을 감화시킨 우리 시대 큰스님 청화스님.
더 이상 스님을 뵐 수는 없지만 깨끗한 수행, 위대한 가르침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부'로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저 세상
오고감을 상관치 않으나
은혜 입은 것이 대천계만큼 큰데
은혜를 갚는 것은 작은 시내 같음을 한스러워할 뿐이네.
— 열반송

● 청화스님 말씀 | 신국판 | 269쪽 | 컬러 화보 | 값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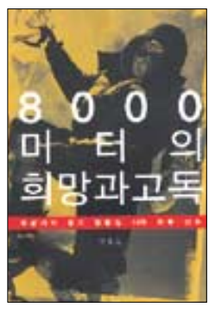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본 것은?

'8천미터의 희망과 고독'

엄홍길 지음

이레 / 9천8백원





히말라야 8천m급 14좌란

히말라야는 해발 8000미터가 넘는 봉우리 14개를 비롯해 7000미터급 산 350여 개를 거느리고 있다. 이중 각각 네팔(칸첸중가, 마칼루, 로체, 에베레스트, 초오유, 마나슬루, 안나푸르나, 다울라기리), 중국의 국경(시샤팡마)과 파키스탄(가셔브룸1, 가셔브룸2, 브로드피크, K2, 낭가파르바트) 지역에서 하늘로 솟구쳐 있는 지상에서 가장 높은 이 14개의 봉우리들을 가리켜 '히말라야 8000미터 14좌'라고 한다.

'끝없는 도전'

박영석 지음

김영사 / 9천9백원





설산에서의 사투와 등반 뒷얘기 정상정복의 감동 진솔하게 그려

비슷한 시기에 히말라야의 8천m급 14개 봉우리를 각각 완등한 세계적인 불자 산악인 엄홍길씨(43)와 박영석(40)씨가 험난했던 도전의 기록을 나란히 한권의 책으로 묶었다. <8000미터의 희망과 고독>과 <산악인 박영석 대장의 끝없는 도전>이다. 다루는 범위와 내용은 다르지만 두 책 모두 주무대는 히말라야다. 14개 산 정상에 완등한때는 엄홍길이 2000년, 박영석이 2001년으로 엄씨가 1년 앞선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게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살을 저미는 혹한과 싸우면서, 발목이 부러지면서도, 또 동료들을 설산에 묻으면서도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산에 오르는 산사나이들이라는 점에서 경외감을 느끼게 할 뿐이다. 두 책 모두 등반대 구성에서부터 설산에서의 사투와 정상에서의 감동적인 순간까지 진솔하게 털어놓고 있다. 엄씨는 지난 2000년 7월 K2에 오르며 아시아 최초로 히말라야 8천m급 14개 봉우리를 모두 등정했다. 그러나 엄씨는 지난 85년부터 16년 동안 14번의 실패를 경험했고 동상에 걸려 오른쪽 발가락 일부를 잘라내기도 했다.

산에 젊음을 바친 동료 대원과 셰르파들의 희생도 따랐다. 때문에 엄씨는 1998년 안나푸르나 등정시 7700미터 지점에서 추락했던 사고를 가장 잊혀지지 않은 등반 기억으로 꼽는다. 추락하는 세르파를 구하려다가 같이 추락했는데 줄이 엄씨의 몸에 걸리면서 엄씨만 천신만고 끝에 살아 날 수 있었다. 이때 엄씨는 "동료대원의 죽음을 겪어야만 산을 오를 수 있는 것인가"라며 절규한다. 그러면서 "오르고자 하는 열망을 버리는 만큼 정상의 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대자연과 마주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경건하고 또 경건한 마음을 지녀야 할 뿐"이라고 털어놓는다.

박영석씨는 11월 16일 남극점 원정길에 다시 나섰다. 박씨가 이번 원정에서 남극점을 밟게 되면 세계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 달성에서 북극점만 남겨두게 된다.

박씨의 등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다. "다울라기를 오를 때였다.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는데, 갑자기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눈덮인 히든 크레바스였던 것이다.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내 몸은 끝을 알 수 없는 크레바스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이 사고 때 박씨는 배낭끈이 얼음 기둥에 걸려 생명을 건졌지만, 7명의 대원들은 히말라야에 묻고 와야했다.

이렇게 갖은 고생을 다해 올라간 정상에서의 느낌에 대해 박씨는 "정상에서 본 세상은 아득하고 낯설었다. 인간이 자랑스럽게 쌓아올린 온갖 문명이 그곳에서는 작고 사소한 점으로만 존재했다"고 털어놓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게으름의 즐거움'

피에르 쌍소 외 지음

함유선 옮김

호미 / 7천원



천천히 느릿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물음은 적어도 때때로 게으르게 살아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쫓기듯 앞만 보면서 뛰어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화두 자체가 빠져 있기 일쑤다.

<게으름의 즐거움>은 단지 느리고 한갓지게 사는 것이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데 그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예찬이라고 해도 좋을만한 언사로 게으름과, 느림, 멈춤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삶의 질을 얼마나 끌어 올리는지 이리저리 풀어헤쳐 보인다. 여기에는 작가나 철학자의 맛깔스럽고 울림이 남는 글이 있는가 하면, 정원 설계사나 물리학자의 색다르고 풋풋한 글도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1부는 '게으름 누리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1999년 프랑스TV '카날 플뤼스'가 방영한 다큐멘터리 '게으름의 전자파들'과 '왜 일을 하나'에 근거를 두고 있다. 2부는 '시간, 멈추어 버린'이란 부제로 작가와 학자, 기자로 있는 여섯 사람이 쓴 에세이를 다발로 묶어 놓은 것이다. 글 사이사이에 들어 있는 사진들은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만든다.

피에르 쌍소는 이 책에서 특유의 사유방식에 따라 게으르게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찬찬히 늘어 놓는다. 게으름은 어디 아픈 것처럼 꼼짝도 하기 싫어하는 증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천천히, 느리게, 있는 그대로' 삶을 누리려는 몸가짐이자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책장을 넘기다 보면 '생존경쟁을 위해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언제나 올 수 있을까' 되묻게 만든다.

김주일 기자

전문가 서평



'굶주리는 세계'

프랜시스 라떼 외 지음 / 허남혁 옮김

창작과비평사 / 1만2천원

기아 해결방안 개인 도덕성서 찾아

아주 오래된 농담 하나.

한국의 초대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어느 날, 쌀이 없어 밥을 해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빵을 먹으면 될 텐데."

서구인으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 즉 상식에 입각한 말이다. 그런데 이 상식이라는 것이 호두껍질처럼 단단해져서 진실마저 가둘 정도가 되면 '신화'가 된다.

'식량에 관한 열두 가지 신화'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굶주림의 원인이라고 세상에 유포된 상식이 사실은 허구임을 밝히는 책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말하는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가 아니라, '굶주림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믿는 왜곡된 상식을 말한다. 그렇다고 이 책이 선동적이거나 거칠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다. 오히려 문학적으로 보일 만큼 단정한 문장에,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다.

'식량에 관한 12가지 신화' 통해 다각 분석

이 책의 지은이들은 "굶주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굶주림을 종식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믿는다. 그들이 말하는 장애물, 즉 신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식량이 충분치 않다. 따라서 불행하게도 일부에서는 굶주릴 수밖에 없다." 과연 그런가. 이에 대한 지은이들의 반론은 이렇다. "오늘날 전세계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3500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곡물을 생산한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을 비만하게 만들고도 남을 정도이다." 식량은 풍부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건 일부 부유한 나라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굶주림이 일상화된 제3세계에서도 식량은 풍부하다는 것이다. 한 예로, 인도의 경우 적어도 2억 명의 국민이 굶주리지만 인도는 전세계 3대 농업 수출국 가운데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인구 과잉이 문제다, 기근 문제 해결과 환경보호는 양립 불가능하다, 식량증산만이 해결책이다, 형평성의 증대는 생산량의 축소를 가져온다, 시장만이 옳다…'는 등의 상식에 대해서 지은이들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중 상당수는 다소 타당한 면이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원리들이 굶주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정하는 일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관점 또한 흐리게 한다는 것이 지은이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그것을 살피기 전에 신화를 논박하는 지은이들의 사고를 관통하는 키 워드를 하나 찾아보자. '인권!' 바로 그것이다. 지은이들은 육체적인 척도로 굶주림을 바라보지 말 것을 제안한다. 보편적인 감정의 차원에서, 굶주림은 '고통'이고 '슬픔'이며, '굴욕'이자 '공포'라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부자들의 수요에만 반응하는 시장의 경제적 독단을 넘어서, 숭고한 가치에 봉사하는 책임 있는 소유를 하자는 것이다.

이 책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논거를 찾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해결책은 개인의 도덕적 각성에서 찾는다. 민주주의의 확대를 정치인이, 시장의 문제 해결을 기업이 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자본의 속성을 꿰뚫어 보는 그들의 시각은 학자라기보다는 영성을 깨우치는 구도자에 가까운 듯하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문제, 즉 누구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를 완전한 인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서두의 발언이나, "수많은 미국인들이 물질적 소유가 삶을 만족시키는 열쇠라는 생각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깨닫고 있다"는 말미의 진술은, 극단적으로 물욕에 엄격한 스님이나 신부를 연상하게 할 정도이다. 바로 이 점이 이 책의 진정한 매력일지도 모르겠다. 자본의 폭력성에 저항하여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개인이 늘지 않고는 결코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책의 지은이는 푸드 퍼스트(Food First)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식량과발전정책연구소'의 연구원들로, 빈곤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나 반세계화운동의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각 장의 끝에 옮긴이가 붙인 해설은 북한 식량 문제 등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은 2003년 9월 10일 멕시코 깐군에서 신자유주의와 무역자유화에 반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경해씨에 대한 헌사로 바쳐졌다. ■윤제학 / 본지 논설위원

<굶주리는 세계>는 '푸드 퍼스트'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식량과발전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으로 굶주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열두 가지 신화를 통해 분석한다.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차량용 가정용

사용처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사용후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향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몰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걱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것입니다.

제조원 산 Mountain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헌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도



정치와 평화

세상이 혼란스럽다. 그런 만큼 심리적인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떠한 명분이든 사람의 생명이 걸린 전쟁이 아직도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전쟁의 위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죽이고 죽는 과정에도 명분은 필요한 것인가? 민족이니 인권이니 세계적 정의니 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이러한 단어들은 결국 또다른 집단 이기주의의 산물에 다름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놓고 본다면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 보다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파병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반도의 현실로 다가와 있는 이 마당에 인간 세상에 평화는 가능한 것인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 사랑도 평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 필자는 이 상황에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 아쇼카대왕을 떠올리고자 한다.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대왕(기원전 268-232)은 부왕의 뒤를 이어 전인도의 통일을 위해 정복 전쟁을 벌였다. 그는 왕위에 오른지 8년만에 인도의 동부지방에서 벌어진 칼링가 전쟁의 승리로 전인도를 통일하는 대업을 완수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에서 숱한 민간인들이 참혹하게 죽어간 모습과 폐허가 된 마을을 보면서 통탄하게 된다. 이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정법통치를 통해 인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아쇼카왕은 왕과 귀족들이 오락으로 행하던 사냥을 금지시켰고, 인도 각 지방을 돌며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대대적인 자선사업을 벌여 각처에 고아원과 양로원, 병원 등을 세운다. 뿐만 아니라 길가 마다 우물을 파지나가는 나그네와 동물들이 먹게 했으며, 국고를 풀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하였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약초와 과일나무를 심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도로에는 표지판을 세우고 가로수를 심거나 휴양소를 세워 여행자들의 편리를 도모 하였다. 칼과 전쟁 대신 부처님 말씀에 따른 정법정치를 시행한 결과 국민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며,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부처님의 말씀은 용서와 화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화는 파세나디 임금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이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인데 코살라의 파세나디왕과 마가다의 아자타삿투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자타삿투왕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처음에 파세나디왕의 패배로 시작된다. 파세나디왕은 겨우 몸만 빠져 나와 사위성으로 돌아왔다.

이 전쟁이 있은 얼마 후 아자타삿투왕은 아예 코살라를 없앨 심산으로 다시 군사를 일으켰으며, 이 전투에서 파세나디왕은 마가다국의 군대를 궤멸시키고 아자타삿투왕까지 사로잡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독실한 신도였던 파세나디왕은 아자타삿투왕을 놓아주기로 작정하고 부처님을 찾아가 '아자타삿투왕은 나의 친구 빔비사라왕의 아들이므로 그를 놓아주겠다'고 밝혔다. 이긴다 한들 끌내는 원한만 더욱 커질 뿐이므로 차라리 그를 놓아주어 국가적인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파세나디왕의 뜻이었던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분노와 미움에서 찾을 수는 없다. 그것은 백성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용서에서 가능하다. 파세나디왕과 아쇼카대왕이 그렇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이들의 용기에 찬사

인간 존엄성 어떠한 가치보다 우월

용서·화해로 통합될때 진정한 평화

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정치의 본분은 백성을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통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희생되지 않으면 안될 숱한 중생들의 고귀한 삶과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법구경> 안락행품의 게송을 음미하는 것으로 잠든 우리들의 내면을 일깨우기로한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거니 원한 지닌 그 속에서 성내지 안노라. 흔히들 모두 원한 있어도 나의 가는 길엔 원한 없도다./ 승리할 때는 원망을 사고 패배할 때는 열등감에 빠지나니, 승패에 매이는 마음 떠나야 다툼 없어 스스로 평안해지리다./ 열(熱)로는 애욕보다 더함이 없고, 독으로는 성냄보다 더함이 없다. 고(苦)로는 몸보다 더함이 없고 즐거움으로는 열반보다 더함 없도다./ 병없이 건강함은 더 없는 이익, 만족할 줄 아는 것은 더 없는 부귀, 두터운 신의는 더 없는 친구, 열반은 더 없는 행복이니라/ 법을 생각해 수지하는 그 맛을 알고 온갖 망상 그치는 뜻 생각한다면, 다시는 열도 없고 굶주림도 없으리니 진리의 음식을 먹도록 하라"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가운데)이 손상좌인 주경스님(오른쪽)과 정암스님(왼쪽)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있다.

"아는게 너무 많아도 걱정이지"

법어집 '덕숭산 법향' 봉정식 원담스님, 기자들과 일문일답

웃는 모습이나 납자들을 대하는 행동이 순수하고 맑아 '천진불'로 불리는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

최근 발간된 원담스님의 법어집 '덕숭산 법향' 봉정식과 78번째 생일 하루 전인 11월18일 저녁에 수덕사에서 교계 기자들과 함께 원담스님을 만났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항간의 얘기와는 달리 스님은 밝은 표정에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건강하고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건강이 어떠냐고 여쭈었더니 "좋아요, 밥도 잘 먹어요" 하신다. 법어집이 나온 소감을 묻자 "잘 나왔어요" 하시면서도 대뜸 "법어집 자체가 잘못이에요. 법어집이 없으면 시비도 없을 텐데 법어집이 나왔으니 삼라만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다.

손상좌인 주경스님(총무원 총무국장)과 정암스님(수덕사 박물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스님의 결손함이야 이미 다 알려졌듯이, 아상을 세우는 법이 없고 늘 솔직하다고는 하지만 다소 의외의 말씀이었다.

▲법어집에는 없지만 대중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 만공스님의 가르침은?
삼라만상을 다 가르치셨어요

■ 수행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지

■ 마지막으로 하실말씀은…
할말 다했다. 부지런히 일어나 가거라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습니까?
-얘기하면 알겠나. 알지 못할 말을 왜 물어보나.
▲책(법문집)을 봐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다행이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도 걱정이지.
▲저는 모르는 게 많아서 걱정입니다(수덕사 박물관장 정암스님)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더니 이내 웃으시며 정암스님에게 꿀밤을 놓으신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질문에 대한 말씀은 꼭 한 마디씩뿐이다. 말씀이라도 길게 하시면 행간에서 어림잡아보기라도 하련만…, 게다가 알 듯 말 듯한 선문답이다.

▲만공스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삼라만상을 다 가르치셨어요.
▲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까?(총무원 총무국장 주경스님)
-(주경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원담스님이 주경스님에게도 꿀밤을 놓는다.)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원담스님은 그런 기자들을 손자 바라보시듯이 웃으며 편안한 눈으로 응시한다. 이때 원담스님을 모시고 있는 시자 법보스님이 말했다. 8년째 스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으니 원담스님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읽는 스님이다.

"납자들이 오면 시험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스님은 절대로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주먹을 들어 보이시며 '표현해 보라'고 하십니다. 부처님의 염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7시 ~ 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리고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3년 11월 29일 토요일**
군자전철역 4번출구 → 법왕정사 건너편 5번출구 능동주유소 앞 4시 30분 출발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망

국제 수준의 타로(TAROT) 카드 교육 실시

1. 타로카드 교육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타로(TAROT)카드를 국제 수준에 맞게 배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양에 주역이 있는 것 처럼 서양에는 타로카드가 있어 왔습니다.
타로카드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을 점치는데 쓰입니다.
1. 연애와 결혼 2. 인간관계 3. 금전문제 4. 사업문제 5. 일 자리 찾기
이밖에도 인생의 온갖 과정에서 선택, 결단, 결정을 내리는 데도 쓰이며 연구 개발, 사업기획, 정책입안, 문제해결의 길을 찾는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저 카드를 보면서 상상을 하기만 해도 정신수련, 마음수련, 정신위생, 우뇌훈련, 상상력훈련에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우리 국제타로학원에서는 지난 1년여에 걸친 준비를 완료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타로카드의 단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재로 쓰이는 타로카드도 오리지날 마르세이유 타로카드를 현대에 복원한 카모왕판 마르세이유 타로카드를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카모왕판 마르세이유 타로카드 1세트 35,000원
● **교육일시**
- 1차 제1단계 : 03년 11월 22일(토) ~ 23일(일) 선착순 24명
제1단계 : 03년 11월 29일(토) ~ 30일(일)
제1단계 : 03년 12월 6일(토) ~ 7일(일)
제2단계 : 03년 12월 27일(토) ~ 28일(일)
제3단계 : 04년 1월 24일(토) ~ 25일(일)
- 2차 제1단계 : 04년 1월 3일(토) ~ 4일(일)
제2단계 : 04년 1월 31일(토) ~ 2월 1일(일)
제3단계 : 04년 2월 21일(토) ~ 22일(일)
● **참가비 :** 각단계 12만원 균일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2. 레이키(Reiki)교육
레이키에서는 10시간이면 누구나 氣에너지 요법가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키에는 어튠먼트라는 특유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氣요법가격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어튠먼트는 우리의 온몸을 단전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 교육기간 2-3일 전수비 50만원**
● **카루나 레이키 : 교육기간 1일 전수비 30만원**
국제타로학원(한글도메인)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박희준)
인터넷 www.Reiki.co.kr
◇ **전화 : 02)720-5682. 720-5719 핸드폰 019-392-255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809호**

역학계의 거두 한중수 선생의
역학(易學)특강안내

거센 삶의 파도를 넘고 있는 고단한 현대인들, 굽이치는 인생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길잡이를 간절히 원합니다. 타고난 운명을 읽을 수 있는 전통의 "동양역학 전문지식"을 전수받아 그들의 카운슬러가 되십시오.

40여년 동안 역학분야의 전문서적을 저술한 정통역학자로서 『역학대사전』 『운명학사전』 『성명학』 『택일』 『육효학』 『대명당보감』 등 50여 종의 역학 전문서적을 집필한 한중수선생 직강

● 대 역학자가 되고 싶은 분 ● 역학 전 분야의 상식을 얻고 싶은 분
● 역학 상담사 (전화상담, 철학관 운영, 자격증 취득 희망자)
● 심리 상담사, 결혼 상담사, 공인중개사 등 역학 접목이 필요한 분

■ **교육일정**

구 분	과 목	편성내용	기 간	교육시간
주말반	명리반	기초반, 고급반	각 3개월	14:00 ~ 17:00
주말반	육효반	완성반	각 3개월	14:00 ~ 17:00
주중반	명리반	기초반, 고급반	각 3개월	19:00 ~ 22:00
주중반	육효반	완성반	각 3개월	19:00 ~ 22:00
특별반 : 수시로 탄력적 운영!				

※ 강의 교재 외 보조교재 (응용이해에 입체성으로 작성)
※ **명성 역학원 원장 지산 허용일 선생, 수강요청시 무료 보충교육 (수시)**
■ **특별반 초청강사 (과외)**
❶ 소리, 성명학 (조중형 선생) ❷ 구성학 (한인수 선생)
❸ 타로카드 (이재학 선생) ❹ 대정수 (박명관 선생)
■ **특 전**
❶ 전화 상담사 취업 알선
❷ 수료 후 수료증 수여 (자격증 가능)
❸ 매월 장학생 선발 1회 시험 실시 후 장학금 수여
■ **교육비** ..... 매월 300,000원
■ **교육장 및 접수** ..... 사당역 본원 (2 · 4호선 환승역 5번 출구에서 약 50m)
■ **모집방법** ..... 각반 선착순 30명
교육주관 **역학전문교육 명 성 원**
신청 및 문의 02)521-8425/8426/8428 FAX:02)521-8434
E-mail : jisan6821@hanmail.net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無一 우학스님의 신간!
완벽한 참선법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대립화, 차별화하지않고 서로 보완, 통합시켜주는 참선법으로서 단계별 수련을 제시하고 있다.



글·그림·사진
無一 우학스님
현재 영남불교대학·관음사에서 회주의 소임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금강경 핵심강의, 길손여행, 달마대사 등 다수가 있다.

4×6변형 / 칼라 256쪽 / 정가10,0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영남불교대학·관음사 부속출판사
전화(053)475-3707 팩스(053)475-3706 E-mail buddhabook@hanmail.net

화미소를 항상 따지시고 공안에 빠지지 말고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법어집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을 주신 것은 한마디도 이를 말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깨우치라는 뜻입니다. 책을 보고 있으면 '책 보지 마라' 고 호통을 치시곤 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야만 스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들에게)왜 방장스님에게 만공스님을 물으십니까?(정암스님)
–(귀를 만지시면서) 귀가 가려워서 그랬을 테지
▲후학들에게 받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있지, 있어. (손가락을 펴 보이시며) 적어라, 내 모습 그대로다.
▲수행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길이 수행자의 길이지.
▲한국불교 발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한 기자를 가리키며)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야.
▲(정암스님이 웃으면서)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빙그레 웃으시더니) 그래, 너 같은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

시자 법보스님이 원담스님의 말씀을 받았다. "스님께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쪽저쪽 얘기를 똑같이 들으셨는데, 그때마다 양쪽 모두 옳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항상 중도를 지키셨지요. 잘잘못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쳐야 한다는 무언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법보스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당신 같은 사람' 도 '너 같은 사람' 도 필요하다고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별 것 아닌 것 같이 웃으며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는 헤아리기 어려운 가르침이 숨어있는 것이다.

▲재가 수행자의 바른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사부대중의 화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일 좋은 말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악' 하고 할을 하신 뒤 할 말 다했다. 부지런히 일어나 부지런히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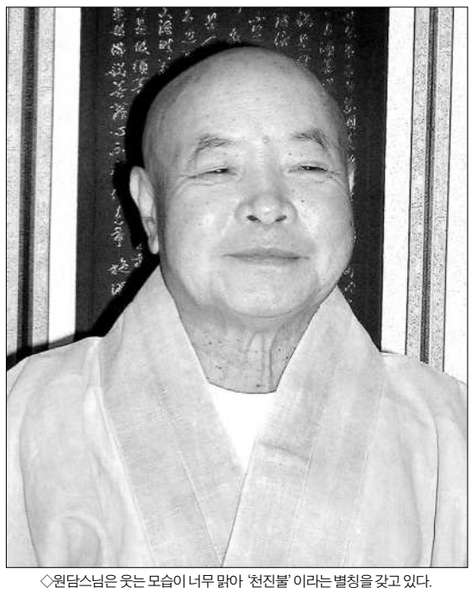
다음날인 19일 법어집 봉정식이 끝난 뒤 상좌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으로부터 원담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수덕사에는 조사선, 선농일치, 표리일체, 무소유의 네 가지 가풍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방장스님은 이 네 가지 모두를 구족한 분입니다. 제가 스님을 존경하고 곁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수덕사 스님들도 "치열하게 수행하면서도 걸림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크기' 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한다.

수덕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깨달음은 바로 내안에서 이뤄져



◇원담스님은 웃는 모습이 너무 맑아 '천진불' 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원담스님은? 1926년 전북 옥구에서 태어나 12살에 출가했다. 16세가 되던 1941년 벽초스님을 은사로, 만공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1943년 만공스님에게 전법게를 받았다.

1970년 수덕사 주지에 오른 이후 1984년 덕숭총림을 개설했으며, 1986년 덕숭총림 제3대 방장에 취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수덕사 염화실에 주석하고 있다.

원담스님은 평생을 수행에만 몰두해 온 수행자다. 경허–만공–혜암–벽초 스님의 선지(禪旨)를 이어 덕숭산문의 선풍을 중흥시켰으며, 오늘의 한국불교 선풍을 진작시키는데 누구보다도 큰 기여를 해 온 원담스님. 1994, 1997, 2001년에 이어 올해 3월까지 모두 네 차례 본지를 통해 말씀하셨던 원담스님의 법어를 요약한다.

원담스님 법어내용 요약

참된 삶 살려면 모든것 놓아야
믿음은 부처를 찾아가는 발판

흔히 사람들은 행복을 얘기합니다. 행복을 찾아 헤매다 지쳐 집에 돌아와 담 넘어 매화가지에서 꽃망울 터진 것을 보고 봄이 옴을 느꼈다고 하듯이, 실로 우리는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를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스스로 몸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밖에서 진리를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만인이 귀착해야 할 깨달음은 멀리서 다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모양 지어진 것에 집착하지만 잡으려 들면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끝없는 방황과 착각과 고통에서 허덕일 뿐입니다. 답은 부처님이 주셨듯이 방하착(放下着)하십시오. 진실로 삶의 참된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때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이 나툴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일념으로 참선을 해 보십시요. 미묘한 지혜가 나오며 천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이 나옵니다. 그러나 참선을 할 바에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생각조차 버려야 합니다. 참불자가 되겠다고 원을 세웠으면 반드시 궁속에 도달해야 할 깨달음을 목숨 걸고 구하십시오. 죽는다는 그 마음조차 버리고 용맹정진 하세요. 행주좌와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마음을 쏟으란 말입니다.

믿음은 부처를 찾아가는 발판입니다. 이 믿음은 교회에서 신을 믿는 것처럼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어 '참나' 를 찾는 것입니다. 참나는 보고 들어서 얻는 지식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니, '나' 라는 생각만 해도 그것은 벌써 내가 아니며 나를 찾는 그 놈을 찾아야 합니다.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천호스님(3)

길은 달빛을 따라 살아난다. 달빛을 받으며 걷는 사람은 언제나 길을 만난다. 그래서 달빛이 비추인 길은 언제나 행복을 의미한다.

수계를 한 천호 스님은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백일기도를 입재했다. 살을 에는 듯한 오대산의 바람, 그리고 무릎을 덮는 오대산의 눈은 언제나 기도를 위해 보궁에 오르는 스님에게는 큰 장애였다. 그중에서도 새벽기도를 나서는 길의 어려움은 가장 큰 장애였을 것이다. 그 길은 언제나 첫 길이었다. 눈이 내려 인적(人跡)을 지운 그 첫 길을 스님은 걸어 새벽기도를 다녔다. 새벽기도를 나서는 천호 스님의 모습을 보며 첫 길을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했다.

'눈 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말라. 그대가 낸 발자욱은 뒷 사람의 길이 된다.' 는 말은 스님을 두고 한 말인 것만 같았다. 첫 길을 걷는 사람, 그 의미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의 발자욱은 정연했다. 난분분하게 쌓인 눈 길에 발자국 하나 하나를



그림 · 문병성

가지런하게 찍으면서 그는 보궁에 올랐다.

그가 남긴 발자욱을 보면 누구나 새벽기도를 나선 수행자의 발자욱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눈 위에 남긴 발자욱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자세 또한 마찬가지였다. 원칙과 진실과 순수를 그는 인생이라는 시간의 길 위에 정연하게 찍으며 살아가고 있다. 단 한번도 어지러운 발자욱으로 남겨진 길을 나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발을 뺀으면 벽에 닿을 것만 같은 작은 방에서 그는 동상에 언 귀를 비비면서 손에 책을 들었다. 기도를 하면서 어록과 경전을 열심히 읽었다. 행자때는 시집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는 경전을 보는 그는 이미 책이 바뀌었듯이 변해가고 있었다. 그 변화는 단절이 아니라 존재의 심화와 확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전히 진절하고 따뜻했지만 그 친절과 따뜻함은 행자때와는 다른 것이었다. 친절과 따뜻함의 이유를 이제는 알아버린 사람만 같았다.

스님의 백일기도는 백일을 넘고 삼백일을 넘어서야 끝났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단기사병으로 대관령에 있는 군부대에 입대했다. 그가 군에 간 소식을 나는 한참을 지나서야 알았다.

그를 찾아갔다. 그는 출퇴근하는 병사였다. 아침에는 부대에 나가고 저녁이면 퇴근하는 군인 같지 않은 군생활을 하고 있었다.

촌가의 창고에 벽지를 바르고 불을 들인 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저녁이면 문틈으로 바람이 새고 밤이면 별이 보이는 방이었다. 방에는 수십권의 책과 휴대용 가스렌지, 그리고 코펠과 도마, 수저 한 벌이 전부였다. 그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단출한 살림살이일지 몰랐다. 나는 스님의 자취방에 들어선 순간부터 기분이 좋았다. 그가 나보다 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난뱅이가 가난뱅이의 살림속에 머문다는 사실이 내게는 이유없는 기쁨이 되었다.

낮이면 책을 읽고 저녁이면 스님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쌀을 씻고 저녁을 준비했다. 반찬이란 김과 감자찌개, 김치가 전부였다. 단출한 반찬의 그 밥이 내게는 꿀맛이었다. 그것은 함께 마주보며 밥을 먹는 사람이 무척이나 좋았기 때문이리라.

맑은 심성을 가진 사람과 마주 앉아 먹는 밥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라는 것이 그 후에

눈 쌓인 새벽기도길 반듯한 발자욱
원칙 지키는 순수·진실한 수행자

밥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굳어졌다.

저녁을 먹고나면 차를 한 잔 마시고 황톳길을 걸어 용평휴게소까지 포행에 나섰다. 차도 다니지 않고 길 양쪽으로 감자밭이 도열해 있는 그 길을 때로는 달빛을 받으며, 때로는 비를 맞으며 날마다 걸었다. 그 때 우리의 산책길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자그마한 카세트 라디오와 정태춘 박은옥의 노래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였다. 민요조의 그들의 노래는 황톳길 위에서 우리를 춤추게 했고 또 다른 풍의 그들의 노래는 우리들을 삶의 애환에 머물게 했다. 달빛 비치는 황톳길을 걸으며 어깨춤을 추면 그 순간 뭉클 행복이 가슴에 와 닿았다. 그것은 실로 가난한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었다. 그래서 또한 낭만적인 수행자들의 행복이기도 했다. 작은 카세트와 테이프에 담긴 노래가 주는 행복은 황톳길과 달빛, 가난한 낭만적 수행자들이 함께 엮어낸 것이었다. 그때 만약 우리가 부유했더라면 그 행복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가난했기에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었고 젊었기에 낭만적일 수 있었던 그 시절, 달빛이 비추는 황톳길은 바로 행복 자체였다. 그래서 행복은 언제나 가난이 주는 선물로 내게 기억되고 있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불교의식 전문대학
제2기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대승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전문 의식반을 운영 하오니 재가 신도나 스님들의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모 집 반

㉮ 초급(3개월)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목탁, 요령, 경쇠, 태징, 법고, 다루는법 지도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청, 축원법, 관음정근법.

㉯ 중급(3개월)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엄시식, 다비식, 점안의식, 전시식, 방생의식, 산신기도법 등등 종합적인 의식법.

㉰ 작법반(6개월)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6시)
천수바라(바라춤), 다게작법(나비춤),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등등.

㉱ 속성사물반(3개월)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사다라니, 대다라니, 권공의식등, 경쇠, 북다루는법 집중지도

㉲ 특별반(전문의식반) : 영산재, 예수재, 점안의식반 소수운영

대승경전 강의 수강생 모집

가) 화엄, 법화사상강의 : 매주 수요일 12시 ~ 1시
나) 대승보살도 기초교리과정 : 매주 목요일 12시 ~ 1시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지하철역 정문앞
전화 : 053)622-0333
대구 대승불교대학 의식교육원 원장 합장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엄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엄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서" 소개

사주학 사상 그 누구도 사주학의 요체가 되는 <용신을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지 못했던것을 본서에서는 수년간 연구 검증된 계산법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쉽게 사주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이론을 습득하면 어떠한 사주이던 자신있게 상담에 임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사주학을 운명추론학에서 심리학으로 까지 발전시켜놓은 이론이기도 합니다.

◈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 복잡하고 애매한 명리이론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시켜 놓았다는 점.
– 검증된 간단한 계산법으로 어떠한 사주이든 쉽게 <용신>을 찾을 수 있는 비결 공개(억부, 음양, 구조용신).
– 심리구조분석 및 8개궁위분석 비결 / 일간진입원리 응용비결 공개.
– 각종인연 분석에 관한 확실한 분석비결 공개(육친, 재물, 지위, 결혼인연 등).
– 사주원국에 대. 세운을 대입 해석 하는 비결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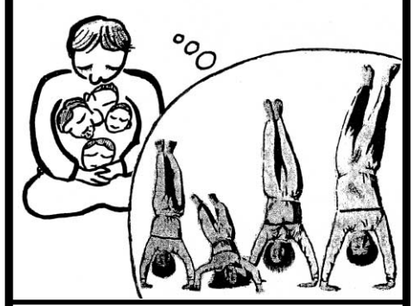


◐ 저 자 : 오산 정대균
◐ 책규격 : A-4별정지 620쪽
◐ 가 격 : 220,000원
◐ 본서는 본 연구소에서만 판매하며 입금 후 전화주시면 택배로 발송함
◐ 하나 : 751-810033-42207
국민 : 765202-04-019996
농협 : 170202-56-037616
● 예금주 : 정대균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 02)831-0055(대표)
FAX 02)831-0058 / H · P 011-208-0051

홍삼의 기를 마시자!
홍삼메딕스

우리가족 건강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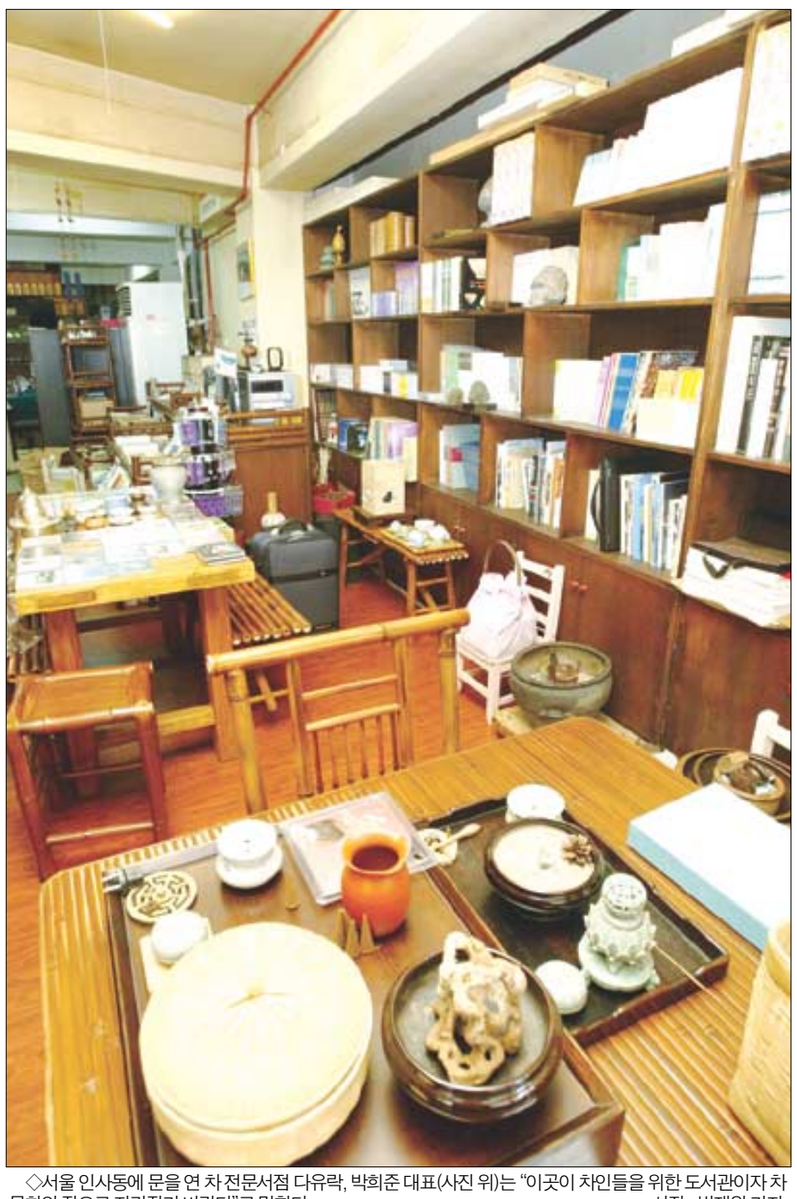


● 홍삼메딕스는 다른 것처럼 임삼을 한번 찌고 물을 부워 한약 다리듯 하는게 아니고, 9번 찌고 말리는 신비의 구증구포 비법을 최초로 과학화(경북과학대)한 것입니다.
● 홍삼액만을 만드는 일반 제조기와는 달리 홍삼도 홍삼액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 홍삼메딕스를 구입하시면 진짜 춘천옥 원석을 넣어, 보다 기가 강한 홍삼을 제조케 해 드립니다.
● 기찬 홍삼원액만을 판매도 합니다. 먼저 1재 시음해 보시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02)777-0105 헬스테크상사



차의 또다른 맛 '다유락(茶遊樂)'



◇서울 인사동에 문을 연 차 전문서점 다유락, 박희준 대표(사진 위)는 "이곳이 차인들을 위한 도서관이자 차 문화의 장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한다. 사진=박재완 기자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테이블 위엔 다구들이 보기 좋게 놓여 있다. 분위기 좋은 찻집으로 여기기 쉽지만, 한 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책들이 예사롭지 않다.

'다유락(茶遊樂)'. 차와 함께 더불어 노는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은 지난 11월 1일 서울 인사동에 문을 연 '차 전문 서점'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차 전문 서점은 '향기를 찾는 사람들' 박희준(46 · 사진) 대표가 기존에 출간된 다서들이 열악한 출판환경으로 제대로 홍보되지도 못한 채 절판 또는 사장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마련한 공간이다. 이곳에는 현재 국내에서 발간된 차 관련 서적 80여 종 300여 권이 구비되어 있다. '서점'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이 정도의 자료를 모으는데도 10여년이 걸렸다.

"차 인구가 적었던 10~20여 년 전만해도 차 관련 서적들은 한 권당 고작 1천부 정도가 인쇄됐고, 그나마 지방에서 출간되는 책들은 서울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때문에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대부분의 다서들이 절판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차문화를 담은 서적들이 사장될지 모른다는 마음에 서점을 열게 됐습니다."

박 대표가 처음 차 전문 서점을 준비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다서의 분류와 수집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차(茶)'라는 글자가 들어갔다고 모두 다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고서점과 지방의 헌책방에서 찾아낸 책들을 꼼꼼히 읽고 정리하다보니 차 관련 서적들의 분류 체계를 조금씩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년간의 고민 끝에 그가 그려낸 이상적인 다유락의 모습은 '작은 책방, 큰 규모의 도서관'이었다. 책을 판매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 일반인들이 보기 힘든 국내외 다서를 종류별로 구비해 놓고, 누구든 와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올해는 1990년대 이후 발간된 국내 차 서적을 구비하고, 90년대 이전에 출판된 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년부터는 학술지와 논문, 잡지 등에도 욕심을 내 봐야죠."

이러한 이유로 다유락은 '도서관'의 성격을 더

인사동에 차전문 서점 첫 선
대부분 절판, 자료수집만 10년
차교실 열어 문화의장 꾸릴 계획

많이 가지고 있다. 다유락에서는 '도서열람비' 2천원을 받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인의식과 서점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향 교실'과 '차 교실'을 열어 '저자와의 대화'와 문화체험 시간을 마련해 차인들의 만남의 장으로 꾸려갈 계획이다.

"다서를 정리하는 것은 바로 한국 현대 차문화사를 정리하는 것과 같다"는 박 대표는 "차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이 서점을 운영해 나가는 참된 원동력이다"고 말한다. (02)723-8154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원광디지털대 차문화학과 모집

올해 신설된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가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 차문화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선도하고 '국민생활차문화운동'의 확산을 통해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차문화경영학과는 한국의 차문화와 세계의 차문화산업, 전통 및 생활예절, 차문화예술, 차문화 관련 행사 기획 등의 강의로 진행된다. 학과 수료시 전통차 예절강사 및 선명상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접수는 12월 1일부터 2004년 1월 10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2004년 1월 13일, 정원은 100명이다. 문의 1588-2854

명원다도문화원 하동 지부 개원

명원문화재단 산하 명원다도문화원이 11월 10일 경남 하동 제1지부(지부장 김예숙)를 개원했다. 경남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과 조유행 하동군수를 비롯한 다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는 국악인 김소현, 박정선 씨의 동편제 판소리 한마당이 열렸으며, 행사는 김 이사장의 축사와 위촉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축사에서 "야생차 문화축제로 국내외에 잘 알려져 있는 하동에 지원을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지역 차문화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녹차,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 억제

녹차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녹차에 에이즈 바이러스(HIV)의 증식을 차단하는 물질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일본 도쿄 대학 가와이 구즈시게 박사는 미국의 의학전문지 <알레르기-임상면역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녹차의 성분 중 하나인 에피갈로카테친 몰식자산염(EGCG)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세포에 달라붙어 증식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가와이 구즈시게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차세대 에이즈 치료제 개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와이 박사는 "실험에 사용된 EGCG의 농도는 녹차를 마셨을 때 혈액에 나타나는 EGCG의 농도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녹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차맥 지킴이



김대성

(한국차인연합회 고문)

꼭 20년이 흘렀다.

1984년 4월, 차문화의 현장을 찾아 차문화의 원류를 밝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강화도의 백운 이규보 선생의 묘소에서 시작한 취재는 98년 서울 성북동 선잠단과 창덕궁 후원을 찾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사단법인 한배달의 상임부회장이자 한국차인연합회 고문인 김대성(62) 씨. 그의 30여 년간의 기자 생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차 문화 유적 답사는, 지나간 연재물이나 책 속에 담긴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었다.

한국일보 부산주재기자로 일하던 70년대, 서예가 故 오재봉 선생을 취재하러 갔다가 차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 때 선물 받은 차 한 통을 주전자에 우려 마시던 그는 '차를 제대로 알고 마셔야겠다'는 직업정신이 발동했다.

"가만히 앉아서 차만 마셔서는 진정한 차 맛을 못느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 나섰지요. 당시만 해도 차에 관한 책이나 자료는 물론이고, 차를 마시는 사람조차 많지 않을 때였기에, 차밭이 있는 전국의 사찰과 차 유적지를 찾아 발로 뛰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차문화 유적을 찾아다니며 차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차가 어떻게 문화가 될 수 있냐'는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차가 대중의 관심 밖에 있지만, 20년 후에는 일상

현장답사 통해 생생한 차세계 전달
온 국토가 유적, 관리소홀 아쉬워
전통 올바르게 찾아 가꾸는 것이 숙제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취재가 거듭될 수록 그는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문화라는 확신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월간 <스포츠 레저>에 연재한 '茶따라 茶길따라'라는 글을 통해서였다. 연재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도 뜨거웠다. 하루에도 수 십 통의 제보와 격려,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묻혀있던 차문화의 역사를 발굴해 차문화가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라는 사실을 밝혀내려는 그의 답사는 3년 6개월간 지속됐다. 답사길에서 그는 힘을 얻었고, 차를 배웠다.

지난 1994년에는 그동안 잡지와 신문에 연재했던 유적 답사기를 묶어 <차문화 유적 답사기>를 펴냈다. 그리고 또 3년이 흘러, 97년 4월부터 한국일보에 '차따라'라는 연재를 위해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우리나라의 차 문화 유적 100여 곳과 중국과 일본 등의 유적 100여 곳을 살피는 대장정으로 시작했던 이 기획은 경제한파로 40여 회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가 수집한 기록들은 그의 노트에 고스란히 정리되어 세상에 선보일 때를 기다리고 있다.

"요즘을 차문화 부흥기라고 말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선조들이 가꾸어 온 차문화 전통을 올바르게 찾아 가꾸어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수령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Ⅲ-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동지기도안내
◎ 오는 12월 20일 부터 12월 22일까지 동지삼일특별기도를 봉행합니다. 그리고 동지기도에 즈음하여 한국불교 1700년 역사상 최초로 우리말사언절로 완역한 동봉스님의 42번째 책 <<예수재의>> (<<일원곡>>제7권)를 동참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법보시합니다. 오는 2004년도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봉행되는 예수재 의식집으로써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인도 불교성지를 전통 수묵화폭에

이호신 화백의 인도기행전

12월 5~11일 뉴델리서

엘로라 석굴·보드가야 대탑등 20여점



◇부처님의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 녹야원.

인도의 불교 성지가 한국 전통 수묵화의 기법으로 한지 위에 다시 태어난다.

현재 현대불교에 연재중인 '인도 그림기행'의 작가 이호신 화백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인도 뉴델리 '랠리트 깔라 아카데미'에서 인도기행전을 연다. 전시의 주제는 '인도의 인연'. 한국-인도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이 화백이 지난 1월 한달간 인도를 답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화백은 성지순례가 목적이었지만 부처님의 흔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인도의 모습에 반해 붓을 집어 들었다. 기행을 하며 화첩에 개괄적인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기초로 한국에 돌아와 대형 한지에 다시 세밀하게 옮겼다.

이번 전시에는 이 화백이 처음 도착한 도시인 뭄바이에서부터 바라나시 갠지스강, 타즈마할,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 보드가야 대탑과 초기 불교유산인 산치대탑, 사르나트 녹야원을 거쳐 히말라야의 포카라 호수까지 20여점이 선보인다. 이중 아잔타와 엘로라 석굴은 5m가 넘는 대작으로 인류 문화의 거대한 스케일은 물론 인도의 역사와 문화, 종교까지 아우르고 있어 그림앞에서면 현지에 가 있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전달해 준다. 이외에도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간디의 모습을 비롯해 인도의 광대한 풍광도 한국 전통의 수묵과 서양의 수채화 물감을 적절히 배합해 독특한 화풍으로 그려냈다. 그래서 이 화백의 그림은 동서양 화법(畵法)의 절묘한 조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면에 많이 등장하는 검은색의 수묵을 보면 영락없는 동양화지만, 간간히 울긋불긋 강렬하게 묻어 있는 채색기법을 보면 서양화이기 때문이다.

김학량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는 "이 화백의 작품에는 인도의 문화유산이며 세속풍물, 사람들, 자연경관 등이 나오지만 그것은 단지 피상적인 구경거리로만 비춰지지는 않는다"며 "거칠다고 해야 할만큼 주저하지 않고 살아 꿈틀거리는 붓질이 지닌 품성과 더불어 인도를 한갓 그림의 대상으로 종이에 옮겨 놓았어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지난 2000년 11월 아프리카 탄자니아 박물관에서 열린 '아프리카의 역사와 삶'을 수묵채색으로 그려 호평 받기도 했던 이 화백은"이번 전시는 수묵화의 기법과 소재의 다양성을 넓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지와 수묵이 갖는 독특한 회화재료가 제한된 소재를 뛰어넘어 서구미술에서 맛보지 못하는 차별화된 미감을 표현하려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78세 할머니의 극락으로 시집가기

연극 '오구'를 영화화…28일 개봉



◇영화 '오구'에서 벌어지는 굿판은 화해와 소통의 장이다.

1989년 초연된 이래 연극관객 270만 동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오구'가 영화로 돌아왔다. 11월 28일 개봉 예정인 '오구'는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로 녹아있는 불교와 토속신앙이 건강하게 어우러진 영화다.

영화는 경상남도 밀양의 한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이 마을에 사는 78세의 황씨 할매가 어느 날 죽은 남편이 소를 타고 데리러 오는 꿈을 꾸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이승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낀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산오구굿'을 하겠다는 것. 할머니를 극락으로 시집보내기 위한 엉뚱한 의도로 인해 일부 마을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일대 소동에 휩싸이지만 결국 굿판은 벌어진다.

'산오구굿'의 줄임말인 '오구'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영화의 모티브는 신명나는 굿판이다. 영화 곳곳에서 등장하는 황씨 할매의 염불소리와 '극락', '나무일심봉청' 등의 불교용어는 불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온다.

한상희기자



영화 곳곳에 불교내음 물씬

주인공 황씨할매역 강부자씨

1997년 연극 '오구'를 시작으로 이번 영화에서까지 주인공 '황씨 할매'의 역할을 맡아 활약하고 있는 불자탤런트 강부자 씨(62·사진)를 지난 11월 13일 기자시사회장에서 만났다.

▲연극에 이어 영화에서도 주연을 맡았다. 소감은?

연기생활 40여 년 동안 내 이름 석자를 내 걸 수 있는 대표작이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좋은 분들과 작업한 영화가 탄생하게 돼 행복하고 흥분된다.

▲연극과 영화 작업 모두를 거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오구'의 끝 부분에는 황씨 할매의 극락왕생을 빌어주는 장면이 있다. 연극공연 때 관객 중 한분이 실제로 무대로 올라와 황씨 할매가 아닌 강부자의 장수를 빌어주는 것처럼 절하고 합장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많은 사람들이 '강부자' 하면 불자 연예인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 영화에서도 불교적 캐릭터가 강한가?

-'오구'는 꼭 종교적인 영화는 아니다. 하지만 황씨 할매가 신묘장구대다라니, 관세음보살 등을 염불하는 장면 등 불교적인 색채가 영화 구석구석에 묻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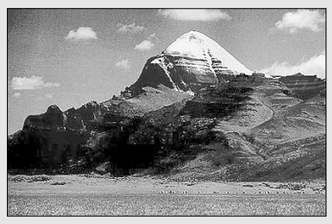
MBC-TV 창사특집 다큐

'티베트 대탐사' 12월초 방송

MBC에서는 12월 6·7일 양일간 티베트인들의 삶과 불교문화를 집중 조명한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티베트 대탐사(연출 임채유)'를 방영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1부 창탕, 정복되지 않은 대지(6일 밤 11:15)', '2부 신들의 땅 카일라스(7일 밤 11:30)' 등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전설의 구게 왕국이 있는 서부 창탕고원을 중심으로 티베트의 자연과 유목민의 모습을 담았다. 2부에서는 4대 종교의 최고 성지인 성산(聖山) 카일라스의 모습과 함께 불교 축제, 오체투지 순례자 등 티베트 불교문화에 대한 내용을 방영할 예정이다.

한상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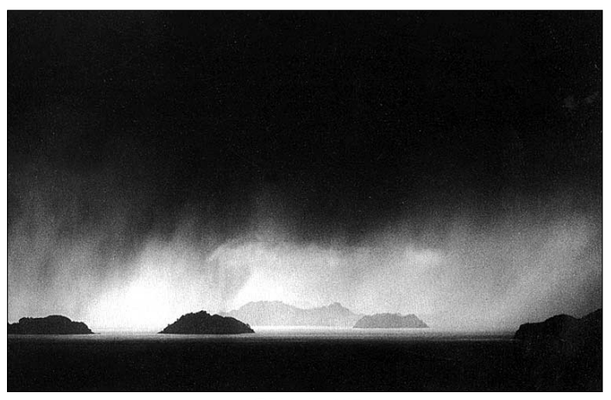


◇'신들의 땅'이라 불리는 티베트의 성산 카일라스.

문화소식

바다주제 사진전

△윤명숙 사진전=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룩스에서 열린다.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바다'. 실루엣 같은 새벽바다, 폭풍이 몰아쳐 오는 격렬한 바다, 일몰 무렵의 바다 등 다양하고도 절절한 바다 모습을 앵글에 담았다. 윤씨는 93년 불교잡지 <불광>에서 일을 시작한 뒤로 오랫동안 연꽃 사진을 찍어왔다. (02)720-8488



◇윤명숙 作, '바다'

라다크人의 삶 렌즈에

△라다크 사진전=겨울이 8개월 동안 계속되는 악조건을 공동체 생활로 이겨내며 오히려 후덕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라다크인들의 삶을 사진작가 김광부씨가 카메라에 담았다. 2×4m 대작을 포함해 20여점의 사진들이 걸린다.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빔 갤러리. (02)723-8574

수상곡 국악편성 연주

△창작 찬불가 음악제=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11월 28일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제 4회 창작 찬불가 음악제'를 개최한다. 1회부터 3회까지 창작찬불가 대회 대상 수상곡을 국악으로 편성해 연주한다. '풍년제', '향(香)', '보현행원', '보리심', '천왕사', '정심' 등을 들려준다.(02)739-1830

한마음선원 음성공양

△선법가 합창단 연주회=한마음선원 선법가 합창단은 11월 29일 저녁 7시 안양 한마음선원 2층 법당에서 연주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마련한다. 이날 행사에는 '내마음의 주인', '선법가는'을 비롯해 대중가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랑으로' 등 10여곡의 음성공양을 한다.(031)470-3100 김주일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05:45 고승열전
08:55 우리들의 찬불가
11:10 행복스튜디오
12:00 정오 종합뉴스
14:05 김용우의 국악발견
20:05 다시 듣고싶은 노래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6일 09:20 묵연 스님의 시와 사랑
27일 12:00 향토음식 기행
28일 08:30 하재봉의 영화산책
29일 14:00 불교TV 주간뉴스
30일 17:25 자비의 천수천안
1일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11월 28일 20:05~21:00)=마음의 노래, 즐거운 노래와 배추머리 김병조의 구수한 입담이 함께 하는 시간. 매주 금요일에는 청취자들의 전화 노래방, '배추머리 노래방' 코너가 마련된다.

■불교텔레비전

▷자비의 천수천안(11월 30일 17:25~18:25)=이날 방송에서는 두 번의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된 나영철 씨를 만나본다. 한번도 당하기 힘든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겪으면서 하반신 마비와 상반신 부분마비를 얻게 된 나 씨의 애절한 사연이 소개된다.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45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3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53 - 5145

당 뇨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당치 발란스
(糖治) BALANCE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식품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1개월분 150,000원
2개월분 270,000원
- 당치발란스의 임상실험 -
당부하검사와 같은 개념으로 200그램의 탄수화물 식이 부하 후 2시간까지의 최고 혈당치가 160mg/dl 이상인 건강인 21명 중 90%인 19명에서 혈당강하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평균 혈당 감소치는 29mg/dl이었다. 최고 혈당치 120 mg/dl 이하인 실험대상에서는 혈당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삐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에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8화 아힘사와 '앙굴리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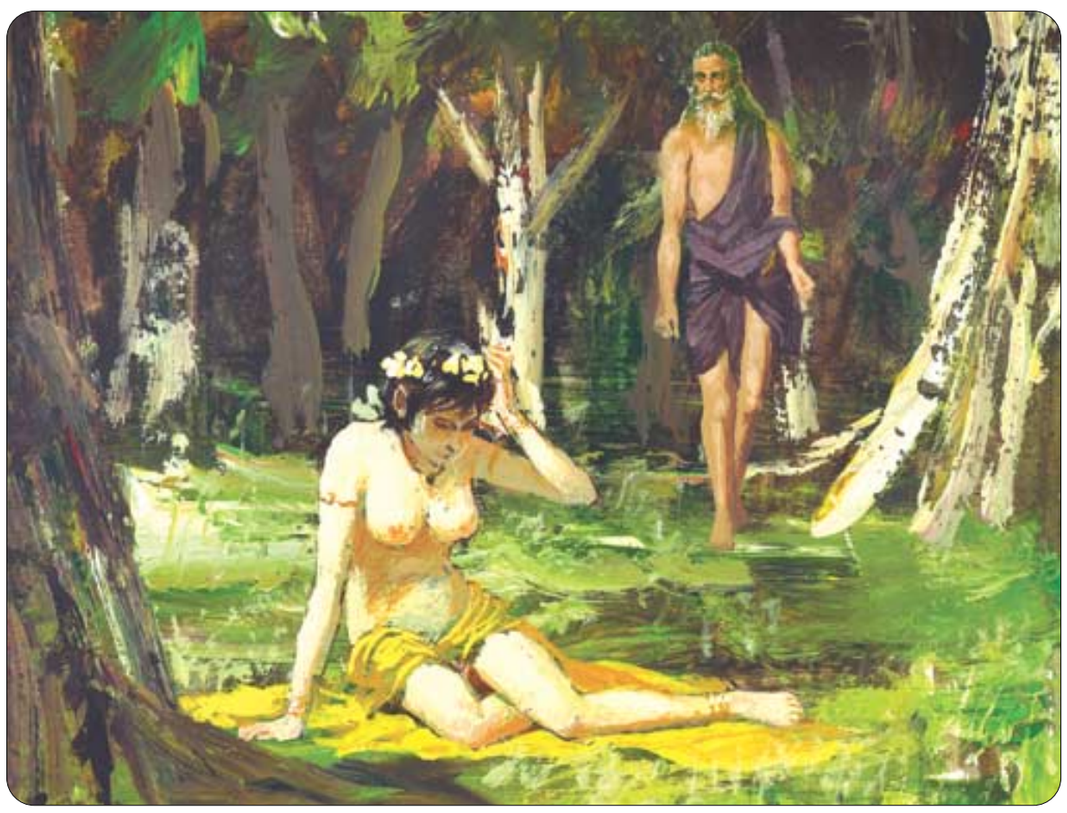
"흥, 제까짓 놈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나에게 이런 망신을 주는거야…. 내 꼭 앙갚음을 하고 말 것이야. 비록 내 모습이 더욱더 초라해 지더라도 저 놈을 기어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 것이야. 두고 보라지."

젊은 남자에게 당한 모욕을 기어이 복수하고야 말겠다고 앙칼진 마음을 품은 여인은 제 스스로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놓고 남편인 마니발타라 브라만이 되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프라세나짓왕을 접견하고 돌아오던 마니발타라는 숲 속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랐다.

"여보.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분해요.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그 아힘사 놈이…. 흑흑. 당신이 외출하자마자 나에게 달려들어…. 내가 죽기 살기로 저항해 보았지만 그놈의 힘이 얼마나 센지, 결국은 당하고 말았어요."

"그만, 그만해! 아힘사 그놈이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그렇게도 사랑했던 제자였는데 어찌 감히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스승의 아내를 강제로 겁간할 수 있는 것일까. 좋다, 네가 나의 아내에게까지 손을 대며 이 스승을 모욕한다면 나 역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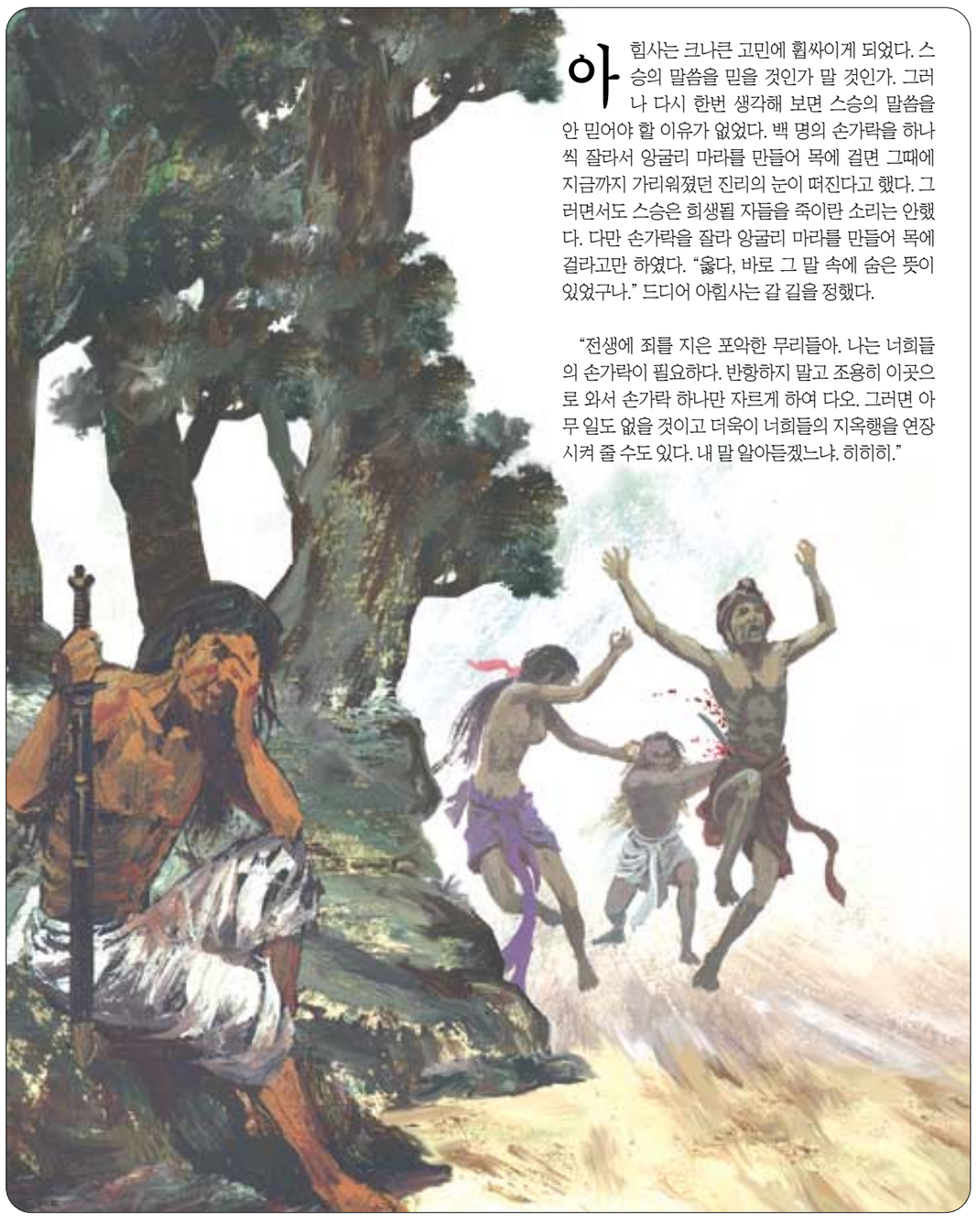
스승은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했다. 그렇다고 이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여 세상에 두 번 망신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를 처벌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밤새도록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마니발타라는 드디어 아힘사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었으니 그것이 바로 앙굴리 마라(Anguli-mala, 손가락 목걸이)를 만들도록 시키는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스승은 아무것도 모르는 체 하면서 아힘사를 불러 그의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

"아힘사야. 이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너에게 전수되었다. 다만 마지막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수행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지금부터 밖으로 나가서 오늘 정오(正午)가 될 때까지 '앙굴리 마라'를 만들어 목에 걸면 그 순간 깨달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손가락을 자르면서 너는 비참하고 잔인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백 명 째의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거는 순간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진리에 눈이 떠지고, 비로소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동정을 줄 필요는 없다. 그들은 겉으로는 죄 없는 백성들의 탈을 쓰고 있지만 전생에 포악한 죄를 짓고 이번 생애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자에게 희생되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 윤회의 오묘한 이치이니 너 역시 백 번째의 희생자를 만나면 비로소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아힘사는 크나큰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 스승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스승의 말씀을 안 믿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백 명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서 앙굴리 마라를 만들어 목에 걸면 그때에 지금까지 가리워졌던 진리의 눈이 떠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스승은 희생될 자들을 죽이란 소리는 안했다. 다만 손가락을 잘라 앙굴리 마라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만 하였다. "옳다, 바로 그 말 속에 숨은 뜻이 있었구나." 드디어 아힘사는 갈 길을 정했다.

"전생에 죄를 지은 포악한 무리들아. 나는 너희들의 손가락이 필요하다. 반항하지 말고 조용히 이곳으로 와서 손가락 하나만 자르게 하여 다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더욱이 너희들의 지옥행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다. 내 말 알아듣겠느냐. 히히히."

아힘사는 스승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의 명령대로 실행에 옮겼다. 평생 처음해보는 살생(殺生)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아힘사는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죽임으로써 그가 수행해야 하는 또 하나의 거룩한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주어진 운명을 거역하지 않고 순응하고 있다는 만족감이었다.

아힘사는 스승을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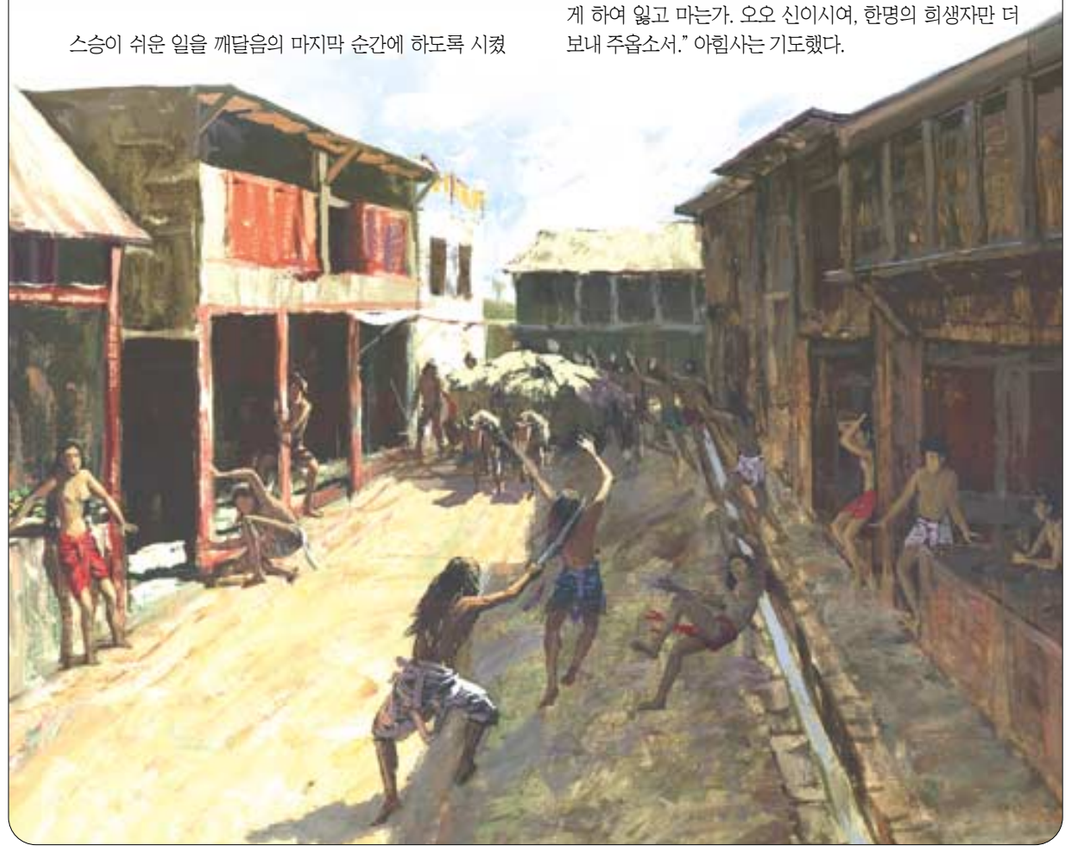
"스승은 정오까지 백 개의 손가락으로 앙굴리 마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이 단 한번뿐인 기회임도 알려주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의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정오까지 백 개의 앙굴리 마라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스승이 쉬운 일을 깨달음의 마지막 순간에 하도록 시켰겠는가. 아힘사는 방법을 바꾸어 성안으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비록 노인이나 연약한 여인네, 혹은 어린 아이라도 상관없었다. 그들은 다 전생에 죄를 짓고 온 악귀들로서 사람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미 살인마로 변한 아힘사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고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성안을 아비규환으로 만들고 나서 그가 엮은 손가락은 아직도 한 개가 모자라는 아흔아홉 개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가시거리엔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다.

그런데 원망스러운 해는 벌써 중천으로 떠오르며 정오가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아… 아…. 일생에 단 한번 주어진 이 기회를 결국 이렇게 하여 잃고 마는가. 오오 신이시여, 한명의 희생자만 더 보내 주옵소서." 아힘사는 기도했다.



들이고 내는 모든 작용을 거기서 한다는 걸 믿고 맡겨야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형제회 법우님들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이 벌써 몇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음으로부터 행(行)의 작용으로 발전을 시키고 이 세상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지구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한번 잘 먹으면 세계를 조절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를 좀 더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괴로움과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가져오게 되겠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 빼놓고, 저것 빼놓고 뭐 남는 게 있어서 불법이라고 하겠습니까? 불법은 우리들 살아가는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교 아님이 없기 때문에 불교는 그대로 우리들의 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지내는 이 자체가 교(敎)가 되기 때문에 불교 아님이 없고, 만물만생이 다 불교 아닌 게 없어서 만나면 만나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저 위에서 소나무 한 그루를 만났는데 어저께 만난 것 따로 있고, 오늘 만난 것 따로 있지만 만나는 대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체 보면 보는 대로 둘이 아니므로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마음은 이 심전심으로 둘이 아니어서 그렇게 같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같이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면 내 집이 빈집이 돼서 에너지를 뺏긴다고도 볼 수 있지요. 항상 밑지고 사는 분들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집이 비었으면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내 몸이 쉬이 망가지는 반면에 가난해지고 마음이 떳떳하질 못하니까 뿌리가 성성하질 못해서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죠.

불교라는 이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 하나하나 작용하는 것이 법이요, 불은 영원한 불성을 말함이니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지요. 그 근본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생각을 해야 사람이지 생각 없이 무슨 사람입니까. 에너지 자체가 들고 나고 활용하듯 우주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일체 만물만생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많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두 긁어모아서 한마음이라는 그릇도 없는 데다 다 넣어버렸으니 우주 삼천대천세계 에너지를 다 넣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생각을 내면 법바퀴거든요. 생각을 내면 생산을 해내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몸이 헤져서 망가지면 벗어버리고 다시 새 옷을 입듯이 별성도 마찬가지로 그 생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벗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불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 물 바람 흙 등의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없고 다시 생산돼 옷이 다시 만들어져 나오는 거지요. 용광로에 헌쇠를 넣으면 다시 생산돼서 나오듯이 말입니다. 금도 닳아진 쪼가리들을 다시 녹여서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지만 금은 그대로 금이듯이, 우리 인간도 옷은 갈아입어도 불성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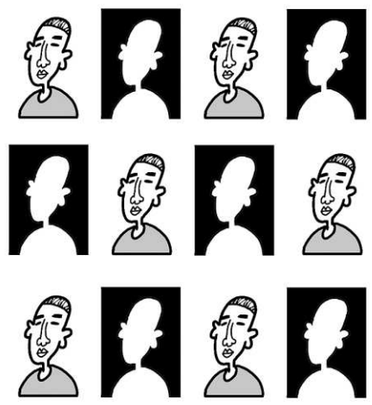
그런데 그 불성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원, (손으로 큰 원을 그려 보이시고) 불바퀴로 하나로 돼 버리죠. 하나로 돼 버려서 법바퀴에 에너지가 배출이 되면서 거기서 내 마음대로 생산이 다시 되죠. 그러나 이 도리를 모르면 그 자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 물질적인 의식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물질적인 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다스리지 못하고 닦지 못한 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줄 알고 한 발짝도 떼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넘어설 수가 없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몸속에 있는 인과의 악업, 선업이 쫙 깔려서 자기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마음 자체를 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 생명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작용에 있지 않습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못한다면 죽을 것이고, 내쉬고 들이쉬지 못한다면 죽을 것입니다. 또 부처가 어디 있느냐? 생명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면 들이고 내는 작용 가운데 있는데, 들이고 내는 그 작용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이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라고 할 때는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발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선지식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들어가는 게 옳으냐, 나가는 게 옳으냐, 들이는 게 옳으냐, 내는 게 옳으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그 관습이 남아서 고생을 해서 내 집을 장만해 놓았다고 하고, 내 가정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살던 그 습관이 그대로 떠나지 못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몸은 갔어도 마음은 그대로 있으니 몸뚱이를 가지고 참섭을 해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건 보이지도 않는 데서 참섭을 하고 돌아다니니 살아있는 자식들에게 못할 짓이 아닙니까. 자식들이 이 생의 자긴데 자기를 귀찮게 구는 겁니다. 자기 따로 자식들 따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착을 두고 있으니 죽어서도 그 관습에 의해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산이나 가정의 모든 그것은 꼭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오는 대로 되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체 만법을 다 작용하니까 "난 심부름만 했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한 게 아니니 주인이 알아서 해결해!" 하고 거기다 맡겨 놔야 그것이 뭉땅 벗어지는데 이건 만날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과거에 짊어져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도 죽겠는데 또 미래에 나올 것을 연방 입력을 해놓고 있으니 그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몽땅 지워지기 때문에 정보국에서 컴퓨터에 넣어 봐도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홀떡 벗어지는 거죠.


그림 · 최주현

사랑한다 밉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마음

착은 떼었는데 하화중생의 도리를 몰라요. 자기 속의 중생들을 제도 못했어요. 내 몸뚱이 속에 인과로 생긴 악업, 선업을 녹이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나서서 가려고 해도 그림자처럼 헤아릴 수 없이 나타나서 앞을 막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 도리를 살아서 몰랐기 때문에 죽어서 그것들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죠.

똥을 봐도 물으면 어쩌나 하고 가질 못하는데 천차만별로 벌어져 있으니 인연을 가진 것은 머리 풀어 산발하고 귀신처럼 덤비고, 눈 없고 팔 없는 게 들이덤비며 온통 과거에 살면서 자기가 행한 대로 인연이 되어 가지고 내 몸 속에 다 있으니 모습은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지지만 그 인연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그것은 아무 데 가도 쫓아다니기 때문에 불잡히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딜 가겠습니까. 그걸 훌렁 벗어버려야 자유로울 텐데 배어 가지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니 산을 넘어간들 안 쫓아가겠습니까, 물을 건너간들 안 쫓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따라다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야 무의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을 텐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정보국 정보원들이 우릴 감시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로 아예 입력이 되어 쫓아다니기 때문에 항상 붕신이 되고 이렇게 영상이 나오니 꼼짝할 수가 없지요. 몇 생을 돌아가도 믿지 못하는 겁니까.

다른 말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이론에 불과해서 직접적인 실천을 하지 못하는 데는 목이 말라서 죽는다 하더라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몸이 망가져도 에너지를 넣을 수 없고, 기를 넣을 수가 없으니 하여튼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시자가 주인의 심부름을 건강하게 잘할 거 아닌가.' 하고 한 생각만 해도 에너지는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기가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그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죽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면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고 어디 먼 데로 도망을 가려고 해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들어가서 모습을 아무렇게나 가지고 나올 수밖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 작용을 거기서 한다는 걸 믿고 맡겨야 벗어집니다. 또 벗어졌어도 나라는 게 남고 관습이 그냥 남아 있다면 강을 건너려 해도 물이 깊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배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질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서 만나리. 그리하면 영원한 밝음이 있으리니." 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려면 한 생각, '아, 일체 만물만생이 둘이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 것도 둘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생각 끄떡하면 죽어서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생시에 알고 있다면 꿈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고 죽어서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띄어져서 한생각을 하면 강도 들도 따로 없느니라. 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높은 산이나 얕은 들이나 깊은 강물이나 불 속이나 어디에도 타 죽는 법도 없고 빠져 죽는 법도 없고, 멀어서 못 가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큰 노릇을 못하고 문지기나 하는 입장이죠. 불바퀴를 보면 타 죽을까봐 그 소용돌이 속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영 맛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밝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서 영원한 자유의 밝음을 얻는다면 죽고 살고가 따로 없이 자유인일 텐데 말입니다.

우린 만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마음 빼놓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성은 생명의 근본이며 그 생명의 근본이 있기에 마음을 낼 수 있어서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내는 것은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죠. 불과 법이 둘입니까, 어디? 생명이 있으면 마음을 낼 수 있고, 마음을 낼 수 있으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 아까 관습으로 인해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입력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살 수 없고 어느 곳에 있어도 자기 한 대로 잡히면 창살 없는 감옥에 꼼짝없이 갇히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물질로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잡혀 있는 줄로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 갇혀 있지요.

내가 내려앉는다고 한 것은 여러분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무슨 위라고 해서 위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래라 그래서 아래가 아닙니다. 뒤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내가 높아서 여기 앉겠습니까? 높은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도 지금 그런 실행을 하면서 실천을 하고 갑니다. 그런 걸 몸뚱이 고깃덩어리만 봐서도 아니 됩니다.

예전의 일체 부처님, 일체 선지식들께서 어떠한 50%의 행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음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리를 배우면 일체 평등 공법으로써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칠보활궁공법,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내서 보배로운 생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항상 말하지만 종지로 원한다면 내가 종지가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리입니다. 마음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마 빨리 알아들으리라 봅니다. 내 마음 하나에, 즉 말하자면 블랙홀 안에서 나가는 그 에너지가 어디로 나가느냐? 나가는 그 에너지도 그렇지만, 한데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작용을 하는 그 자체가 무수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들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근기에 따라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법입니다. 불바퀴의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사는 그 에너지가 나가서 배출이 되면 또 생산이 되는 것이죠.

부부가 생각을 안 하고 생산을 안 해냈다면 여러분 자손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별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질로서 아주 거대하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지금 조절을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별성들이 와르르 일어났다 하면 불바퀴가 얼마나 팽창될 것입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것 말고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벗어나야 아무 데로 가도 간 흔적이 없죠.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면 흔적이 있든 없든 벗어나지 못하는 거니까요. 한 발짝만 떼어도 벌써 흔적이 나오는데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고에서 벗어나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좀더 잘 생각해서 일하면서도 생각이 일어나면 무조건 거기다 맡기고 조용한 시간이 생기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시라 이 얘깁니다. 내가 생각을 안 하면 진화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커지질 못해요. 생각을 안 하면 목석이지, 생각을 안 하는데 진화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바로 증거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증거물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면 좋고 물에 가도 좋지요? 여러분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청산유곡을 보면 마음이 신선하고 좋고 또 맑은 물이 쉴 사이 없이 흐르는 걸 보고 고기가 노는 걸 봐도 싱그럽고 좋지요?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수없는 겁을 거쳐서 인간까지 이렇게 왔고 지금도 꼬리가 조금 붙어 있지만 꽁지 떨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벗어나야 어딜 가든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린 생각으로 살 수 있지요. 생각으로 운전할 수 있고,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때는 길을 가다보면 기다란 물체가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알을 까서 뒤꽁무니에 질질 끌고서 두껍게 옮겨다 놓고는 풀로 살짝 덮어놔요. 그런 걸 하나 보더라도, 미물까지도 이렇게 묘한 것입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인간까지 진화돼서 자식들을 낳아서 덮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우면서 어디를 나가서 안 들어오기만 해도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을 하지요. 알고 보면 식구들이 거쳐오면서 바람처럼 모였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흩어져서 다른 식구들하고 또 만나고 진화를 조금 하면 한데로 또 같이 모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 대의적으로 본다면 따로 없다는 얘기

☞30면으로 계속

살아서 영원한 자유의 밝음을 얻는다면 죽고 살고가 따로 없는 자유인입니다

☞29면에서 계속

죠.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살 뿐입니다.

그러니 착을 두지 마시고 그저 사랑으로만 대하시고 어쩌다 하룻밤 자고 와도 "너, 어디서 자고 왔느냐? 전화번호 대라!" 하지 마세요. 뭐 틀림없죠. 그러나 애들은 그런 식으로 대하면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고 올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었기에 그랬겠지, 너 배고프지 않으냐?" 하고 받아서 안아준다면 나가서 자라고 사정을 해도 나가 자지 않을 겁니다. 대접을 해줘야 하는데 착을 두고 내 손에 들은 어떠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나이를 더 먹었다고 해서 자기가 생산해 놓은 것을 자기 거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절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남의 자식이든 내 자식이든, 남의 부모든 내 부모든 평등하게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있으면 베풀어 주고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무주상보시를 해서 그저 남을 이익하게 해야 합니다.

가끔 학생들이 울면서 "스님, 이러이러한데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그것이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듯 평등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한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비를 베풀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내 자식네 자식 내 부모 네 부모가 있었습니까? 모였다가 바람결같이 흩어지고 스쳐가는 것이 인생인데요. 우리는 방랑객으로서 한 철 캠핑 나와서 살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흩어져야 할 인생이 아닌가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때에 따라선 내가 먼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물끄러미 쳐다보면 그쪽에서 먼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꽃도 저녁이면 오므라집니다. 저녁이면 오므라들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해가 졌다. 이제 잠자자!" 하거든요. 모두가 잠을 자는 건 아닙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잔다 안 잔다 없이 그냥 있는 소나무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푸르름을 가져온 겁니다. 그게 다 마음의 뜻이 있지요.

마음이 오고 갑니다. 나무에 맞아 죽을 팔자를 가진 사람이 나무에 목신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 '나도 너하고 벗이요, 영원히 친구지!' 하니까 돌이 아니라는 바람에 목신이 오히려 도와주더랍니다. 만약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돌이 아니지 않으냐. 그러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먹어도 같이 벌어먹자!" 한다면 고마워서 밤낮을 모르고 일할 겁니다, 아마. 자기한테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와 둘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일을 자기 일 하듯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죽지 않습니다. 목신도 자기요, 지신도 자기요, 관세음도 자기요, 지장도 자기요, 모두 자기인 것이죠.

▲질문자1: 별들도 생명을 다하면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셨는데, 지구도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나이가 몇 살이며, 사람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생명이 네 가지 방법으로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태생으로 태어나고 있는데 인간이 제일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는지 말씀해주세요.

▲스님: 우리는 태생으로 태어나지만 우리 속에 들은 건 태생으로 태어납니까? 모두가 화해서 종합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붙듯 그 의식이 붙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바람에 그것도 화해서 자꾸 자라는데 어떻게 증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살밖에 안 된다 이런 거죠. 모두 쳐도 세 살밖에 안 됩니다. 왜 세 살밖에 안 된다고 하는지 여러분이 잘 새겨보면 알 겁니다. 인생은, 인생뿐만 아니라 모두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만 별성이 있고 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으니까요. 벗고 작용하는 바람에 에너지가 촉촐되는 것이죠. 운동을 안 한다면 그건 죽은 별이지, 산 별입니까? 또 껍데기를 벗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옷 벗듯이 그냥 벗어버린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습도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으로 나이 먹은 대로 우리들도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둘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는 여기 살고 있지만 별에 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작으면 별들도 작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크면 별들도 클 겁니다. 이 세상에 인물이 태어난다면 별이 크다고 그러죠. 별똥이 떨어진다 하는 것도 별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옷이 흩어져서 원점으로 가듯이 그것도 역시 옷을 벗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기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그것이 다 망가져서 가루가 되어 이 지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흙이 어디서 생겼고, 먼지가 어디서 생겼는가 보라구요. 그렇게 끼리들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흙 한 줌이 된다고 그러죠. 물 한 점, 흙 한 점, 바람 한 점, 불 한 점, 이렇게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치가 있듯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여기 지구에 그런 먼지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지구가 무거워서 못 살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벼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체 만물이 살고 있잖습니까. 흙이 아니라면 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갖다 준 겁니까. 우리가 흙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죽으면 또 흙이 돼주고 그러는 겁니다.

역시 아래 위 전체가 돌아가면서 주고받고 삼천대천세계가 한 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 회사에서 전부 부서별로 일을 하고 있듯이 그렇게 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린 떠 있습니다. 아마 지구에 붙어서 사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아니,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붙어서 사는 벌레입니까? 하여튼 막말을 한다면 벌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때문에 붙어서 사느냐면 우리는 진화돼서 우뚝 섰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물질화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전부 상대성 원리로 '내가 빼앗아 먹는다. 내가 하나라도 더 올라가야지.' 하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는 일어나죠. 별성이나 혹성들 자체가 전부 상대성 원리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힘이 없으면 절대로 뺏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주인이 없으면 뺏깁니다. 에너지를 다 뺏깁니다.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또 자력이 없으면 뺏기듯이 자석도 큰 자석이 여기 놓여있다면 작은 덩어리가 다 그저 스치기만 하면 그리로 붙어져서 뺏깁니다. 그렇듯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량 뺏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구 사람들이 이 도리를 모른다면 지구는 한번 잘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잠자고 있을 뿐이죠.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생명을 내놓는다면, 또 우리가 이 도리를 완전히 증득하고 난 뒤에는 모르지만 이 도리를 어스름하게 알아가지고는 그 모든 잠자는 걸 깨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잠자는 것을 깨운다면 서로 잡아먹을 테니까요. 진화되지 않는 것도 있고 진화된 것도 있겠지만 마음이라는 것을, 즉 말하자면 영혼이라는 것을 뺏어다가 살 테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남을 겁니다.

이 도리를 모르면 멀고 가깝고가 없이 엄청난 문제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어떻게 돼지.'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관여 안 하고 편안하게 삽니다. 싱긋이 한 번 더 웃으면 덜 늙지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서 세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 삼라대천세계를 조절할 수 있다면 모든 혹성에서 생명들이 다 살 수 있는 문제들이 허다하게 나오겠지요. 뜨거워서 못 살고 차가워서 못 살고 얼어서 못 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절하기에 달려있지요.

그래서 에너지를 나르는데도 멀고 가깝고가 없다는 얘기지요. 나무껍데기 하나가 가공이 돼서 왜 종이가 됩니까? 아, 그렇게 나무껍데기로 옮기면 힘이 드니까 종이로 만들어서 옮기면 좋을 겁니다. 종이보다도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물질이 또 있지요. 그 물질로 인해서 물질이 아닌 걸로다가, 임신을 하는데 물질은 다 없어지고 형체도 없어서 보일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데 몸속에서 자란다는 걸 아셔야 해요.

만약에 더 가벼운 형체가 없는 것을 가져다가 뿌려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거를 찬 데다 갖다놓으면 찬 거 녹으니 좋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깨워놓으면 어떻게 그것이 발생이 되느냐는 문제죠. 이 공부를 꼭 해서, 앞으로 이 도리를 모르는 생명들을 위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 몸속에 있는 뭇 생명들, 중생들이 나쁜지 좋은지 모르고서 악으로 내가 무엇을 훔치러 간다고 한다면 훔치러 가는 대로 따라주고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 대로 따라줘요. 그러나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이니 여러분의 마음이 이것을 다스리면서 이끌어 가지고 가야 정말 보살로 화하지 않습니까. 내 혹성에 들은 것부터 해결할 줄 알아야 딴 혹성에 들은 걸 해결하지요. 내 혹성의 문제들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혹성의 것을 해결하렵니까? 그럼 또 질문하세요.

▲질문자2: 아까 그 주장자가 없으면 빈집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게 마음이 허해서 빈집이 되면 세균도 들어오고, 딴 엉뚱한 생각도 들어와서 정신도 어지러울 테고…, 그래서 생각을 해 볼 때에, 선원에 열심히 다니고 경 읽기도 열심히 해서 뭔가에 가까이 가겠다는 의지가 주장자인가, 아니면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해 가지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주장자인가, 다시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거기서만이 들이고 낸다는 믿음이 선다면 그게 주장자

▲스님: 시장 바닥에 나가든 절에 오든, 집안에 있든 회사에 나가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거기서만이 들이고 낸다는 믿음이 선다면 그게 주장자입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맘대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기 보배, 주장자가 있는데도 집이 비어서 옆둥이에서 자꾸 꿰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모든 걸 나오는 대로 무조건 맡기고 살라 이거죠.

▲질문자3: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분명히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은 머리에서 하는데 모든 분들이 가슴을 향해서 마음이라고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가슴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과연 정신과 마음이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마음이 어디에 있어서 거기에 맡겨 놔야 하는지 참 헤맸습니다.

▲스님: 정신은 우측으로도 좌측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걸음걸이를 말하고 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자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 우주를 싸고 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만사가 둘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한 찰나에, 일체제불이 한 찰나에 마음에 드셔서 한 찰나에 좋은 묘법을 설하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 이런 겁니다. 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묘한 도리이고 광대무변한 법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지금 누가 말했습니까.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귀엽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밉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작용 가운데 있다고 해서, 구지 스님이 어느 암자에 주지로 있을 때 하루는 어떤 비구니 스님이 삿갓을 쓰고 석장을 짚고 찾아와서 주위를 세 번 돌면서 "한 말씀 하시면 삿갓을 벗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지 스님은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그냥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구지 스님은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쉬시고 가시지요."라고 하자 그 비구니 스님은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자고 가겠습니까?"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구지 스님은 주지고 뭐고 다 버리고 선지식을 찾아 공부하러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자는데 꿈에 "이곳을 떠나지 마시오. 스님을 위해서 육신보살이 올 것이오." 하고 일러주었는데 과연 선지식이 찾아와서 그 동안의 일을 말했더니, 그 스님이 한 손가락을 세워 보이자 구지 스님이 즉석에서 크게 깨달았다고 해서 구지 스님이 되었다는데 그 뒤로는 누가 찾아와서 법을 물으면 오직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딴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 해도 내 주장자가 있으니 그런 거지, 주장자가 없는데 슬프다고 눈물이 나옵니까? 또 내 주장자가 없는데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주장자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이 마음이 천차만별로 광대무변하고 한군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잡을 수 있고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공했다고 한 겁니다.

그 자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배 주장자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네 주장자가 없다면 네 주장자를 뺏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내가 왜냐하면 빈집이기 때문에 맘대로 드나들어도 상관이 없다 이 소리죠. 그러니 거미줄밖에 더 생깁니까. 주인 없는 집이니 영계성 유전성 세균들이 막 들어와서 뚱땅거리고 춤추고 하면서 드나드니 그 집안이 뭐가 됩니까? 부디 그 어느 것에도 걸리지 말고, 끄달리지 마시고 한 층 분발해서 떳떳한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체제불이 한 찰나에 마음에 드셔서 묘법을 설하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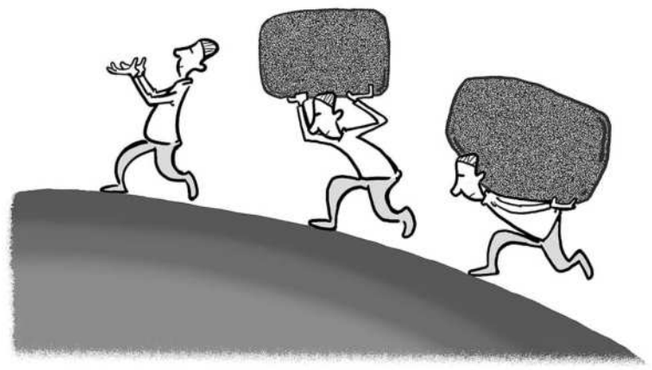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고침 448호 29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요.' 법문 마지막 문장에서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가 누락되었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58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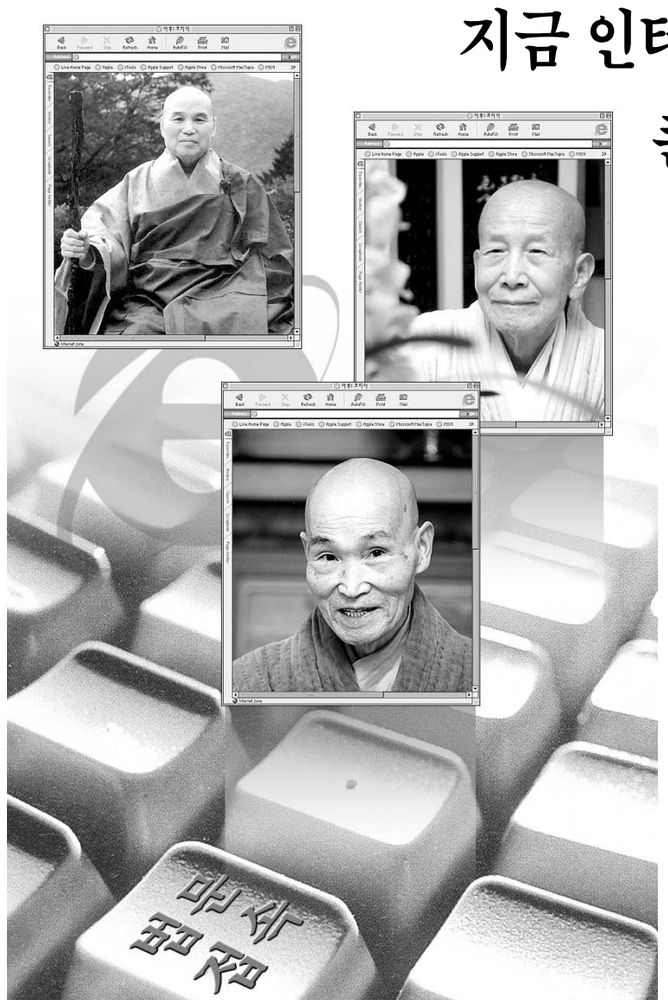
기쁘든 언덕을 넘듯 그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큰 스님들 주장자 '쾅쾅'



당대 최고의 선지식인 숭산, 진제, 법정, 무여, 대원 스님의 법문을 일반인이 듣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중 설법을 많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도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강, 성철, 혜암, 일타, 청화 스님 등 입적하신 큰스님의 법문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선지식의 법문을 서비스하는 전문 인터넷 사이트들이 생겨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큰스님의 법문을 서비스 하는 사이트는 콘텐츠에 따라 동영상과 오디오 서비스를 실시하는 멀티미디어 법문과 텍스트 위주의 법문 서비스를 실시하는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성철넷 등 큰스님들 설법 인기몰이
동영상 · 텍스트 법어 등 콘텐츠 다양

멀티미디어 법문을 서비스 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바로 성철넷. 성철 스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성철넷은 최근 1967년 해인사 초대 방장 취임 이후 동안거를 맞아 성철 스님이 하신 백일법문을 공개하고 있다. 오디오로 서비스되는 스님의 법문은 현재 7일째 법문이 올려져 있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업데이트 된다. 그 외에도 SBS에서 방영된 8부작 '스님 성철 큰스님'을 비롯해 최근 열린 성철 스님 10주기 추모 국제학술대회의 내용까지 동영상으로 서비스 하고 있다.

11월 13일 입적한 청화 스님 사이트인 아미타넷은 동영상, 오디오, 텍스트 법문과 함께 커뮤니티, 아미타마당, 아미타어린이 등의 코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동영상 법문의 경우 주로 청화 스님이 곡성 성륜사나 서울 도봉산 광륜사에서 하신 대중법문의 내용이고 오디오 법문은 전통선의 향훈, 원통불법요체 등 스님의 법어집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축서사 홈페이지에서는 무여 스님이 99년 동화사 기초선원에서 설하신 몽산법어, 신심명 등의 오디오 강의와 유니텔불교동호회 법회 설법 내용이 텍스트로 서비스되고 있고 인천 용화선원 홈페이지에서는 전강 스님과 송담 스님의 동영상, 오디오 법문을 들을 수 있다. 당대 최고의 율사인 일타 스님 홈페이지에는 스님의 계율사상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법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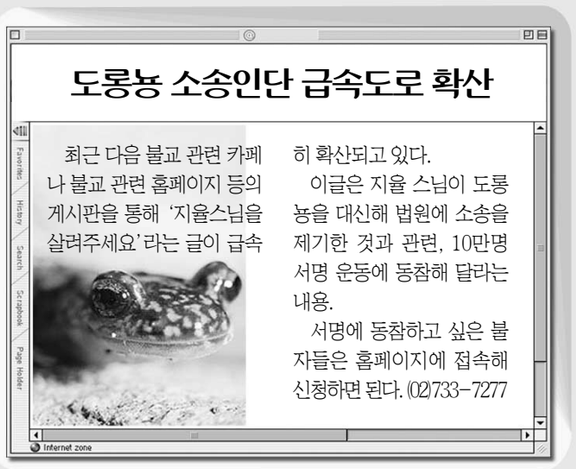
대행 스님의 법문을 서비스하고 있는 한마음선원 홈페이지는 한마음부디즘 TV라는 인터넷방송국을 자체 설립하고 대행 스님의 오디오, 동영상 등 다양한 법문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텍스트 위주의 법문을 서비스하는 백양사, 원당암, 화계사의 홈페이지에는 각각 서옹, 혜암, 숭산 스님의 텍스트 법문을 수시로 업데이트 해 네티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큰스님	사이트 주소	큰스님	사이트 주소
전강 · 송담스님	www.yonghwasunwon.or.kr	숭산스님	www.hwagyesa.org
성철스님	www.songchol.net	진제스님	www.seon.or.kr
혜암스님	wondangam.buddhism.org	법정스님	www.kilsangsa.or.kr
일타스님	www.ilta.or.kr	무여스님	www.chooksersa.org
청화스님	www.amita.net	대원스님	www.odzen.or.kr
서옹스님	www.baekyangsa.org	대행스님	www.hanmaum.org

도롱뇽 소송인단 급속도로 확산



최근 다음 불교 관련 카페나 불교 관련 홈페이지 등의 게시판을 통해 '지율스님을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글은 지율 스님이 도롱뇽을 대신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10만명 서명 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

서명에 동참하고 싶은 불자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02)733-7277

■ 신청 홈페이지(http://cheonsung.com/salamander/input_b2.asp)

게시판 엿보기

⊙ 요즘 연예인들 따라하기가 유행입니다. 그것처럼 불교인은 부처님 따라하기를 생활화 하고 있으면서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부처님 닮고 부처님처럼 살기를 기원 드립니다.

동선 다음 고집불통 자유게시판

⊙ 자주 들리기는 하지만. 이렇게나마 발도장 찍고 가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 날씨도 차가워지는 계절에 불자님들. 두루두루~ 건강 하시길 빕니다! ㅡ 성불도 하시고요! ..()..

천봉 다음 연꽃향기마을 자유글/가입인사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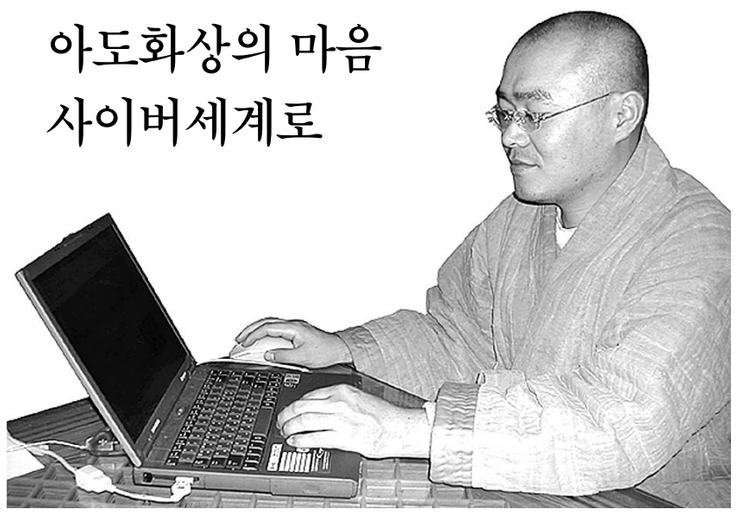
⊙ 오늘 쉬엄 쉬엄 법련사에 다녀왔습니다. 법당에 가서 108번 절도 하고요. 음. 생각보다 무지 좋았어요. 물어물어 갔는데 주위 분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구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 진거 같습니다. ^^ㅋ 진작에 갈껄.

사랑100분 세이클럽 청년불자우리사랑 자유게시판

우리절 digital · cyber 불사

도리사 (www.dorisa.or.kr)

아도화상의 마음 사이버세계로



◇도리사 총무 묘장 스님은 도리사 홈페이지와 다음 도리사 카페를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다.

고구려 승려 아도화상이 신라에 불법을 전하기 위해 세운 해동 불교의 발상지 경북 구미 도리사. 아도화상이 불법홍포를 위해 신라 땅에 처음 사찰을 세웠던 그 구도의 마음으로 최근 사이버 공간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도리사 홈페이지는 도리사 소개, 주지 법등 스님의 행장 및 법문, 기초 교리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불교정보를 네티즌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특히 링크로 연결된 다음의 도리사 커뮤니티 역시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 수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의 향기 느낄 수 있는 깔끔한 디자인
최근 전용선 설치 스님 · 신도들 업무에 도움

도리사가 사이버 포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주지 법등 스님의 정보 소양 때문. 실제로 스님은 도리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오복지관과 구미불교대학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 처리하는 등 정보능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도리사 총무 묘장 스님은 "큰스님이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보화 마인드를 갖고 됐고 사찰도 정보사회에 걸맞게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신다"며 "실무자보다 더 앞선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한다"고 전했다.

도리사의 정보 인프라 또한 엄청나다. 첩첩 산중이라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할 수 없어 이동안 위성인터넷을 이용해 사찰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했고 최근 일주문 아래에 광케이블 공사로 사찰까지 전용선을 연결, 한국통신 매가패스 6선을 신청해 사용하고 있다. 사찰 종무소와 주지스님을 비롯한 사찰 소임을 맡은 스님방 등 사중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신도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컴퓨터를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찰 종무 역시 조계종에서 보급한 가람지기를 사용하고 있고 회계부분도 조계종에서 배포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사중의 행정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서울大출신 공학도가 풀어낸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내사주 내가 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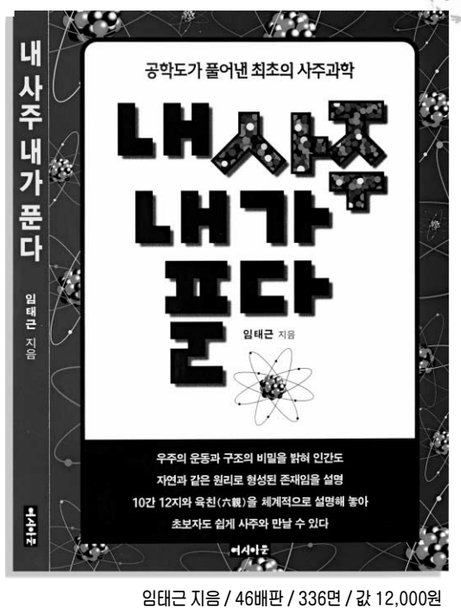
10干 12支는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甲木 :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
· 乙木 : 옆으로도 퍼지는 힘
· 丙火 : 밝게 빛나는 광선
· 丁火 : 조용히 타오르는 불
· 戊土 : 광활하고 거친 대지
· 己土 : 부드럽고 낮은 땅
· 庚金 : 거친 원광석
· 辛金 :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
· 壬水 : 시원하게 흐르는 물
· 癸水 : 이슬 같은 생명수
· 寅木 :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
· 卯木 :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
· 辰土 :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
· 巳火 : 화려하고 번성한 도심지
· 午火 :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
· 未土 : 문화의 산물을 저장및 중재하는 장소
· 申金 : 물이 샘솟는 구획된 도시
· 酉金 :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
· 戌土 : 낙엽 지고 메마른 땅
· 亥水 : 생명이 숨쉬는 얕은 바다
· 子水 : 고요하고 깊은 바다

- 부시 美 대통령과 남북 정치인 3인의 運은? (실전풀이편에 소개)
- 육친(六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이 책은 자연의 순환하는 관점에서 사주를 분석하고 팽창(木火) 과 수축(金水)의 관점에서 중화용신(中和用神)을 설정하여 독자 스스로 운명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代에 걸쳐 진행되는 대하드라마입니다.



임태근 지음 / 46배판 / 336면 / 값 12,000원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2-1521(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진리의 꽃 피어난 靈山

다보, 석가탑 유래의 영산회상터
경장과 율장의 결집장소였던 칠엽굴
풍화작용으로 옛공간 기록에만 존재



인도 그림기행 26

그림·글 이호신

염화미소와 불법의 꽃씨

(영축산과 칠엽굴을 오르며)

한국의 양산 영축산(靈鷲山) 통도사(通度寺). 그 산이름이 유래한 왕사성(라즈기르)의 영축산(독수리 봉우리 이름을 딴산)은 정다움을 넘어 순례자에게 영산회상(靈山會相)을 들려준다.

영축산에 머물던 붓다께서 설법도중 한 송이 꽃을 들어 대중에게 내 보이자 모든 대중이 어리둥절할 때 유일하게 마하가섭(마하카샤파)만은 그 뜻에 응화(應化), 빙그레 웃음지었다는 염화미소(拈華微笑).

그 환한 얼굴을 비추었을 그날의 빛이 영상처럼 떠오르고 열락(悅樂)의 세계가 여전히 꽃비를 뿌리는 듯 지금 영축산 독수리 봉엔 오색 깃발이 찬란하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사방천지의 산능선이 출렁이니 모든 봉우리는 마치 독수리봉을 에워 싸고 둘린 느낌이다.

마침내 붓다의 부촉(咐囑)은 그날 "여래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 열반묘심(涅槃妙心)이 있으니 이를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비로소 열린 세상을 향해 꽃내음이 진동할 때 영산회상곡은 산천으로, 삼천대천 세계로 울려 퍼졌으리라.

그런데 오늘 일행을 위해 붓다께서 이곳에서 설한 <법화경>의 중대성을 갈파하던 김영태(金煐泰)박사(불교사상사, 전 동국대교수)님이 우연히도 설법 후 잠시 삼매경에 들어 천상에 나투신 붓다와 불 · 보살을 친견했노라고 감읍해 한다. 평생 불성(佛性)속에 정진해온 노학자의 오랜 숙원과 간구, 영축산의 가피가 결코 우연만은 아니리라.



◇칠엽굴(45×30cm).

사생을 위해 살펴본 산봉우리는 어김없이 독수리 형상을 띠었고 두 날개를 펼친 형국도 산이름에 걸맞다. 산정상엔 설법좌, 즉 여래향실(如來香室)의 기단부를 복원(1903년)했고 이곳에서 출토된 붓다상 및 기타 유물은 나란다 박물관에서 보존중이라 전한다.

무엇보다 붓다가 영축산에서 설한 <법화경>의 '견보탑품' 중 주목되는 내용은 경을 설하는 붓다 앞에 다보여래의 탑이 솟아올랐다는 것과, 경을 설하고 계신 붓다를 탑으로 묘사하여 '석가탑'이라 명한 대목에서 경주 불국사의 다보, 석가탑의 유래를 보게 되는 내용이다. 이로써 불국사 뜨락의 이형탑 조성 근거는 명백한 진원을 얻게 된다.

하산 길에 산봉우리 아래 굴은 사리불 존자가 수행했다는 말에 다급히 화첩을 펼치는데 사진엽서를 파는 아이들로 여간 성가신게 아니다. 그들은 그림 그리는 나를 처음부터 구매객으로 점찍어 두었기에 어쩔 도리 없이 여러 아이들에게서 다양한 사진을 구했다.

결국 권력의 세계는 허망한 것인가. 타즈마할을 지은 사라한이 아들에 의해 아그라성에 유폐되어 죽어갔듯이 빔비사라왕 또한 그의 아들 아쟈타샤트루에게 왕위를 찬탈 당하고 영축산을 바라보며 죽어간 감옥터를 찾아간다.

◁영축산 (62.5×93.5cm).

그 감옥터에서 올려다 보이는 칠보산과 영축산 능선에는 자이나교 사원과 일본 사원이 우뚝 솟아 있다. 모두 보란 듯이 산정상을 차지한 사원에 비해 한국의 가람은 사실 얼마나 소박한가. 오로지 산을 둥지로 삼아 숨겨진 알터에서 조용히 향을 사르니 자연과 문화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일행은 이제 온천지로 유명한 데바닷타 석실을 향해 가자 온천 뒤쪽으로 옛날 박칼리라 불리우는 비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불과(佛果)를 증득했다는 바위가 있다. 그의 몸에서 흘린 피가 붉게 물들었다는 '피로 얼룩진 바위'를 지나 '타포다 나디(Tapoda Nadi)' 온천 및 '핍팔라 석실(Pippala stone house)'에서 바라보는 왕사성의 전망은 일망무제, 장엄의 극치다.

길을 이어 산을 오르는데 맨발의 소년과 강아지가 길라잡이 되어 앞서서 뛰어 오른다. 또 산길에서 마주친 나무짐을 가득 머리에 인 여인은 거친 손마디에도 온갖 장식과 화려한 색감의 옷을 걸쳤는데 그녀 역시 맨발의 청춘(?)이다.

목적지는 칠엽굴(七葉窟). 반시간여 땀을 씻으며 또 산을 오르자 두개의 자이나교 사원이 나타나고 조금 비탈길을 내려가자 사진에서 본 칠엽굴이 마침내 드러났다.

이곳은 붓다 입멸 6개월 후, 마하가섭이 500명의 비구를 모아 붓다가 설한 경(經)과 율(律)을 집대성한 최초의 경전결집 장소라고 한다. 즉 불법의 꽃씨를 심은 뜨락이요, 그 꽃을 피운 다음 마침내 민들레 꽃씨가 되어 천지로 날아가게 한 불전(佛典)의 진원지 였음에랴.

예전에는 이곳 동굴 앞에 수백 명의 비구들이 모여 앉을 수 있는 넓은 회랑이 있었다고 하나 현장은 그리 넓어 보이지 않다. 그 동안 깊고 넓었던 동굴은 풍화작용으로 굴이 무너져 내렸다. 즉 1939년 인도 고고학국에서 동굴을 실측했을 때만해도 6개의 동굴이 남아 있었고, 동굴 앞 공간은 36.57×10.36m(길이×넓이)나 되었다고 기록은 전한다. 동굴에서 뒤돌아보자 깎여나간 암반이 벼랑처럼 가파르고 시야는 아득히 허공을 비껴난다.

오늘은 이른 새벽부터 진종일 가야산과 영축산, 그리고 칠엽굴을 찾아 산을 오르내린 피로가 그새 몰려오니 땅거미 짙고 일몰이 잦아드는 시간이다. 하지만 순례의 길은 고단해도 마음은 달뜨는가. 아니 이 무슨 행운의 조화인가.

산길을 돌아서는데 일몰의 붉은 해와 둥글고 흰 낮달이 동서로 조응하며 옛 왕사성 하늘 위에 떠있질 않는가. 결코 환상이 아닌 뚜렷한 풍광속에 모두들 말을 잊고 합장하는 경건한 모습들. 참으로 알 수 없는 은혜요, 뜻 깊은 시절인연이다.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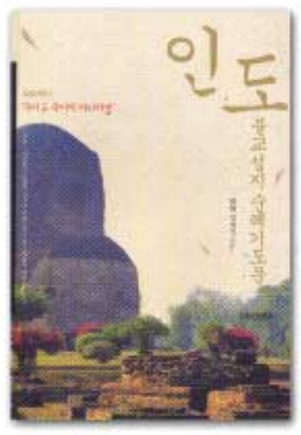
인도 불교성지 순례자는 반드시 이 책을 준비해야 한다!

"인도 불교성지 순례기도문"

불자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꼭 다녀와야 할
'인도 불교성지 순례', 무엇보다 충실한 사전준비가
순례의 뜻을 더욱 깊게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인도 불교성지 순례기도문'이 순례에 나선 모든 불자님들을
잘 인도하여, 신심과 기쁨을 한층 키워줄 것입니다.

"부처님, 저희들도 부처님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부처님같이 살아야 해요.
만분의 일이라도 부처님같이 살아야 합니다.…" – 본문에서

인도 불교성지 순례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꼭 이 한 권의 책을 들고 순례 길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 달공 조흥세(전국신도회 고문)



저자 | 김재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학과와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졸업하였다. 서울 동덕여고에서 33년간 봉직하였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를 역임하였다.
1970년 미리 동덕불교학생회와 청보리회를 창립하여
지금까지 지도법사로 있으며, 1984년부터 현재까지
동방불교대학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 「은혜속의 주인님세」
「무소의 뿔처럼」 · 「365일 부처님과 함께」
「우리도 부처님같이」 · 「민족정토론」 · 「광덕스님의 생애와 사상」
「한소리 불타전」 · 「초기불교개혁사」 · 「붓다의 대중간섭운동」 등 다수가 있다.

신국판 / 368쪽 / 값 9,000원
※ 단체에서 10권 이상 구입하면 할인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dopiansa (전화)031-676-8700 / (전송)031-676-6704 / E-mail : dopiansa@kornet.net